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2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4월 1일(음력 3월 6일) 수요일(주간)

'삼국유사' 마케팅

인각사 문화랜드 추진

경북 군위군(군수 박영언)이 '삼국유사' 마케팅을 펼쳐 눈길을 끈다. 국보 제306호인 삼국유사가 700여 년 전 군위 인각사에서 보각국사 일연 스님(1206~1289)에 의해 편찬됐다는 점을 알려 지역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군위군은 3월 26일 군위군청내 새마을과에 '삼국유사' 부서를 신설하고 홍보 및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앞선 3월 21일 대구 경북연구원에 인각사 일원 조성될 '삼국유사 문화랜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또 삼국유사 전문가 13명으로 '삼국유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4월 중 3억원 예산의 대형 조형물(가로 7m, 세로 5m)과 예산 1억 5000만원을 배정해 대구 · 군위 운행 시내버스 및 택시 140대 외부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광고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군위읍 군위교육문화체육회관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국유사 시가집을 각 3000부 제작, 전국 지자체 및 공공 도서관, 출향인 등에 배부하며, 470여 군 전체 공무원들의 명함에도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는 문구를 새겨 넣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힘내라 대한민국'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전국의 주요 사찰들이 본격적인 봉축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한 메시지로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연등으로 장엄해 불자들과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박재완 기자

가난한 자의 연등 더 밝았듯이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준비 한창…경제 한파 녹이는 '봉축' 기대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한달 앞둔 때, 전국 사찰마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손끝을 빨갛게 물들이며 연등 만들기가 한창이다. 경내 한켠에서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선남선녀들이 봉축행사에 선보일 율동을 준비하는 광경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극락이 따로 없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사태는 세계 경기를 공황상태에 빠트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주가와 환율은 요동 치고, 실물경기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온 지도 오래다.

불교계의 따뜻한 관심이 없다면 모두가 행복해야 할 부처님오신날이 그들에게는 그저 고단한 여느 하루와 같기 십상이다.

3월 24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 이하 봉축위)가 발표한 200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에는 축제 속에서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천하려는 봉축위의 고민과 배려가 가득 담겨있었다.

#어려운 이웃위해 燈 밝혀

올해 봉축행사는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표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과 나누며 함께 극복하는 노력을 모아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봉축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젊은 층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가는 부처님오신날 △세계인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로 나뉘어 마련됐다.

봉축위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봉축행사를 정점으로 각 지역의 어려운 이웃돕기와 교도소 양로원 군부대 등 위문행사, 사찰별 결연을 통한 소년 · 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돕기 다문화가정 돕기 등을 독려하는 한편, 조계종 자비나눔 운동을 활용한 이웃돕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 · 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프로그램들은 두 손을 펴고 저잣거리에 드는 '입전수수(立廛垂手)'를 실천하는 모양새다.

저소득 · 실직가정을 위한 '희망의 등달기'를 통해 모아지는 등공양비 중 1000원씩은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27일 조계종 전국 사찰들이 1배 108배 모금법회를 봉행한 것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함이었다.

자비나눔을 통한 이웃돕기를 중심으로 젊은 불자에 대한 격려와 배려, 가로연등 정비에 중점을 둔 전통문화 계승,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와 함께하는 봉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봉축위의 계획이다.

#연등축제 또 하나의 나눔 마당

봉축 분위기는 4월 14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에서 봉축탑을 점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연등축제가 열리는 26일에는 오후 1시 장충체육관에서 어울림마당이, 오후 4시 30분 동국대에서 화합한마당이 있은 후 오후 6~11시에는 조계사 앞까지 연등행렬이 있을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출발지가 동국대로 변경되면서 연등행렬 구간은 700미터 가량 늘어났다.

연등축제 당일에는 12시부터 조계사 앞길에서 불교문화마당도 펼쳐진다. 전날인 25일 오후 7시부터는 연등축제 전야제로 조계사 앞에서 연등놀이도 기획됐다.

이와 함께 9일에는 청계천 연등전시가, 24일~5월 5일까지 삼성동 봉은사에서는 전통등전시회가 열린다.

부처님오신날이면 각 사찰마다 봉축 연등 모연을 한다. 이 시기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빈녀 난타의 사연을 담은 '빈자일등(貧者一燈)' 일화다.

가진 것 하나 없던 난타가 부처님에게 등공양을 올릴 수 있던 것은 난타의 구걸에 한 푼을 적선한 이와 기름을 사러간 난타를 갸륵히 여겨 한 푼 어치보다 훨씬 많은 기름을 주었던 기름집 주인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유독 꺼지지 않고 환히 어둠을 비출 수 있었던 빈녀 난타의 등(燈)은 그녀의 신심 뿐 아니라, 그녀를 도운 이들의 자비와 보살행이 있어 가능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우리 시대 제2, 제3의 난타의 출현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가 더욱 기다려지는 까닭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선지식을 찾아서 ▶14 도영 스님


15억 '기증' ▶6 종지 스님

▶11 장보고가 맺은 인연
▶19 유심아카데미에 가봐

법구경

지혜로운 수행자는
장애물을 태우는 불처럼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복장의식, 상량식,봉사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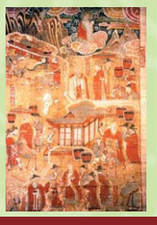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향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죽비와 목탁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위덕대, 와세다대와 치매 연구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얼마전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결승에서 숙적 한국과 일본이 맞수대결을 펼쳐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본의 비신사적 행위로 다소 문제를 야기하며 경기는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한국팬들은 좋은 경기를 보여준 한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것은 비단 야구뿐만이 아니다. 축구는 물론이고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 아사다 마오 선수까지 양국의 대결은 각국 국민들에게 '자존심 싸움'에 가깝다. 이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쌓인 반일감정과도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불교계 한 종립대가 국가 · 이념을 초월한 자비행을 위해 일본 유명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각종립 위덕대(총장 배도순)는 3월 20일 경주시보건소에서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협약식을 갖고 '노화에 따른 치매예방을 위한 현미텀벨체조 및 껌씹기 트레이닝효과에 관한 종단연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위덕대 이상직 교수(사회체육학부)가 일본과 연구협정을 맺고, 경주시보건소의 협력을 받아 2009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년간 진행하는 대형프로젝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던 치매관련 사업 · 정책은 예방보다는 사후관리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번 연구는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최종결과를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위덕대가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경주시보건소가 선발한 65세 이상 고령자 70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돼 지역포교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과정에 일본노인들의 교류차원 한국관광도 포함돼 있어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치매는 환자 1인당 연간 8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개인 · 국가적 경제 손실이 우려돼오던 질병이다. 더욱이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으로, 각 가정의 경제도 힘을 잃어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위협적이다.

"중생들의 온갖 질병을 다 없애고 몸과 마음이 안락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도록 서원한다"는 약사여래부처님의 대원이 합동 연구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포교 산실 전법회관 '개관'

조계종 중앙신도회 4월 8일 개관식 예정

조계종 전국신도회(중앙신도회 전신)가 결성된 것은 1955년. 재가자들은 강한 신심으로 범불교적 사회운동을 펼치며 부처님오신날을 제정하는 등 불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포교 · 신도단체들의 사무 및 공동회의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해 신도들은 활동 공간 마련을 오래도록 염원해 왔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 · 신도단체들의 보금자리이자 포교의 산실이 될 전법회관이 착공 2년 만에 건립을 마치고 개관식을 갖는다.

4월 8일 열릴 개관식은 오전 9시 20분 안택기도를 시작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치사, 김의정 중앙신도회장과 김충용 종로구청장의 축사, 표창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제막식에 이어 중앙신도회 부설법인 (사)날마다좋은날 불교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단장 구자선) 치과전문병원 '연우치과' 개원식이 함께 진행된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에 건립된 조계종 전법회관이 4월 8일 개관식을 봉행한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에 소재한 전법회관은 1050여 평에 이르는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로 앞으로 포교 1번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법회관은 건물 주변부지 매입과 문화재 심의 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6년 '전법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7년 8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8년 5월 상량식을 개최했다. 이어 2008년 11월 사용 승인을 받고 12월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부설기관과 소속단체, 복지재단 등 총 21개 단체가 입주했다. 특히 62억원이 투입 된 신도회관의 건립은 사부대중의 순수 원력이 이뤄낸 것이라 의미가 깊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조계종 신행 · 포교단체와 사회복지재단 등이 한 공간에 위치함으로 재가신도중심의 결집공간으로 의미가 크다"며 "각 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통합으로 생활불교운동의 출발을 알림과 동시에 사회의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 기대했다.

글=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서암 종정스님 복권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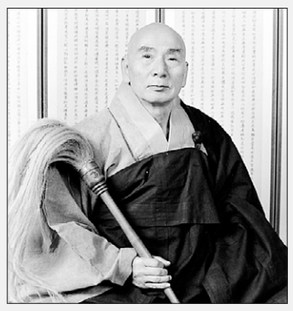
원두 스님 3월 23일 성명서 발표

"종단 화합 차원에서 서암 종정스님은 명실 공히 복권돼야 한다."

3월 20일 폐회된 조계종 제180회 임시중앙 종회에 상정 됐던 '2009년도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은 의사일정상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밀운 스님 등 조계종 원로스님들이 멸빈자 사면 복권 등을 청원한 것은 화합을 우선시한 종단 내 여론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와 관련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종정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원두 스님은 3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암 종정스님의 복권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작년에도 성명서를 발표했던 스님은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서암 종정의 복권을 주장했다.



前 조계종 종정 서암홍근 스님.

스님은 성명서에서 "석존의 법 · 율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발표한 서암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불조에 대한 불신임이자 불경"이며 "원로회의 불신임이 없었음에도 승려대중에게 '원로회의 종정불신임에 동의합니까'라고 물은 것은 승려대중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원두 스님은 "당시 원로회의에서 서암 종정이 불신임되지 않았다"면서 "조계종 원로회의는 사면복권 당위성을 분명히 하고, 1994년 종단 사태의 와중에서 위법하게 치탈된 승려들의 원상회복 청원서(2008년 5월 15일 제출)에 공식적으로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의 혼불 살려 위상 세우자"

東大 정각원장 법타 스님 취임법회

동국대 정각원장 이 · 취임법회가 3월 24일 정각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진수 부총장을 비롯해 종호 스님(前 정각원장), 혜원 스님(불교대학 · 불교대학원장) 등 교수 및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원장 법타 스님은 "동국대는 조계종과 한집안 살림이다. 자학 · 자조하지 말고 동국의 혼불을 살려 명문사학 동국대의 위상을 바로 세우자"고 말했다.



3월 24일 열린 동국대 정각원장 이 · 취임법회에서 신임 정각원장 법타 스님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법문하는 모습.

한편, 법타 스님은 1946년 충남 청주에서 출생해 1974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군종교구 군승 안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3월 24~26일 2박3일 동안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육 · 해 · 공군 군승 전원이 참석한 군승 안거를 봉행했다. 110여 군승들은 포살법회를 비롯해 △간화선 및 장병수행 프로그램특강 △포교사례 발표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현수 정사 · 법안정 전수 체탈도첩

진각종 종의회(의장 성초)는 3월 23일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61회 임시종의회 및 사감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재적의원 37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현수 정사와 법안정 전수의 체탈도첩 징계처분 의안을 심의하고, 찬성 31표 · 반대 3표 · 무효 2표로 체탈도첩을 확정 · 의결했다. 현수 정사와 법안정 전수는 세 차례에 걸친 인사불복과 종무행정 비방행위 등으로 2008년 10월 13일 강급행계 7급 2호와 공권정지 10년을 징계 받은 바 있다. 징계의 확정 및 효력발생은 도흔 종인의 재가를 얻는 즉시 확정된다.

한편, 종의회는 1월 2일 열반에 든 일지행 전수의 선사록 등재도 의결했다.

김진성 기자

자연공원법 개정안 실무소위 구성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 3차 회의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위원장 장적)는 3월 25일 3차회의를 개최하고 자연공원법 개정안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 장적 스님을 비롯해 정념(재무부장), 세영(사회부장), 수경(문화부장), 현응, 혜오, 계호 스님과 추진실무팀이 참석한 이날 3차회의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법안 스님, 이병인 교수, 김재일 소장을 추진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현응 스님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교수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 실무소위원회는 '자연공원법'이 사찰 수행환경과 종단 권리를 침해 · 규제하는 내용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는 "정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 진행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영험한 돌미륵 남해 미륵암 - 대웅전 중창불사를 위한 만등불사



귀의 삼보하옵고,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미륵암(주지 청운)은 한 사찰로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녕과 염원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과 원력으로 미륵암을 창건하였으나, 정성이 부족하여 아직도 부처님의 도량이 중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시봉하는 소승이 부끄러운 마음을 모아 대웅전 중창의 대원력을 발원하고 많은 신심있는 불자님들의 염원 동참을 기원하면서 일인 일등 만등불사의 뜻을 높이 들겠습니다. 불가의 중수 중창은 불보살님이 가피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절 인연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부대중의 지극한 신심이 있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정진의 노력으로 미륵암의 중창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일인 일등으로 만등의 등불을 밝혀 법계 광명하기를 기원하오며, 빈자일등의 행을 지어 청정한 마음으로 지혜의 광명 얻으시길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광명의 등, 용서의 등, 관심의 등, 쾌유의 등, 성취의 등, 왕생극락의 등, 애정의 등, 인연의 등으로 함께 하소서....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합장

만등불사 발원문

"원하옵나니 불사에 동참한 불자는 병마의 고통이 여의어지이다. 지혜가 무궁 하여지이다.
자손이 효순하며 번창 하여지이다. 참회가 순수하며 회향이 바르게 되어지이다.
날 적마다 부처님의 법 여의지 아니 하여지이다. 원하는 바가 부처님과 같이 되어지이다.
구경에 성불하여 위 없는 행복을 누려지이다."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미륵암의 돌미륵님



지금은 방조어부림(방풍리)과 방조제로 인해 남해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친 풍해를 이겨냈지만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의 평안을 빌고자하는 의식은 예로부터 여전히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은 단지 바다를 상대로 하는 절대 의식에서 발전하여 개인의 안녕과 발전을 염원하는 물건리 토속신앙의 대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토속신앙의 대상이 바로 물건리 미륵암에 모셔져 있는 돌미륵인 것입니다.

미륵암 주지 청운스님은 물건리 바다 한가운데서 현재의 미륵암으로 광명이 발현하는 두 번의 선몽을 받은 후 돌섬 한구석에 잠들어 있던 돌미륵을 찾아 미륵암 현위치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계시대로 돌미륵을 모신 후 정성껏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어업자의 만선과 물건마을의 대소 악재는 씻긴 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물건리는 물론 삼동면 골골 흘러나가 지금은 누구나가 염원에 대한 기도처로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 소원성취 또한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돌미륵은 그 영험함을 나투어 어업자를 위한 미륵, 사업자를 위한 미륵, 학업자를 위한 미륵으로 남해군민 불자 및 물건마을 불자들의 항상 성불을 이루는 영험한 미륵으로 신앙심으로 높으며, 누구나 꼭 한 가지 소원은 성취하게 하는 미륵보살로 그 영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험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돌미륵에 대한 기도는 물론이요 적절한 관리와 보존이 우선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륵암 돌미륵의 지방문화재 지정은 물건리는 물론 삼동면 주민들의 안녕과 염원처로서의 정신적 귀의처를 확인하는 절차임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불사내역

■ 미륵암 한평 내 땅 갖기(개인법인설립위원의 자격)
■ 만등불사
■ 기둥불사, 용머리, 부연, 주춧돌, 후불탱화, 닷집, 천불상, 대들보, 상량대, 도리랭이, 도리, 석가래, 부처님 법단, 법당문, 기와
■ 미륵 지방문화제 등록 중
■ 금강경, 반야심경, 달마도 등등 각종 액자, 병풍 전시 판매
■ 보살계 봉행, 신도증 발급(4.8까지 접수, 사진1매)





미 륵 암 주지 청 운 합장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물건리 방조어부림 앞)
계좌번호 : 하나은행 511-910006-06204 / 농협 : 831075-51-023041 (예금주 : 미륵암)
종무소 : 055)867-0776, 2259 / fax 055)867-8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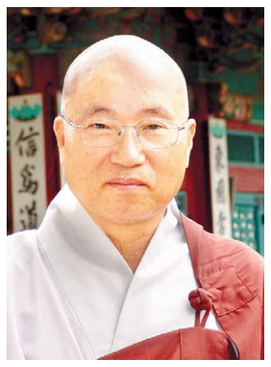
미륵암의 신비하고 영험한 미륵보살의 원력을 체험하려 오세요!!

"불자들 환경에 관심 높아"

법산 스님, 불자 생태문화 의식 조사연구 결과 발표

불교계가 2001년과 2004년 각각 사패산 터널과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반대했던 것을 비롯해, 한반도 대운하 등 환경생태와 관련한 사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은 불자들의 남다른 환경생태에 관한 관심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 사진)이 <보조사상> 제31집에서 '불교인의 생태문화 의식 조사연구'를 통해 발표된 것.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사업비 지원을 받아 2007년 3~5월 2개월간 500매의 설문지를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각 종교인을 대상으로 △환경생태문제에 대한 관심 △체감오염도 △자연친화 품성도 등을 조사했다.



논문에 따르면, 설문결과를 평균점으로 환산한 결과 불자들의 환경생태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 3.76 가톨릭 3.55 개신교 3.24로 환경생태문제에 관한 조사에서 불자들의 관심도 수치가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법산 스님은 "산중사찰에서 생태적 삶을 영위하던 불교인들이 지역 개발로 인해 갈등의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에 관해서는 가톨릭이 4.34, 개신교가 4.16 불교가 4.02였다.

스님은 "오염에 대한 불자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스님들이 산중 사찰에서 영위하는 수도생활의 영향이 크다. 불자들 역시 (사찰을 찾아) 청정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다른 종교신자보다 오염 체감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연친화 품성도 조사에서 불자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복의 대상이 아닌 인격도야의 대상으로 동반해야 한다는 성향을 띈 것과도 관계가 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 및 혐오감을 묻는 질문에서 개신교가 2.29 가톨릭이 2.05 불교가 1.94의 반응을 보였다. 스님은 "사찰에서는 산신이나 칠성, 용왕 등 환경신(環境神)을 모시거나 예경해왔다"며 "자연친화를 넘어 자연 섬김으로 이어진 불교인들의 인식은 자연을 공존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라 분석했다.

연구조사는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타종교인들은 명령에 의한 강제조정과 중대한 범죄로 처벌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오염의 책임소재를 묻는질문에 타종교인들은 정부 등 기업을 지목한데 비해 불자들은 자신에게 귀결시키는 성향을 보였다.

특히 불자들은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처벌보다는 설득을, 타율적 강제보다는 스스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 불교적 가르침이 사회갈등 해법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도 했다.

법산 스님은 "종교인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신자들에게 투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이 갖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 종교별 환경단체들을 네트워크로 유기화하는 범종교적이고 범세계적인 환경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강원도에 단비를…"

극심한 가뭄겪는 태백·정선, 불교계 도움 잇따라

최악의 가뭄으로 먹을 물조차 부족한 태백 · 정선지역에 불교계 도움이 잇따르고 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등 조계종 제4교구는 3월 22일 '물의 날'을 맞아 정선 정암사에서 '강원지역 가뭄극복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본사 월정사 뿐만 아니라, 구룡사, 관음사, 삼화사, 법흥사 등 말사에서 참가한 스님과 신도, 도단위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강원 불교계의 가뭄극복을 위한 원력을 담아냈다.

법회 중 헌다에 이어 진행된 기우의식에서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강기창 도행정부지사와 이준연 도의회부의장, 박종기 태백시장, 유창식 정선군수 등이 물을 부으며 비를 간절히 소망했다. 이어 정암사 주지 정광 스님의 봉행사와 정념 스님의 법어 등이 진행됐다.

정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중생들과 더불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법회를 마련했다.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불교계는 물론 관련단체들과 합심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태백시와 정선군에 각각 1,000만원의 성금이 전달됐으며, 정암사에 '강원도 가뭄재해 불교대책본부'도 마련됐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3월 22일 정선 정암사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기원대법회 봉행후 태백시와 정선군 관계자에게 각 1000만원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태백지역 '희망의 생수 보내기' 운동을 벌여 3월 26일 태백시청과 정선구청을 방문해 생수 3만병을 전달했고, 천태종복지재단과 태백 등광사도 3월 11일 태백 시청에 생수 1만병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일배마다 이웃위한 정성이 가득" 조계종 '저소득 · 실직가정을 위한 1배 100원 108배 모금법회'가 3월 초하루인 27일 총본산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3000여 사찰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날 조계사 법회에 참가한 500여 신도들은 1배 100원 외에도 '자비연등달기'와 '자비의 쌀'을 공양을 통해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모금창구를 담당하는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25일까지 약정 포함 총 16,331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자

불교계와 환경단체들 "우이령 개방 반대"

탐방로 지정 철회하는 반대설명서 발표

40년 만에 길이 열리는 서울의 DMZ, 북한산 우이령길 개방을 앞두고 양주시가 자동차도로를 추진해 지역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다.

봉선사, 양주 석굴암신도회, 양주 사암련, 의정부사암련, 불교환경연대, 우이령탐방로도로개설반대위 등은 3월 19일 탐방로 지정을 철회하는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의 DMZ로 불리는 우이령 개방은 겨우 되살아난 강산에 다시 상처를 내는 큰 오류"라며 "양주시는 단지 일부 주민의 서울접근성을 내세워 포장도로개설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인간의 필요로 우리 자연을 모두 개발 할 수는 없다. 의상 대사가 창건하고 나옹 화상 기도처였던 석굴암의 사부대중은 생명존중사상으로 우이령을 지키고자 한다"며 △국립공원인 우이령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이다 △우이령 탐방로 지정개방을 절대반대한다 △환경부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이령길 보존에 적극 나서라 △우이령을 자연보존지구로 보존하라 △우이령과 가장 밀접한 석굴암을 배제한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1 · 21 사태 당시 김신조 무장간첩사건 이후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 20일 탐방로 현장실사에 이어 3월 31일 회의를 열고, 탐방로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서불대 이사회는 수습대책기구 구성하라"

교단자정센터 등, 25일 서불대 정문서 기자회견 개최

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에 대한 결과처분 조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교과부 요구에도 학교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와 서불대 학생회(회장 황성옥)가 3월 25일 서불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사회를 비롯한 서불대 주체들은 법적 소송 대응이 아닌 합의를 통해 현재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현 이사회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중립적인 수습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불대 학생회는 이사회의 용역고용에 의한 교수 및 학생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용역 철수를 주장했다.

학생회는 "이사장 지욱 스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 결정 후에도 학교측이 동원한 용역직원의 위협과 조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용역들이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봉순 총장대행은 "학생회 등이 말하는 용역은 서불대가 경비직원으로 정식 채용한 경비직원"이라며 "2월 28일 재계약이 만료된 前 교수 2인과 해임된 직원 2인이 학교를 출입하며 수업과 업무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만이 근본해결책"

종자연, 종교투표소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중앙선관위의 종교투표소 폐지 방침에 종자연이 환영의사를 밝히며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3월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 비설치 입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결정이 기본권 및 인권을 생각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비롯됐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대로라면 언제든 다시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있다. 헌재판결과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조속 처리해 이런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종자연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해 심리중인 상태다.

또 종교자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통해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금지'를 권고토록 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정부 국가인권위 축소에 불교계 연대성명

MB정부의 국가인권위 축소방침에 불교 각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범불교대책위원회, 실천승가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경불련 등 15개 불교계 단체들은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족한 인권의식에 일침을 가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차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축소는 한국인권사의 퇴보가 아닐 수 없다"며 "불교계는 정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前 세계〃미세스 진〃 현지 방필석 촬영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주역 개인지도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

* 매주 토,일요일 무료 인생 상담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드려요"

서울 도봉동 서원암, 급식 및 어린이 공부방 문 열어

온 국민이 미국 LA에서 열리고 있는 WBC 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야구경기에 열광하는 시간. 3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세 시간 동안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원암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통해 천천히 모여든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새로 단장된 방으로 모셔졌다. 어린이용 서적에서 한글 대장경까지 불서가 빼곡한 방 가운데는 열 두 개의 식탁이 펼쳐져 있고 식탁마다 어느새 어르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몸이 불편 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저희가 식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다음 주에는 주위의 분들까지 모시고 함께 오세요."

"이렇게 잘 먹고 그냥 갈 수 없어. 설거지라도 도와야겠는데…"

이렇게 시끌벅적 한 가운데 밥과 국솥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오르고 푸짐한 식사와 싱싱한 과일 접시가 식탁으로 배달됐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과 몸은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매년 인근 무의탁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불우한 환경의 이웃들에게 김치를 보시 해 온 서원암이 무료급식소를 여는 첫날 풍경이다. 서원암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무료급식을 하고 다른 시간에는 급식방을 어린이 공부방 및 도서실로 개방할 계획이다.


20년간 김치보시를 해 온 서원암이 무료급식을 시작해 반야지 법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배식을 하고 있다.

"첫날이라 소문이 덜 난 탓인지 100여 분의 지역 어르신들이 식사를 했지만 다음 주에는 두 배 이상 늘어 날 겁니다. 매주 1000여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암 주지 반야지 법사는 20여 년 전부터 이웃돕기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실천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수십명의 어르신들을 공양하면서 시작한 김치 보시가 작년 겨울에는 1만6천여 포기로 늘어났다. 도봉구 일대는 물론 노원구와 의정부와 포천 일대의 이웃들에게까지 자비의 김치를 전해 왔다.

서원암은 김치 보시를 위해 포천에 마련한 농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재료를 충당하고 있다. 농사철이 되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되는 불자들이 농장으로 달려가 무 배추 등을 가꾸며 신심도 다지고 공덕 쌓는 즐거움도 키워 왔던 것이다.

"그동안 김치 재료를 얻는 일을 주로 했지만 올 봄부터는 무료급식에 쓰일 야채들도 모두 농장에서 무공해로 가꿀 계획입니다. 농장도 더 확장했고 자원봉사자들도 더 신나게 일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눌수록 자신과 세상의 행복도 커진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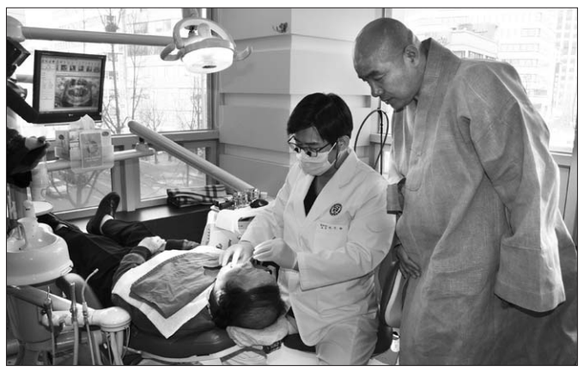
서원암의 김치 보시와 무료급식 등은 반야지 법사의 원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단합이 만들어 내는 나눔의 불사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자의료인 잇따른 자비의 손길

불자의료인들의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와 협력병원 조인식을 맺은 서울 궁플란트 치과(원장 최우환)가 지난 2월에 이어 3월 20일 무의탁 독거노인 김두원 어르신(76)에게 무료틀니시술을 진행했다.


서울 궁플란트 치과 최우환 원장이 김두원 어르신에게 무료틀니시술을 하고있다.

최우환 원장은 "부처님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신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생명과 체온을 함께 나누는 한 몸"이라며 "나눔은 당연한 일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더 나누고 보살피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궁플란트치과는 매달 종로구 소년소녀가장 14명을 무료진료하고 4월 26일, 5월 2일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 행사에 맞춰 병원 앞에 부스를 설치해 무료진료도 실시한다. (02)722-2870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야(단장 구자선)는 3월 21일 서울 새빛지역아동센터(대표 김변호)에서 외부모, 조부모와 살고 있거나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29명에게 치과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반갑다연우야는 앞으로 매달 4~5차례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4월 11일은 서울 용산 혜심원, 12일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25일 서울 경생원 등에서 현장 의료서비스가 진행된다. (02)733-7277

이상언 기자

"용서와 자비로 더 잘 살아보자"

불교여성개발원, 매달 웰다잉문화운동 특강

"최고의 용기는 '용서', 최고의 카리스마는 '자비'다."

중앙신도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 웰다잉운동본부는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 강선희(47 · 여성불자108인)씨 초청특강을 실시했다. 저자 강선희 씨는 죽음의 순간부터 겪게 되는 심신의 변화, 사후 일어나는 현상 등에 대해서 저자의 다양한 호스피스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잘 죽는 방법을 강의했다.

강선희 씨는 "죽을 때 모습은 그 동안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자비와 용서, 수행의 삶을 산 사람은 죽을 때에도 평온하고 사체에서도 좋은 기운이 흐르지만 의심, 시기, 질투로 살아온 사람은 죽을 때에도 고통스럽고 사체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나고 사지가 비틀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서 참회하며 바르게 살고 생사해탈이라는 목표점을 갖고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면 잘 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월정사 단기출가 숲길 걷기

1400여 년 전 자장율사를 비롯한 고승대덕들이 걷던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걷는 행사가 마련됐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5월 23일 제6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옛길 따라'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선 5월 1~31일까지 월정사 경내에서 오대산 사진전이, 5월 1~23일까지는 디지털 사진 촬영대회도 개최된다. 5월 6일에는 '숲과 길의 만남'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마련됐다.

한편 월정사는 4월 6일부터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단기출가학교를 실시한다. (033)339-6800

조동섭 기자

"도시인이 원하는 진정한 정신휴양소 될 터"

백운암 서울 포교당 상도선원 낙성법회 봉행

과거와 현대를 어우르는 대중포교와 수행정진, 21세기형 법당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 선원이 있다. 그 현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백운암 서울 포교당 상도선원(선원장 미산). 당대 고승들이 주석했던 도심포교의 현장인 상도선원에 뜻 깊은 법회가 열렸다.

월산 · 운허 · 탄성 · 석주 스님을 비롯 조계종 5대 종정 서옹 스님(1912~2003)이 40여 년 주석했던 백운암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상도선원이 3월 22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은 봉헌사에서 "서옹 대종사의 뜻과 정신을 이어 이 도량이 참선정진하는 도량, 부처님 되는 도량이 됨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참선 정진해 참사람(無位眞人)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했다.

상도선원은 미산 스님이 '참사람 운동'을 펼쳤던 서옹 스님의 유지를 이어 대중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대승불교, 남방불교학은 물론 간화선과 위파사나 수행을 두루 거친 미산 스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 불교에 현대적 감각을 불어넣어 새로운 수행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산 스님은 "간화선프로그램을 정착시켜 참선수행포교에 앞장서 백운암의 역사와 전통을 이을 것"이라며 "주부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마음수행학교'와 개별 신도에 대한 상담을 토대로 간화선, 위파사나, 주력(呪力), 염불 등 각자에게 맞게 수행법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에는 간다르바 합창단, 의식집전회, 참선수행모임 등 활발한 신행모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세련된 인테리어에 고급 찻집이나 갤러리 같은 선원은 도시인들이 원하는 진정한 정신 휴양소 역할을 할 전망이다. (02)815-3391


3월 22일 백운암 서울 포교동 상도선원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왼쪽부터 허운 스님, 정몽준 의원, 수산 스님, 미산 스님.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깔야나미따 명상선원 '경전공부방'=깔야나미따 명상선원은 4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50분 '빨리 원전으로 공부하는 사띠파타나 숫따 경전공부방'을 운영한다. 수업은 아눌라 스님이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수업료는 3개월에 10만원이다. (010)7303-5159

●남양주 봉인사 '상상 템플스테이'=남양주 봉인사는 △4월 11~12일 '상상 템플스테이' △17~26일 '사마타위빠싸나 명상' △24~26일 '행복수업'을 실시한다. (031)574-5585

●꿈바위불교교육원 '지장경 독송법과 기도법' 지도=꿈바위불교교육원이 지장경 기도의 길을 안내한다. 4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편안한 시간에 지장경 독송법과 기도법을 지도한다. 공세화 원장이 직접 지도 한다. (010)6789-5008

●처난 호두마을 명상센터 '주말수행 프로그램'=천안 호두마을 명상센터는 4월 매주 금~일요일 주말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지 능혜 스님이 지도하며 동참금은 7만 5000원이다. 선착순 55명 접수. (041)567-2841

제11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11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①회당 대종사의 불교 인식 ②회당 대종사의 재가 출가관	제한 없음	지정 주제 내용 지정 주제 공모 취지 www.jingak.or.kr 진각논문대상 공모 광고에서 다운로드
불 교 일 반	3편			
밀 교 일 반	3편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소정 양식: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모일정 : 접수 마감 – 2009년 5월 15일(금요일)
당선작 발표 – 2009년 6월 19일(목요일) 예정
당선논문발표회 – 2009년 11월 13일(금요일) 예정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 (500만원), 선정 7편 (편당 20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 수 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suhyun@jingak.or.kr / yongdae49@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대 한 불 교 진 각 종 교 육 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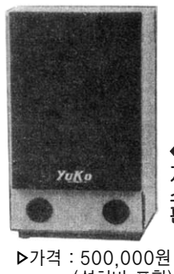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인생무상 느껴 출가한 신라왕자…중국 선 '나한'

특별기고
정중종의 조사 신라승
무상 선사를 찾아서 上







①덕순사(현 영국사) 보리도량에 모셔진 무상선사의 벽화.
②대자사 입구.
③대자사 대웅전.

처적 스님 문하서 2년간 참선 … 금곡산서 10여 년간 두타행
수행할 때 맹수 다가오자 몸보시 하려했으나 오히려 호위해줘

중국의 오백나한이 된 무상 선사

2001년, 중국 운남 공죽사의 오백나한상 중 신라 출신의 한 스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중국의 오백나한상에는 부처님의 제자 뿐만 아니라 일찍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이름을 떨친 선사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유일하게 외국 출신의 스님으로서 나한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이 바로 신라승 무상(無相: 684~762) 선사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무상 선사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상 선사가 누구인가? 선사의 행적이 얼마나 지대하기에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추앙받아 왔을까? 근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사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 필자 역시 이전에는 무상 선사라는 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우연히 성도에 있는 대자사를 참배하여 그곳에 무상선사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분을 알게 되었다.

더없는 부끄러움과 호기심에 무상 선사에 대해 공부하고 기회를 얻어 선사의 자취를 찾아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다. 여기 잊혀진 오백나한, 선불교 정중종(淨衆宗)의 개창자, 두타행(頭陀行)의 실천자 무상 선사의 행적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당으로 건너간 신라 왕자

현재 무상 선사의 행적과 사상을 전하고 있는 주요자료로는 돈황에서 발견된 <역대법보기>, 신청의 <북산전>, 규봉 종밀의 <원각경대소초> 등이 있다. 이 밖에 <송고승전>, 티벳의 고대역사서 <바세전>, 돈황에서 발견된 <무상오갱전>, <김선사 어록> 등에서도 선사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무상 선사는 서기 684년 신라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누이동생은 강제 결혼에 저항해 칼로 얼굴을 자해하는 일이 생겼다. 이에 무상 선사는 "약한 여자도 정조를 알고 있는데 어찌 장부로서 무심하랴" 하며 발심하여 군남사로 출가했다 한다. <송고승전>에 의하면 훗날 무상 선사를 죽이기 위해서 중국으로 자객이 왔다고도 하는데, 당시 왕가의 권력투쟁에 환멸을 느껴서 출가했을 수도 있으리라.

이후 당으로 건너가 황제를 알현하고 스승을 찾아 각지를 돌다가 촉(蜀: 지금의 사천성)에 이르렀고, 자주(資州) 덕순사(德純寺)를 찾아가 처적 스님의 제자가 되고 그에게서 '무상(無相)'이라는 법명을 얻었다. 일설에 의하면 처적 스님이 무상 선사가 올 것을 예견하여 미리 귀인을 맞을 준비를 시켰다고도 하며, 처적 스님이 선사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로 만나주지 않자 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불태움으로써 불심을 증명하니 그제서야 제자로 맞이했다고도 한다.

무상 선사는 처적 스님 밑에서 2년간 선불교를 배우고 인근의 금곡산으로 들어가 10여년간의 두타행에 매진하게 되니, 덕순사는 이후에 선사가 깨달음을 얻고 정중종을 개창하게 한 근간이 되는 셈이다.

두타행을 통한 깨달음

무상 선사는 2년 간의 선법 공부를 마치고 난후 인근의 금곡산으로 들어가서 좌선과 두타행에 몰입했다. 야산과 무덤가를 가리지 않고 수행을 했고, 한번 기도에 들어가면 5일 입정(入定)을 원칙으로 삼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먹는 것은 최소한으로 자제했고 그나마 양식이 떨어지면 흙을 파먹고 허기를 채웠다. 또 항상 초의(草衣)를 입었고 제멋대로 자란 머리도 괘의치 않아, 사냥꾼이 짐승으로 오인해 활을 겨누기도 했다 한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무상 선사가 수행할 때 맹수가 다가왔는데, 선사는 오히려 옷을 벗고 누워서 맹수에게 몸보시를 하려 했으나 맹수는 선사의 몸에서 냄새만 맡고 이내 사라졌고, 오히려 호랑이가 수시로 선사를 호위했다고 한다. 당시의 두타행이 얼마나 치열했으며 중생들에게 얼마나 경외의 대상이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중에 저자거리로 나와 낮에는 무덤에서, 밤에는 나무 밑에서 좌선하는 두타행을 계속하자 사람들이 그를 마음으로 존경하여 정사를 지어 받쳤다고 한다.

무상 선사는 두타행을 통해서 무엇을 참구하였을까? <역대법보기>를 보면 스승 처적 스님과 무상선사의 선문답이 나온다.

"너는 금곡산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무망합니다(總不作, 隻沒忙)."

"네가 그처럼 바쁘니, 나 역시 바쁘다(汝與彼忙, 吾亦忙矣)."

무상 선사가 두타행을 했던 금곡산 석암(石岩) 터는 영국사에서 몇 리 떨어진 곳인데 아직도 선사가 수행하던 그 때의 모습이 남아있다. 석벽 곳곳에 조성된 불상은 그 연원이 당송대에 까지 이른다 하니, 그 중 어딘가에는 무상 선사와 대면하며 깨달음을 인도한 부처님이 남아 있을 것이다.

혁명으로 잃어버린 것들

자중현 덕순사(지금의 영국사)로 가려면 성도에서 남쪽으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 이른 봄에도 주변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여 눈을 즐겁게 한다. 굽이진 도로를 따라 자중으로 향하니 성도의 평지에서 점점 낮은 구릉의 산지로 접어들었다. 검게 그을린 주민들의 얼굴에선 아직 세속의 땟속이 묻어나지 않는 순박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중 시내에서 다시 2km 외곽으로 빠져 나가면 영국사에 도달한다. 제일 먼저 웅장한 산문전이 일행을 맞이했다. 산문전에는 네 개의 현판이 길게 걸려 있어 정중종과 보당종의 발원지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범목가사전사신라삼태자(梵木袈裟傳嗣薪羅三太子)', '덕순정중보당중한불맥선풍(德純淨衆保唐中韓佛脈禪風)'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무상 선사가 전법가사를 이어받은 신라의 셋째 왕자란 뜻이며, 정중종과 보당종의 본원 덕순사에서 중국과 한국의 선불교 맥을 잇는다는 뜻이겠다.

산문전을 들어서면 대웅전이 나오고 그 뒤로 난계단을 올라서면 보리도량이 나온다. 이 보리도량에 지선, 처적, 무상의 3대 조사가 모셔져 있다. 지선 스님은 5조 홍인 대사의 10대 제자로 많은 경전을 편찬했고, 측천무후가 그의 법력을 흠모하여 내전으로 불러들여 가르침을 받았다 한다. <역대법보기>에 의하면 지선 스님이 덕순사로 돌아갈 때 측천무후가 보관하고 있던 달마 조사의 전법가사를 그에게 전해줬다. 전법가사는 처적에게로 전해지고 다시 무상 선사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이 기록은 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겠지만 적어도 당시 무상 선사의 원력과 사상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보리도량 내부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모두 무상 선사의 행적과 신통력을 표현하고 있었다. 선사의 위상이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이 영국사가 문화혁명 때 철저히 파괴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최근에서야 재건에 들어가서 모두 새로 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미신 타파라는 미명하에 모든 건물과 경전, 및 유물들을 닥치는대로 부수고 불살랐다 한다. 현재 무상과 정중종에 대한 자료가 너무도 부족한 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언가를 잃어간다는 것일지니, 더러는 너무도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고야 마는 법이다.(계속)

글 · 사진=오중철 중국통신원
(中 사천성 사천대 고고학과 석사과정)

수행의 걸림돌 상기증 어떻게 하나?
의사 한의사가 말하는 기의학 치료

화제의 신간
병원에서 안되는 병 어떻게 하나?
기의학으로 고친다
이의원 지음
기존의학이 난치병 치료에 한계를 보이는 것은 인체전기작용인 기(氣)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氣)의 원리와 함께 정신질환, 발달장애(자폐증), 면역성질환 등을 치유하는 기의학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책을 읽는 가운데 독자들은 초과학적인 기의 실체와 기치료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큰엄기획

기존 의학이 난치병 치료에 한계를 보이는 것은 인체전기작용인 기(氣)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氣)의 원리와 함께 정신질환, 학습장애, 발달장애, 통증질환, 면역성 질환 등을 치유하는 기의학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책을 읽는 가운데 독자들은 초과학적인 기의 실체와 기치료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지금 나는 변호사로서 방송 일로 늘 바쁜 가운데도 나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이원장의 기의학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
그 곳에서 마주치는 암이나 정신질환 환자들의 혈색과 모습이 나날이 호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확신한다.
인간의 생명과 치유에 대한 기차원의 심오한 통찰이 담긴 이원장의 책에는 병든 인간의 치유 뿐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의 병까지도 치유하는 길이 보인다.
- 강지원(변호사, EBS.R, KTV방송 진행자)

인간은 자연이다.
이 평범한 사실을 잊고 살기에 우리는 병에 시달린다.
날짐승들 다 몸을 피하고 오직 인간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인간만이 앉아서 쓰나미를 뒤집어쓴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다.
이의원 선생은 말한다.
'잃어버린 생명의 기운을 되찾는 것이 병을 다스리는 최상의 의학'이라고,
- 조용헌(조선일보 칼럼니스트) 고수기행 중에서

수행자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 상기증(上氣症)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 상기증(上氣症)의 증상 -
1. 명치와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이룬다.
2. 머리가 아프고 무겁고 옥죄인다.
3. 어깨나 목덜미가 당기거나 아프다.
4. 뜨거운 열기가 머리쪽으로 치밀어 오른다.
5.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증세가 있다.
6.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건조하며 피로하다.
7. 만성피로, 공황장애, 불면증이 생긴다.
8. 이명, 어지럼증, 구토, 메스꺼움이 나타난다.
9. 입이 마르고, 혀나 목안이 잘 헌다.
10. 하기가 되지 않아 허리 무릎에 통증이 온다.
11. 일반 병원, 한방 치료로 별 효과가 없다.

"불교수행과 一氣"
달마대사가 면벽9년에 팔다리가 말랐다는데, 기운이 바로서면 수행을 할수록 기가 더욱 잘 돌아 팔다리가 튼튼해지게 된다.
강의주제
1. 한국불교의 삼신각, 칠성각의 의미와 기능
2. 위빠사나 수행으로 四果성자를 이루는 법
3. 수행자의 상기증의 예방 및 치료
장소
도암한의원 세미나실
(양재역 2번출구 100m 전방)
일시
4월 11일 (토요일) 17시
4월 18일 (토요일) 17시
예약접수 무료 / 02-585-8868 전화문의
홈페이지 http://cafe.daum.net/jinindo

이웃 종교 RELIGION

"故 김 추기경 조문에 감사"

정진석 추기경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정진석 추기경(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3월 13일 종교지도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제13대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3월 13일 종교 지도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정 추기경은 "故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과 장례기간동안 각 종교에서 보내주신 조문과 애도에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를 전했다.

오찬에는 세영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비롯해 김희중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엄신형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이성택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염수정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안병철 신부(서울대교구 사무처장), 허영엽 신부(서울대교구 대변인 · 문화홍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2009 평화포럼

한국종교련 매월개최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남수)은 문화관광부의 후원아래, '종교와 평화'를 주제로, '2009 평화포럼'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연 8회에 걸쳐 진행한다.

평화포럼의 첫 번째 강좌는 3월 26일 '종교간 화해와 국민통합(정상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원)'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포럼은 국내 각 종교의 평화관을 이해하며, 종교간 갈등 해소와 시민사회 통합, 평화세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종교연합은 2월 19일 제5기 신임 상임대표로 박남수 前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박남수 대표는 한국종교연합 창립 당시부터 활동해 왔다. 이나은 기자

폴리패스터의 한계… 추 목사의 몰락

박연차 회장에게 2억 수수 혐의로 체포



MB정부 구성에 큰 역할을 하며 청와대 홍보비서관도 역임한 대표적 폴리 패스터(polipaster; 정치politics와 목사pastor를 합친 신조어) 추부길 목사(사진)가 3월 2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MB선거캠프를 통해 정치계에 뛰어든 추 목사는 2007대선 당시 '대운하추진본부 부본부장'을 지내며 '대운하 전도사'로 불렸다. 이어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추 목사의 정치인생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촛불집회 참가자를 '사탄의 무리'라고 한 발언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아 4개월여 만에 좌절됐다.

이밖에도 추 목사의 경솔한 언행은 이어졌다. 같은 해 10월 14~18일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 환수를 기념하는 한일불교복지협회 산하 '북관대첩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를 만난 후 기독교계 언론인 노컷뉴스에 "북한이 남측 비공식적 창구를 요청했다" "북측에 뇌졸중과 관련된 약품 제공의사를 밝히자 '조속히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에 조불련 측은 조계종과 북관대첩비기념사업회에 '사실무근'이라며 직접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불교계는 문화재 반환 공조로 명맥을 유지하던 남북교류와 불교교류에 찬물을 끼얹은 추 목사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추 목사의 이러한 언행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폴리페서(정치교수), 폴리패스터(정치목사), 폴리테이너(정치연예인) 등 순수성을 상실한 각계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종교인의 정치참여에 대해 개신교 내부에서도 "정치하고 싶으면 본업인 목사직 반납하고 나서야 한다" 등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09년 2월 16일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인 아우어뉴스 창간식에서 "대한민국 앞에 어떠한 이념, 사상도 없다"며 애써 종교인으로서의 정치참여를 정당화하며 재기의사를 밝혔던 추 목사. 당시 "내가 어찌 목회를 떠날 수 있겠는가"라며 목회의지도 굽히지 않은 그의 구속을 볼 때 폴리패스터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된다. 노덕현 기자

"무소유로 돌아가 시설 재단에 맡긴 것"

서응사 총지 스님 부동산 기부



총지 스님(서응사 주지)은 3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15억 상당의 부동산을 전달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비나눔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비구니스님이 시가 15억 상당 토지와 건물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에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안성 서응사 주지 총지 스님은 3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부동산을 전달했다. 스님의 기부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된 이래 단일규모로는 가장 크다.

지관 스님은 전달식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비나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큰 기부는 불교사회복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종단은 사명감을 가지고 정재를 보존하면서 지역과 사회를 위한 복지 불사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직지사 주지 성웅,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호법부장 정만, 문화부장 수경, 사회부장 세영 스님, 김용택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부된 부동산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의 대지 419㎡에 건물 887.64㎡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영유아보육시설 룸비니동산어린이집과 주거시설로 쓰이고 있다. 신도들의 시주금과 스님의 사비를 들여 설립한 자체시설인 어린이집은 2008년 9월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3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총지 스님은 부천 소립사(주지 지혜)의 총무 소임을 겸임하면서 부설 유치원 운영과 결손가정 아동의 양육 등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 왔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 신도들로 조직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거나 후원을 통해 활발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총지 스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의미가 있지만 종단적 차원의 정책과 계획으로 불교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때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복지사업을 통한 포교 효과가 배가된다고 생각해서 기증하게 됐다"며 "포교와 수행의 일환이기에 당연한 일이며 무소유 사상으로 돌아가 시설운영을 재단에 맡기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스님들 중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맡겨서 활용하면 서로 상호협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기부된 재산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기부자측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응사를 운영지원사찰로 지정해 룸비니동산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 외에 2층과 3층은 지역아동센터와 결손가정 아동쉼터 등을 운영해 복지사업의 영역을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남양주희망케어센터 위탁

남양주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맡겨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3월 18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에 '남양주희망케어센터' 사업 운영을 위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해 보건과 복지를 연계해 선진 복지혁신사업을 전개해 온 남양주시는 2007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는 최초로 원스톱(One-Stop) 체제를 구축한 를 운영해왔다. 센터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각종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산발적으로 주어지던 보건과 복지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연계해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특히 희망케어센터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극대화 하는 점에서 전국 72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했으며 새 정부에서는 희망케어센터 복지모델을 대통령 공약사항인 희망복지 129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표준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7년 건립된 센터는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기관을 물색하던 중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를 운영지원사찰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봉사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재단은 혁신적인 복지프로세스와 프로그램들을 실행함으로써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031)590-2114

이나은 기자

사회서비스센터로 장애인복지 '활짝'

강북장애인복지관



3월 24일 열린 강북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 현판식.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진화, 이하 복지관)이 사회서비스센터를 설립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3월 24일부터 강북구 수유 2동(구 수유2동 사무소 3층)에 센터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사업'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진화 스님은 "서비스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번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의 공간 · 지역적 한계를 넘어 수유동지역까지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02) 989-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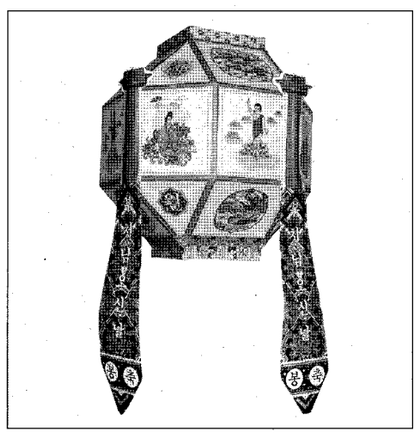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중랑구 마사회, 중랑노인요양원에 후원금

서울 중랑구 마사회는 3월 25일 진각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원장 고정숙)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마사회가 전달한 후원금은 요양원 어르신들의 안전 케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물리치료, 간호장비 구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02) 437-0144

이나은 기자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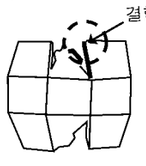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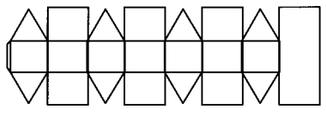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016-552-9360
(043)877-8236 011-9790-4788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 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 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 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임산부 무통분만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귀신씌인 나무의 실체」편 출연"

서울지사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010-5656-39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숙식가능)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장사 현오합장
HTTP://WWW.JIJANGSA24.ORG

"백제 석탑 시작시기 재조명 필요"

신라사학회 춘계학술대회서 한정호 연구원 주장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발견시 드러난 기단부 구조로, 이와 유사한 왕궁리 5층석탑이 백제 석탑인 것이 밝혀졌다. 백제 석탑에 관한 연구는 다시 시작돼야 한다."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1월 14일 사리장엄구가 발견된 후, 세간의 이목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학계는 백제석탑의 시작을 7세기 이후로 추정해 왔다. 미륵사지 사리봉안기에 쓰인 639년은 석탑의 완성이 아닌 기단부가 완성된 시기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백제계 석탑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신라사학회(회장 김창겸)는 3월 21일 국민대 경상관에서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수태 교수(충남대), 이한상 교수(대전대), 김주성 교수(전주교대), 이송란 학예연구사(문화재청)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정호 연구원(동국대 경주캠퍼스박물관)은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과 사리장엄 재검토'를 발표했다.

한 연구원은 "사리기가 봉안된 639년은 기단부가 완성된 시기일 뿐"이라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의 발견으로 백제 석탑의 시작을 7세기로 보던 종래의 시각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연구원은 익산 왕궁리 5층석탑이 백제 목탑을 해체하고 백제 양식에 따라 통일신라 말기에 세워진 것이라는 학계의 '백제계 석탑설'을 뒤집고, 익산 왕궁리 5층석탑은 백제시대 건축된 백제석탑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미륵사지석탑, 왕궁리 5층석탑, 정림사석탑 등을 비교한 한정호 연구원은 석탑 내부구조에 주목했다. 한 연구원은 "1965년 석탑해체 보수 당시 드러난 왕궁리 5층석탑의 기단 내부구조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내부구조의 축소판"이라며 "기단부의 내부구조로 봤을 때, 미륵사지석탑은 물론, 왕궁리 5층석탑도 백제시기에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정호 연구원은 "미륵사지석탑, 정림사석탑, 왕궁리 5층석탑이 조성된 선후는 차치하고 이 시기에 백제에서 석탑이 계속 세워졌던 것은 분명하다"며 "백제의 아비지가 신라로 옮겨가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던 이유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등 불교성보에 대한 연구자의 신앙적 접근을 강조한 지적도 있었다. 종합토론에서 조경철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는 김수태 교수(충남대)의 발표문 '백제 무왕대의 미륵사 석탑 사리봉안'에서 <금광명경> <법화경>에 대한 서술과 무왕이 미륵임을 자처했다는 표현 등을 문제 삼았다. 조 박사는 "불교유물의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적 이해가 바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21일 신라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정호 연구원은 왕궁리5층석탑이 백제시대에 세워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경봉 선사, 한암 · 용성 선사와 교류

보조사상硏 월례발표회서 정도 스님 주장

한국 근현대 불교의 중흥조인 경봉 선사(1892~1982)가 보조국사의 영향을 받고 한암 · 용성 선사와 사상적 교류를 했다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보조사상연구원은 3월 21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한국 근대불교의 자화상'을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정도 스님(동국대 강사 · 사진)은 주제발표 '경봉 선사의 사상적 교류 고찰'에서 경봉 선사의 선사상을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로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보조 국사의 법맥을 이은 한암 · 용성 선사의 인교오심(因敎悟心)과 오후보임(悟後保任)의 가르침이 경봉 선사의 선사상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가르침에 의해 마음을 깨닫는다'는 인교오심은 보조 국사 <절요>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정도 스님은 "송경(誦經)을 해서 경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 간경(看經)을 한다. 간경은 옛 거울에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고경(古鏡)과 같은 것"이라며 "간경으로 자기 마음을 반조하고 깨달아 성불하는 것인 까닭에 '인교오심'은 교문과 선문의 전통"이라 설명했다.

스님은 "경봉 선사가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21일간 화엄산림법회를 개설해 용맹정진하다 깨달음을 얻은 것은 보조의 <절요>가 말한 '인교오심'과 같다"고 강조했다.

깨달은 후의 정진에 대해 정도 스님은 한암 선사(1876~1951)와 경봉 선사가 주고받은 서신에 주목했다. 스님은 "한암 선사는 보조의 <절요>와 <간화결의론>을 공부 점검에 활용할 것을 권했다"며 "경봉 선사는 오후보임에 대해 한암 선사와의 서신을 참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선사는 용성 선사(1864~1940)와도 교류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용성 선사와 경봉 선사는 절차탁마하며 서신을 주고받았다"며 "용선 선사도 보조의 공부방법을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동민 학예연구사(수원박물관)가 '일제강점기 안진호 스님과 시지 편찬'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고려대장경' '돈황사본' 비교

장경硏 국제학술회의

1세기 전 돈황문헌이 발견된 뒤,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연구가 잇따랐다. '돈황학'이 탄생했지만, 한국에서의 돈황문헌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가 3월 20~21일 서울대 규장각에서 '고려대장경을 통한 돈황사본의 재인식'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는 '고려대장경'과 '돈황사본'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돈황문헌 연구를 진일보시키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 최종남 교수(중앙승가대)는 '범(梵) · 장(藏) · 돈황본 <금강경> 대조연구'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돈황에서 발견된 구마라집 번역본 <금강경> 필사본 20점을 산스크리트어 원전, 티베트어 번역본, 고려대장경과 대조했다. 또 중국과 일본의 장경류인 방산석경, 적사대장경, 영락북장, 건륭대장경, 대정신수대장경을 각각 비교 · 고찰했다.

최종남 교수는 "필사본 20점을 검토한 결과, 필사한 서체 유형이 하나의 필사본에서 몇 번씩 다른 유형으로 필사돼 있고, 불교용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등을 알 수 있었다"며 "돈황사본은 신앙과 기원을 위해 사부대중에 의해 필사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금강경> 돈황사본을 고려대장경 재조본과 대조해보니, 각 필사본에서 적게는 5개 많게는 30여 개의 오류와 오기 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돈황사본에는 <금강경>뿐 아니라 불전별, 언어별 필사본들이 다량 현존하고 있다. 많은 관련학자들이 이들 필사본들을 교감 · 연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돈황문헌은 불교관련 240여 종과 그 외 60여 종으로 추산된다. 목판본은 9세기 후반부터 11~13세기 간행된 문헌이 주종을 이룬다. 북경도서관에 1만6000건이 소장된 것을 비롯해 대영박물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 세계 여러 곳의 기관과 개인들에 나뉘어 소장돼 있다. 조동섭 기자

신라의 미소가 온다

경주博 5월 10일까지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들이 신라문화의 중심지 경주에서 선보인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3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통일신라 조각'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백률사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제28호), 경주구황리금제여래좌상(국보 제79호),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국보 제106호) 등 국보 5건, 보물 3건을 포함해 통일신라시대 조각 5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통일신라 조각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제1부 '전환기, 변화의 모색', 통일신라시대 조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2부 '황금기, 완성과 변주', 석굴암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제3부 '석굴암, 신라 예술혼의 절정'으로 구성된다.

국립경주박물관 진정환 학예연구사는 "통일신라는 고구려 · 백제 문화를 아우르고 중국 당나라 문화까지도 폭넓게 받아들여 우리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했다"며 "이번 특별전은 통일신라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조각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보 제28호 백률사금동약사여래입상.

김진성 기자

구리·주석에 납 첨가해 정밀 가공

국립경주문화재硏 망덕사지 청동유물 제작기법 확인

경주 망덕사지(사적 제7호) 퇴장유구(退藏遺構)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불교 공양구와 식기류 등 청동유물의 제작기법이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 이하 연구소)는 3월 19일 1969~1970년 망덕사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청동유물(고려시대 추정)에 대한 성분분석 등을 통해 제작기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 배반동 낭산에 위치한 망덕사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쌍탑식 가람이다.

연구소는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한 비파괴분석방식으로 불상대좌, 청동정병 등 10점의 유물 표면 성분을 분석했으며, 제작 방법에 따른 성분분석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구연부(口緣部, 토기의 입술을 포함한 최상위 부분), 동체부(胴體部, 토기의 어깨와 바닥을 포함한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 저부(低部, 토기의 밑부분)로 나눠 조사했다.

조사결과 발과 대좌만 남아 있는 불상대좌의 경우 철(Fe)이 84%, 구리와 주석은 각각 6.01%, 9.18%로 나타나 철불로 주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밀한 형태의 가공을 요하는 청동정병 등은 구리(Cu)와 주석(Sn)에 납(Pb)을 인위적으로 첨가해 주조성을 높였으며, 일반적인 청동용기들은 구리(Cu)와 주석(Sn)만을 주원료로 했다.



망덕사지에서 발견된 불상대좌(위)와 청동정병 등 청동유물(오른쪽).
사진제공=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소 정민호 전문위원은 "이번 성분분석을 통해 당시 청동유물의 제조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구소는 신라문화권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재정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제작기법 등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국유사>에 따르면 망덕사는 삼국통일 과정 중 신라의 배신을 의심한 당나라 황제를 속이기 위해 신문왕 4년(684년)에 건립된 사찰이다. 현재 사지 내에는 동 · 서목탑지, 당간지주(보물 제69호), 금당지 등이 남아있으며, 특히 목탑지는 사청왕사지 동 · 서목탑지와 함께 신라 목탑 구조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 4월 7일(화요일)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 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일주문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산림대회를 봉행한다. 오전 8시 부산, 울산 차량운행 (055)382-7182



한국자원봉사협 상임대표 취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3월 24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7대 상임대표로 취임했다.



도갑사 개산추모고유제

도갑사 주지 월우 스님은 4월 3일 국사전에서 개산조 도선 국사 추모고유제와 11일 대웅보전 중창낙성식 등을 잇따라 연다. (061)473-5122



양천구청 불심회 즉문즉설 강좌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3월 25일 양천구청 불심회 초청으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즉문즉설-무엇이든 물어라'를 주제로 강연했다.



해동불교임제종 창종 2주년 법회

해동불교임제종 총무원장 지암 스님은 3월 27일 여수 청암사에서 창종 2주년 기념법회 및 노인위안잔치를 봉행했다.



외국인보호소 외국인에 법문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3월 17일 외국인보호소 (소장 석태근)에서 몽골 등 보호외국인 23명에게 한국문화와 불교예절을 가르쳤다.



동국대 불자교수회 김룡사 법회

동국대 불자교수회 이황우 회장(경찰행정학과)은 3월 21일 문경 김룡사에서 3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4월 정기법회는 4월 11일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다.



이재형 원장 '성이야기' 강연

미트라한의원 이재형 원장은 4월 7일 만해교육센터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리더스포럼 '성스러운 성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02)2278-3417

인사

김찬 문화재청 차장 임명



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김찬(행정고시 25회)씨는 3월 25일 문화재청차장(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명됐다. 김 차장은 문광부 문화산업진흥단장·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1993년 정부주요정책추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지금 반성하지 않으면 불교 망한다"

3월 28일부터 75일간 오체투지 순례 시작 수경 스님



"이대론 도태 당한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불교는 망하고 말 것이다."

3월 28일부터 75일간 진행될 '2차 오체투지 순례'를 앞두고 수경 스님은 3월 23일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계 변혁을 강조했다.

"부끄럽다"는 말로 심정을 밝힌 스님은 "40년 중노릇, 체면치레와 직업으로 해 온 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 옛 어른들은 대접받는데 익숙해지면 수행자로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오체투지는 나 자신을 경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지금 한국불교계의 모습도 불법을 따르는 모습인지 의문스럽다"며 "외형적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수행체계가 혼란에 빠져 있고 비불교적인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최근 용산 참사 등 사회현안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종단 어른, 중진 스님들의 시각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중생의 삶에 뛰어들어 무명을 밝히는 불교로서의 본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최근 젊은이들이 사찰을 찾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식의 쇠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했다.

스님은 불교계의 잇따른 정부 지원금 유용 등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승려들의 비리를 숨기려하지 말고, 밖에서 욕을 먹어도 공론화 과정으로 근본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경 스님이 이끄는 오체투지 순례단은 28일 공주 계룡산 중악단인 신원사를 출발해 5월 경 서울일대를 거쳐 임진각 망배단까지, 더 나아가 북한 묘향산까지 길고도 어려운 길을 순례할 계획이다. 북한 측은 육로 통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스님은 직항로를 통해서라도 제3국 땅은 밟지 않겠다는 각오다.

새만금 오체투지시 무릎수술과 시신경 손상 등을 겪었지만 건강을 묻는 기자에게 "머, 안 좋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스님.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한국불교와 우리사회 변화를 발원하는 비장감이 흘렀다. 노덕현 기자

"범세계 불자네트워크 구축"

고대불자교우회 김복주 회장



"불교 수행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전국, 범세계 불자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고려대 학부 출신 불자모임인 고대불자교우회(회장 김복주, 이하 고불회)가 새로운 불교 결사를 다짐했다. 김복주 고대불자교우회 회장(한국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은 3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 20개 대학출신 불자모임 결성을 시작으로 아시아 5개국, 세계 10개국 불자모임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교수행, 친목도모와 더불어 전 세계 불자들이 불교정신을 발휘해 세계평화에 공헌하도로 할 것"이란 비전도 제시했다.

이러한 고불회 발원의 근원은 깊은 신심에서 비롯됐다. 김 회장은 "범세계 불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 세계에 불법을 전하고 싶다"며 "사찰 중심의 불교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국, 동아시아, 전 세계 대학출신 불자들이 결집을 도모해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불회는 고려대 학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2006년 12월 22일 창립해 회원 300여 명이 활발히 활동중이다. 현재 법회·경전위원회를 둬 수행의 체계화를 꾀하고 있으며, 상조위원회를 두고 상호 유대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특히 큰스님들을 모시고 조찬법회를 봉행함은 물론 사찰 순례법회를 매월 실시하며 신심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고불회는 내달 연세대학교 불자회와 연대를 시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밖에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교수불자회, 불교기자협회 등 각 불교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국 불자모임 구성,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불회에는 성낙승 금강대 총장, 강봉구 한국석유공업회장, 이계진 국회의원, 장경작 롯데호텔 대표이사, 이종기 통일개발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 923-0588 이상언 기자

"해외포교 관심 시급"

美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선각 스님



"3억 미국인 중 300만 명이 오계를 수지하고 불교 영향을 받은 인구는 2500만이라지만 사실 한국불교는 왕따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최초 한국사찰 부다나라(구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은 3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한국후원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한 4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해외포교에 뜻을 전하는 법회였다.

이날 '기적은 내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한 법문에서 선각 스님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지로 한계를 넘고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며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불자들에게 세계화의식의 필요성과 포교를 통한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법회 후 선각 스님은 "티베트·일본·대만 불교가 대부분인 미국에서 한국불교를 포교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금 때를 놓치면 미국, 티베트 불교가 미국을 통해 역수입될 위기"라며 "육바라밀, 팔정도, 윤회 등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나날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해외포교에 대한 관심과 불교용어 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스님은 "현재 미국에서 성행하는 백인지식인 중심의 불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접근으로 불교 수용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님은 애틀란타에도 5천여 평 규모로 전법도량 부다나라를 불사중이다. 스님은 "완공 후 어린이·청소년 캠프, 산사음악회 개최 등으로 한국불교를 더욱 널리 알리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상언 기자

바로잡습니다 724호 '배명인 진흥원 이사 진주시민대상 수상' 기사에서 진주시민대상을 진해시민대상으로 정정합니다.

안경환 위원장·강희락 청장 지관 스님 예방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은 3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로부터 축소통지를 받은 상태로 이번 예방은 인권강화 및 향후 대안모색에 불교계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사진 위) 9일 취임한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은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서울 경국사에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는 등 지관 스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강청장 예방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노덕현기자

태고종 대구교구 법운 스님 종무원장 취임



태고종 대구교구는 3월 21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신임 종무원장 법운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법운 스님은 "불교계가 경제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제7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연수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안동일)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3월 21~22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7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연수 및 품수식을 실시했다. 이상언 기자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 헌혈은행 캠페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3월 26일 조선대 앞 '생명나눔의 집 9호'인 아이사랑 안경클리닉(대표 배훈)에서 헌혈은행 캠페인과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등록 홍보를 펼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덕운스님의 봄철 대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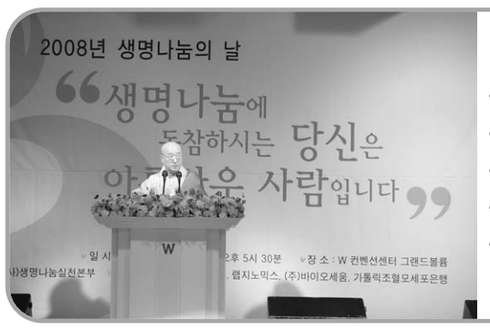
보약짓기 학인 모집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가족의 건강을 내손으로 지키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을 위해 덕운스님의 다년간의 비방인 **'보약짓는 방법'**을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약짓기'**를 배워 내손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신도님의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교육기간 : 2009년 4월 2일, 3일부터 (총 12주)
장 소 : 활인정사 법당
접 수 : 동양의학방송국 (사전접수요망)
교육시간, 내용, 보시금 :
●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보약짓기 / 보시금(월 50,000)
● 금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전통 사암스님의 활인 침법 / 보시금(월 150,000)
● 금요일 : 오후 2시 – 4시 한약 처방학 / 보시금(월 150,000)
강 사 : · 덕 운 스 님(동양의학방송국 대표)
· 박정아교수(세명대학교 외래교수)
문 의 : 02-3487-2311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 법장스님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장기이식결연기관이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의료사회복지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및 결연
• 조혈모세포 기증자 등록
• 헌혈은행 사업
• 환자 치료비 모금 및 지원
• 장기등기증자를 위한 천도재 봉행 등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보시행의 실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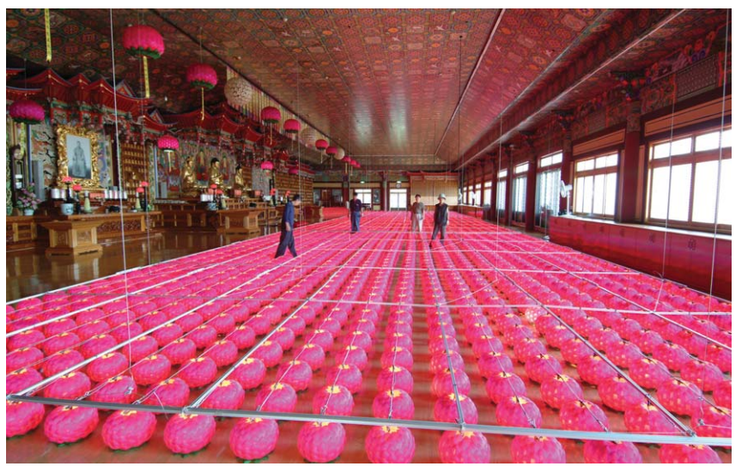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장기이식 등록기관
장기기증 신청 및 문의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FAX) 02-734-8052 www.lisa.or.kr

초파일 앞두고 찾아가 본 연등공장

정성에 기술 더해 연등 밝히다

골조·원단 등 소재 개발이 원가절감 '노하우'

LED 전구등으로 전력 소모 · 화재 위험 낮춰





푸름이 피어나는 4월이 되면 전국 사찰은 연잎마다 정성을 다하는 손길로 가득 찬다. 부처님오신날 기간 동안 거리를 화려하게 물들일 오색연등을 준비하는 모습은 불자들의 연례행사다.

하지만 옹기종기 손마다 붉은 물을 들이던 그 모습은 하나의 추억이 되어가고 있다. 절의 규모가 커지거나 신도수가 늘어 손수 만들던 연등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보다 전문화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업에서 만든 연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3월 20일 찾은 경기도 곤지암에 위치한 찬덕연등(대표 김기찬)에서는 4월 봉축기간을 앞두고 연등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일하는 사람은 10명 남짓하지만, 자체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기계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재단된 원단이 연잎모양으로 탄생되고, 이런 연잎을 숙달된 직원들이 플라스틱 원통에 일일이 붙인다.

연등을 품에 안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공양미를 짓기 위한 농부의 모습이 비친다. 여든 여덟번 손길이 간다고 해서 붙여진 미(米). 비록 농기계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은 늘었지만, 쌀 한 톨을 위해 온 여름 고생한 농부의 정성이 그대로 담긴 것처럼, 불을 밝히는 소켓을 제작하는 과정과 수백 개의 연등을 한꺼번에 매다는 과정까지 등을 공양하는 직원들의 모습은 장엄 그 자체다.

아직까지 연잎을 붙이는 과정은 자동화가 이뤄지지 않아 하루 한 명당 만드는 연등은 60여개. 일반 사찰에서 일일이 철사를 굽혀 틀을 만들고, 연잎을 붙여가며 풀을 붙여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하루 만드는 등이 한명 당 5~6개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양이다.

등 제작공정에서 찬덕연등이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3년 만에 개발한 형압기계(특허)와 철사로 만든 등살의 제작과정을 간단한 사출로 간소화시킨 플라스틱 등통은 핵심이다.

원단 자체를 일반 한지뿐만 아니라, 비 등 기상악화에도 견디고 자외선 등에도 비교적 강한 나일론 등 다양한 소재를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에도 적합하다. 최근 도입된 LED전구 등이 기존 백열전구에 비해 발열과 전력소모가 1/10 수준으로 줄었지만 플라스틱과 특수소재의 원단은 화재 위험까지 크게 낮췄다.

이러한 등이 개발되기 까지는 17년 동안 등 개발에 매진한 김기찬 대표의 열정이 있었다. 현재 찬덕연등은 자체 R&D실을 갖추고 기술을 개발하는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다. 실용실안과 의장특허 등 관련 특허만 30여개에 달한다. 좋은 것이 있으면 금방 따라하는 치열한 연등 업계 경쟁에서 특허는 일종의 보호장치다.

최근에는 노스님과 노보살들이 많은 사찰을 위해 바닥시공과 다양한 높이에서 등을 달 수 있는 전동식 연등자동승강장치(특허)를 개발했다. 이날 공장 탐방에 이어 찾은 남양주 장안정사(주지 지운) 신축불사 현장에서는 승강장치 설치가 한창이었다. 찬덕연등 측은 비구니 스님 절과 스님들이 많지 않은 사찰 등에서 인기가 높다고 귀띔한다.

무명속에 숨은 불성을 드러내는 지혜에 비유돼 중생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어둠을 밝혀준다는 등(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등공양으로 불법을 예경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온 세상에 진리의 법등(法燈)을 밝히는 발원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길 기대한다. (031)-794-4055

글=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ic@hanmail.net

찬덕연등 김기찬 대표

"품격있는 등으로 '중국산'에 경쟁"



김기찬 대표(49 · 사진)는 연등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1992년 손으로 만든 연등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비닐 등'이 전부였던 상황에서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30만 여개의 재고를 남기고 위기를 맞았었다.

김 대표가 타개책으로 모색한 것은 기술개발을 통한 상품다양화와 직접판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었다. 이때부터 팔모등, 육각등, 연꽃등, 유등 등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한 2세대 등, 보관이 용이한 접이식 등과 LED등과 같은 3세대 등이 만들어졌다.

김 대표는 "각 사찰에 맞게 제작해야 하는 등의 특성상 제주도 등 전국각지를 직접 누빈다"며 "많이 달릴 때는 하루 1200Km를 달릴 정도지만 길 가다가도 걸려있는 연등을 보면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열정에 국보급 문화재인 강진 무위사 대웅전을 비롯해 도선사, 화계사 등 찬덕연등의 연등이 달린 곳은 수백 사찰에 달한다. 백제문화축제 등 지역별 연등축제에도 찬덕연등에게 등 설치를 외주할 정도다. 하지만 최근에는 값싼 노동력을 통한 중국업체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김 대표는 "공양의 의미를 되살려 중국산 비닐등을 지양하고, 품격 있는 등으로 불교가 대중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며 국산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해운대불교회관 개원



해운대불교회관이 3월 19일 개원됐다.

영축사 부산포교원 해운대불교회관(포교원장 각문)이 3월 19일 해운대 중동에 개원했다.

각문 스님은 "한 법당이 열리면 한 불국토가 열린다는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이곳 도량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며 다 같이 자비광명을 찾자"고 인사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월탄 스님을 증명법사로 10선 보살계 수계식도 함께 마련됐다.

한편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영축산 영축사 약사여래불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미얀마 불교문화 사진초대전' 및 들꽃 · 꽃꽂이 · 들차축제, 작은 음악회, 모금바자회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051) 747-5108 박지원 기자

부산 불교복지기관 개신교 3배

부불사협 부산불교복지 100년 대계 개선방안 내놔

부산지역 불교사회복지기관이 개신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은 불교 15개, 개신교 10개, 가톨릭 4개, 원불교 1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교계 법인의 산하기관은 약 52개로 개신교 약 17개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부산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회장 정여, 이하 부불사협)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자선활동으로 서로 협동하고, 일반사회에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선활동을 펼칠 것을 가르치고 있다"며 "불교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종교관련 조직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종교와 관련이 없는 조직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현재 불교사회복지 기관에서 활동하는 스님과 이사진, 불자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위상에 비해 활동이 저조하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부불사협은 "불교계에서 토지나 재정이 있음에도 위탁기관에 의존해 사업의 지속성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활용 가능한 재원이나 자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불사협은 부산불교복지의 100년 대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불교사회복지포럼 및 연구 등의 활성화를 통해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협의회를 법인화해 연대행사 및 다양한 사업 전개에 힘을 실어주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양적성장에 따른 질적 성장을 꾀하며 △불자 자원봉사자를 위한 매뉴얼을 갖춰 불교계기관으로서의 차별화 등을 꼽았다.

정여 스님은 "자비 사상을 담은 대 사회사업이 10년 사이 괄목할 성장을 이룩해, 불교 복지법인이 부산복지계 전반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 날까지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진여봉사단 창단

정인자 회장 취임

13년간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해온 부산 진여회가 '진여봉사단'으로 거듭났다.

대한불교 진여원(원장 남보타월) 진여회는 3월 26일 오후 7시 글로리뷔페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인자 신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남보타월 원장의 발원문, 경과보고, 임명장 수여 및 회기 전달, 공로패 전달, 정각 스님의 법어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정인자 신임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참나를 찾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여봉사단은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호국영령위령제를 비롯한 보훈사업, 재소자 교화사업, 노인무료급식사업, 청소년장학사업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14년째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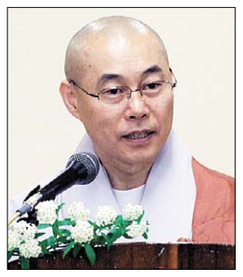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사회복지법인 혜원 이사장 ·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작은 보시 모여 횃불이 될 때까지"

영도구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허, 혜원정사 주지)이 수탁운영한지 꼭 3년째 되던 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느 국악인의 흥겨운 민요가락이 강당에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 할머니들이 하나둘 어깨춤을 추며 걸어 나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춤을 춘다. 이사장 원허 스님은 모두의 잔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환한 미소로 박수쳐 축하해주었다. 흔하디 흔한 개관 몇 주년, 창립 몇 주년 행사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들만의 형식적인 생색내기가 아닌, 진짜 영도구에 사는 어르신들의 기쁜 날이었다.



3월 24일 오후 2시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는 운영 3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관장 선공 스님 및 복지관 임직원,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지역 어르신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3번째 생일을 자축했다.

원허 스님은 부산 포교의 중심 도량 혜원정사 주지이면서 사회복지법인 혜원의 이사장으로, 사회복지의 원력을 세운지 5년.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인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기본으로 지역사회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혜원에서는 영도구노인복지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선재어린이집, 고산장학회 등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각기 다른 사업이지만 근본이념은 모두 같다.

"불교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즉,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보시했다는 생각이 모두 비워진 보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를 도울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내 것'이란 것은 없기에, 남에게 주었지만 정작 나에게서 없어진 것은 없다. 사실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초에 불을 붙여도, 맨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듯, 우리가 그동안 나눠온 작은 마음들이 촛불이 아닌 횃불로 더욱 커져, 이 세상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스님의 작지만 큰 앞으로의 포부이다.

원허 스님이 사회복지법인 혜원 직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최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준비해 삶의 활기와 희망을 마음 가득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희망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다.

'아름다운 노후 위한 희망역' 여기에요

포교란 불자가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스님의 복지관 운영 또한 커다란 포교요, 세상을 향한 진정한 '무주상보시'다. (051)417-6344~6, www.youngdosenior.or.kr

박지원 기자

"불교박람회 부산불교 브랜드로…"

부산불교연합회 제1회 불교산업박람회 성료



3월 26~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불교산업박람회에서 스님들이 다양한 다구들을 둘러보고 있다.

침체된 국가경제살리기 및 불교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산업박람회가 4일간의 일정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3월 26~29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회 불교산업박람회를 성료했다.

전시관은 '홍보 · 안내관' '부처님오신날관' '불교용품 · 선물관' '불사관' '정보관' '체험관' '웰빙관' 등 7가지 테마에 따른 전문관으로 특성화했다.

부대전시 및 행사는 한국경제와 불교기업 발전 기원법회, 불교실업인 교류식, 세계 6개국 유물 특별전, 청소년 불교UCC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마련됐다. 특히, 부산에서는 최초로 6개국 국제 불교유물 전시 및 경매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박람회에는 불자기업 및 불교유관업체와 국내 · 외 불교상품, 불교종단 및 사찰, 신행단체 등이 참가해, 다양한 불교상품과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러한 불교 산업이 보유한 상품과 콘텐츠를 육성해 세계적인 컨벤션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2009년 '신규전시회 개발분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여 스님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무욕의 마음으로 이룩된 불교 작품들을 만나,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연꽃처럼 맑고 청정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향후 불교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불교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부산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산업의 활력소를 만들 것이란 가능성을 열었다.

박지원 기자

지도자포럼 박수관 회장 취임

3월 19일 회장 취임식 및 새 집행부 위촉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박수관 신임회장(오른쪽)과 설동근 초대회장(왼쪽).

부산 정치 · 경제를 이끄는 불자CEO들의 모임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하 지도자포럼) 2대 회장으로 박수관 회장(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취임했다.

지도자포럼은 3월 19일 오후 7시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3월 월례회 및 회장 이 · 취임식을 갖고 신임회장 및 새 집행부를 위촉했다.

설동근 초대회장은 이임사에서 "우리 모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부산재가불자의 구심점이 되도록 소임을 잘 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수관 신임회장은 "초대 회장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단기간에 괄목할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불법으로 보살행을 실현하는 포럼의 근본을 지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 2대 회장단은 앞으로 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대중화의 중심축으로 포럼, 세미나 등 영구모임을 활성화하고, 불법을 바탕으로 한 정신문화 운동의 리더로 앞장서 실천하며, 불교계 화합 등을 목표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박지원 기자

봉축현수막 및 봉축용품 안내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최고급 원단을 사용합니다.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서울지역 시공가능, 설치비 별도)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청사초롱등 (5가지 1세트)

2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가능.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



봉축 장엄 현수막



거치형 현수막



봉축 어깨띠 (사찰명 인쇄 가능)
색상 : 분홍, 군청, 주황, 밤색, 하늘, 연두, 노랑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어르신·어린이 복지 '앞장'

고창군종합복지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 이하 복지관)이 지역 어르신·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나섰다.

복지관은 3월 25일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253명의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사업단의 명예와 책임을 다짐하는 선서 결의에 이어 일자리 사업안내 및 소양교육(노년기사회참여의 의의 및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자세)을 받았다.

무공 스님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여생을 보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앞으로 일자리사업 확대 및 사업육성을 통해 일자리의 양적 증대와 질적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3일 복지관은 고창읍내에서 지역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1회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폭력 없는 학교,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학교폭력 실태를 설명하고 학교폭력근절을 다짐하는 서명운동과 학교폭력예방 안내서 및 홍보물품, 학교폭력 예방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학교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무공 스님은 "학생의 감성과 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초·중·고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평생 잊지 못 할 고통을 갖게 된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캠페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교사단 봉사 나서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자원봉사팀(팀장 장송기)은 3월 21일 영광군장애인종합복지관(회장 편봉식)에서 자원봉사했다.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포교사 10여 명이 참석해 건물내부와 운동기구, 화장실 등을 청소하고 장애우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광주전남지역단은 2개의 자원봉사팀에 22명의 회원이 동참해 운영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석전 정호 대종사 열반 60주년

선운사 석전 스님 생가 복원 · 조사전 기공



고창 선운사는 3월 25일 조사전 기공식을 거행했다.

한국불교 초대교정을 역임한 근대 불교교육의 선구자 석전 정호 대종사 열반 60주년을 맞아 고창 선운사에서 기념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3월 25일, 석전 정호 대종사 60주기 추모재와 조사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문중원로인 군산 관음사 재곤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종회의장 보선 스님,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광복 혜남 성우 스님 등 교계원로스님과 선운사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만 스님은 "석전 스님은 불교진흥·교육, 국가의 독립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늦었지만 문손들이 스님의 업적을 선양·계승하기 위해 스님의 행장·자료를 정리해 자료집을 봉헌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석전 정호 대종사 열반 60주기 행사를 시작으로 3년에 걸쳐 학술세미나 개최, 독립유공자 지정 신청, 저술서적의 출간 및 한글화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백파사상연구소를 설립하고 석전 스님의 생가 복원과 석전기념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같은 날 조사전 건립 기공식도 봉행됐다. 5억원 예산을 들여 정면 3칸, 측면 2칸 17평 규모로 건립될 조사전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영정과 유물, 유품 등을 봉안하기 위한 공간이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 나한전 영자전 기록에 의하면 경희 33년(1694년) 무렵까지 법당 3칸 진영 7위가 열좌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었다"며 "소실된 것을 이번에 복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보고가 맺은 인연 잇기를…

한·중·일 후예 신흥사서 자매결연



3월 22일 열린 '한·중·일 장보고 3국 사찰 자매결연식'.

해상왕 장보고가 활약했던 한·중·일 3국의 후예들이 1200여년 만에 다시 만나 교류를 다짐했다.

장보고의 활동거점이었던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는 3월 22일 '장보고 범종 타종식 및 한·중·일 장보고 3국 사찰 자매결연식'을 봉행하고, 장보고 대사의 정신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과 인적교류의 장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행사에는 1200년 전 장보고 대사가 건립한 중국 산동성 법화원 주지 묘혜 스님과 장보고 대사의 후원으로 중국 유학길에 올랐던 일본 고승 엔닌 스님의 고향사찰 입석사 오구치 신도회장이 참석했다.

장보고 대사와 관련한 삼국 대표 외에도 시몽 스님(장성 백양사 주지)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50여 명과 이해찬 前 국무총리, 김영록 의원(민주당), 김종식 완도군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시몽 스님은 법문에서 "육지에서 가장 큰 제국은 징기스칸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바다에서 가장 큰 제국은 장보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며, "장보고 대사에 대한 역사·문화적 조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장보고 범종은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유훈을 기리고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염원하는 범종"이라며 "특히 신라와 당, 일본과의 문화교류와 동북아 삼국의 평화를 견인했던 대사의 정신을 되살려서, 삼국간의 상호교류와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화원 주지 묘혜 스님은 자매결연의 말에서 "장보고 대사가 맺여 준 인연을 바탕으로 삼국의 문화교류가 더욱 넓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엔닌 스님의 <입당구법순례여행기>에는 음력 8월 15일에는 '삼국의 불교대회'와 같은 행사가 펼쳐져 250여명의 스님과 신도가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1200년전 중국 법화원은 문화교류의 중요한 공간이었다"고 밝혔다.

오구치 신도회장은 입석사 주지 스님의 친서 대독을 통해 "장보고 대사의 도움으로 당나라 유학공부를 마친 엔닌 스님은 일본에서 수행하며 670여 사찰을 창건했다"며 "대사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감사하고 한중일 삼국의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前 국무총리는 "강연차 완도에 왔다가 우연히 참석하게 됐다"며 "동북아 평화가 중요한 지금 삼국의 사찰이 자매결연을 맺고, 평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축하했다.

이날 첫 종소리를 울린 장보고 범종은 높이 18m, 둘레 15m, 무게 4톤 규모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백양사 종무실 김문정 실장

"문화세대 포교 위해 봉사에 눈돌려야"



백암산 백양사는 예로부터 대한팔경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흰 백학봉을 배경삼아 쌍계루에 비치는 붉게 물들린 애기단풍의 그 아름다움은 수많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낸다.

특히 이곳은 조계종 5대 총림 중 하나인 고불총림이다. 벚꽃이 몽우리져 있는 입구의 숲길을 따라 종무소에 들렀다. 그곳에는 백양사의 살림살이와 행사를 도맡아 하는 이가 있었다. 김문정(법명 慈明) 종무실장이다.

김 종무실장은 항상 정장차림으로 지낸다. 시골 일반 사찰 사무원의 모습은 아닌 듯한 그의 복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늘 관공서일과 사찰을 찾은 손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

"부모님을 따라서 유년시절부터 부처님오신날이면 사찰을 찾았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불교학생회에 가입했고, 고등부와 대불련, 청년회 활동을 물 흐르듯이 자연히 하게 됐습니다."

김문정 종무실장의 신행생활을 승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동진출가이다. 어려서 부모님따라 절에 다니는 것은 빼고라도 중학교 때 불교에 귀의해 부처님법 공부를 시작했다. 30년 가까이 불교신행을 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구참이다. 또한 80년대 활발했던 불교학생회를 통해 배출해낸 정규코스(?)를 밟은 불교계가 만든 인재이다.

청년회 후 그는 대기업 홍보실에서 10여 년 간 근무를 했다. IMF때 기업 부도로 일자리를 잃은 김 종무실장은 새로운 일을 모색하던 중 백양사 종무실장으로 불교 포교 일선에 나서게 됐다.

김 종무실장의 이름 또한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니 인연은 인연이다.

그런 그에게 백양사 종무소에 닥친 첫 번째의 소명은 바로 포교였다. 실제로 백양사는 소속신도가 거의 없는 큰사찰이다.

김 종무실장은 "여러 통계자료를 보면 불교신도가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로 되곤 한다. 그러나 사찰에서 직접 느끼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이웃 종교와 비교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도임을 누구든지 안다. 포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문정 종무실장은 "신도들의 체계적 교육과 더불어 신행활동을 병행해야 된다"며 "단순한 신행생활보다는 사회복지나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찰과 종단에서는 봉사와 사회복지에 불교적 마인드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적 마인드가 충분히 가미된 사회봉사와 복지를 뜻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복위주의 기도로는 문화세대라 불리우는 30~40대층을 불교가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사찰의 부족한 살림으로 필요한 종무원을 고용시키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는 혼자 많은 일을 다방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중요한 일들을 놓치기 일수라고 한다. 포교에 남다른 욕심을 갖고 있는 김 종무실장에게 그것은 큰 아픔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큰 즐거움이 있다. 세상 누구보다 큰 부자이신 부처님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남들은 전쟁터라 불리는 도심 속으로 간다지만, 그는 부처님에게 '수행'하러 간다. 김문정 종무실장이 즐거워하는 이유이다.

"처음에 비해 비록 천천히지만 백양사 종무행정이 체계적이고, 전산화 돼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부처님법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화사 경내에 개신교 시설

'…방문처' 측과 법적 분쟁 들어가

전통사찰 경내지에 개신교 집단시설이 들어서 수행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 별양면 대룡리 소재 동화사(주지 진성)는 사찰인근에 '기독교 신념을 같이한 지인들의 방문처(이하 전원주택)'로 칭하는 5개동 30여 가구들과 분쟁중이다.

진성 스님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5개동 건물이 들어서면서도 사찰과 협의도 없이 관청 허가로 건립됐다"며 "이 시설들이 사찰 경내지를 무단 사용하며, 잦은 출입으로 동화사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한탄했다.

현재 동화사측과 전원주택간 분쟁을 확인하기 위해 3월 9일 법원 관계자가 양측의견을 경청했고, 토지와 도로에 대한 경계선 측량 확인이 잇따르고 있다.

분쟁은 2004년,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동화사 위쪽 개운산 기슭에 모 단체가 30여 세대 규모의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촉발됐다.

동화사측은 "전원주택측이 사찰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일부가 사찰 소유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동화사측은 법원에 '토지인도청구'와 '측량감정'을 신청했다. 옛 지적도의 오류로 '측량불가' 판정을 받아 '지적도 정정'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또한 토지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해서는 '건물 및 토지 인도에 대한 소송'도 계류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천팔십명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특별혜택 :

1. 99.9% 순금개금불사비 95만원만 지불하시고 잔액 155만원은 정월, 4월, 7월,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
2. 사암연합회 및 개인 예약방문스님에게 특별한 선물 증정.
3. 법륜대 안에 보일듯 말듯한 부처님의 미소가 뚜렷히 보이면 소원 성취 된다고 알려지는 권선문을 드립니다.

■ 주문수량의 한계로 35분 한정으로 1차분을 마감합니다.

□ 제품명: 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사중살림 성장의 기폭제를 위한 발원으로 태어난 작품이 오는

4월 3일 ~ 4월 5일까지 2009년

한국 불교 박람회(대구 엑스코)에 전시 됩니다.

생각을 깨우는 쇼핑몰
Hyunbul Shop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1994년 10월 현대불교신문 창간
·
·
·
2000년 6월 붓다뉴스 닷 컴 개통
(불교계 최초의 일간 사이버 불교신문)
·
·
·
2009년 4월 생각을 깨우는 쇼핑몰
현불샵 (HYUNBUL SHOP) 이 시작됩니다.

생각을 깨우는 쇼핑몰
Hyunbul Shop

HYUNBUL SHOP(#)은 현대불교신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캄보디아 왕실(정부지원) 압사라(Apsara)무용단 초청공연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도우의 공연 연혁
• 2006년 쓰나미 피해 돕기 스리랑카 국립무용단 공연
• 2007년 부처님의 성지 돕기 위한 네팔국립무용단 공연
• 2008년 중국지진피해돕기 중국불교연합무용단 공연

• 이 공연을 초청 하고자 하는 사찰, 불교연합회, 단체기관 공연이 가능합니다.



압사라 댄스 민속무용
12가지의 무용(공연 총 소요시간_90분)

기간_2009년 4월 15일~7월 15일(90일간)
초청_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도우
(www.108.or.kr)
후원_캄보디아(정부/대사관/문화원)
불교문화상조
'환경 • 생명 • 문화'공동체/도우
휴럼생활건강(KT&G)
담당자_011-581-8851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9

영원한 것은 없음을 알라

[원문]
산당정야좌무언(山堂靜夜坐無言)
적적요요본자연(寂寂寥寥本自然)
하사서풍동림야(何事西風動林野)
일성한안려장천(一聲寒雁唳長天)
허공가량풍가계(虛空可量風可繫)
무능설진불공덕(無能說盡佛功德)
–동학사 길상암

[번역]
고요한 밤 산당에 묵묵히 앉았으니
적요로움 가득 본연의 세계인데
무슨 일로 서풍이 불어 숲을 흔들며
장천에 기러기 끼득끼득 이 무슨 소식인가
허공도 가히 잴 수 있고 바람도 잡아 맬 수 있으나
한량없는 부처님 공덕
은 다 말할 수 없네.

[선해(禪解)]
봄날 산창(山窓)을 열면, 코끝을 적셔주는 깊디깊은 꽃향기에 그만 눈을 질끈 감는다. 봄소식이 나의 잠든 감관의 문을 깨운 것이다.

산사에는 소리가 많다. 풍경소리, 범종소리, 목어소리, 법고소리, 목탁 소리, 경(經)읽는 소리, 염불소리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짐승 우는 소리도 있다. 이 소리들은 저들끼리 살을 맞대어 산사 특유의 적요(寂寥)소리를 이끌어 낸다. 마침내 소리가 소리끼리 뭉쳐 적막한 고요를 풀어놓는 것이다. 여기에 고요소리 하나를 더한다면 바람에 꽃 피는 소리와 꽃 지는 소리이다.

쏴아, 쏴아–

나뭇가지를 흔들고, 구름을 흔들고, 장천을 흔들고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모든 소리의 근원이다. 그 바람이 모든 산사의 풍경들을 흔들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내고 풍경을 빚어낸다. 그래서 산사는 더욱 고요하고 적막하다.

이쯤이면 나는 어느 새 깊은 묵상(默想)에 빠져든다. 자연이 그러하듯 인간의 삶 또한 그와 같이 절묘하다. 이 지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오듯 인간의 삶에도 사계(四季)는 어김없이 돌아온다. 그것이 인생이며 삶임을 느꼈을 때 나는 칠십 인생을 훨쩍 뛰어 넘었다. 그런데 성불의 길은 아직도 아련하게 멀다.

일찍이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 주석하셨던 경봉 큰 스님은 인생을 두고 '허공에 한 점 점을 찍는 것'이라고 했다. 허공에 찍은 점은 흔적이 없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 인간은 이 무상(無常)의 세월을 흘러 보내면서도 끊임없는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양 말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동학사 길상암이다. 동학사는 비구니 승가대학이 있는 곳으로 한국불교의 비구니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초 창건은 신라시대 때 상원 조사가 암자를 짓고 수도하다가 입적한 후, 신라 33대 성덕왕 724년, 상원 조사 제자 회의 화상이 쌍탑을 건립하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문수보살이 강림한 도량이라 하여 절 이름을 청량사라 하였는데 태조 19년 병신 (936년)에 신라가 망하자 신라의 유신이었던 유차달이 이 절에 와서 신라의 시조와 신라의 충신 박제상의 초혼제를 지내기 위해 동계사(東鷄祠)를 짓고 절을 확장한 뒤, 절 이름을 지금의 동학사로 지었다고 한다. 절의 동쪽에 학 모양의 바위가 있으므로 동학사라고 했으며, 고려의 충신이자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조종인 정몽주를 이 절에 제향했으므로 동학사라는 설도 있다.

1814년, 금봉 월인 스님이 길상암을 짓고 절을 중건하여 절 이름을 개칭하되 '진인출어동방(眞人出於東方)'이라 하여 '동(東)'자를 따고 '사판국청학귀소형(寺版局靑鶴歸巢形)'이라 하여 '학(鶴)'자를 따서 동학사라 명명했다는 설도 있다. 그 뒤 만화 스님의 제자인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강의를 열다가 큰 깨달음을 얻어 한국의 선풍을 드날렸지만 한국전쟁으로 절의 건물이 전부 불타 없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많은 스님들의 노력으로 오늘날의 동학사로 중건되었다.

산내암자로는 현재는 관음암 · 길상암 · 문수암 · 미타암 · 귀명암 · 상원암 등이 있는데 옛날에는 동전(東殿)으로 이름하였으나 현재는 길상암으로 불리는 산내암자이다. 1975년 법전 스님이 현재 법당을 신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요한 밤 산당에 묵묵히 앉았으니/ 적요로움 가득 본연의 세계인데'

계룡산 길상암의 주련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 아름답고 매끈한 선시(禪詩)같다. 이 속에는 깊은 불연(佛緣)의 세계가 가득 깃들어 있다. 참으로 절묘하다.

스님들의 하루는 그저 산당에 앉아 경을 읽으나 염불 소리를 꿰는 게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가에 입문한 스님들의 본연(本然)의 자세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시비도 있을 수 없다.

'무슨 일로 서풍은 불어 숲을 흔들고 장천에 기러기 끼득 끼득 이 무슨 소식인가?'

그런데 적막한 산당에 때 아닌 서풍이 숲을 흔들어 놀란 기러기가 끼득 끼득 울고 간다. 이 속에는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인 연기(緣起)법이 숨겨져 있다. 바람이 불어 숲을 흔들어 그 속에 숨어 있던 기러기가 놀라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치. 바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아니겠는가.

'허공도 가히 잴 수 있고 바람도 잡아 맬 수 있으나/ 한량없는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은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한량없이 빛나고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깊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원래,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는 무상하지만 상주불변하는 존재 또한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인간의 육신은 늙고 병들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처님의 위대한 전언은 오늘날까지도 영원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삶의 이치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착하게 살고자 하나 때로는 악해져야 하는 일도 수없이 많다. 이럴수록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 처럼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길상암 주련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부처님 설법 자연 속에서 빛나는 공덕 무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사는 노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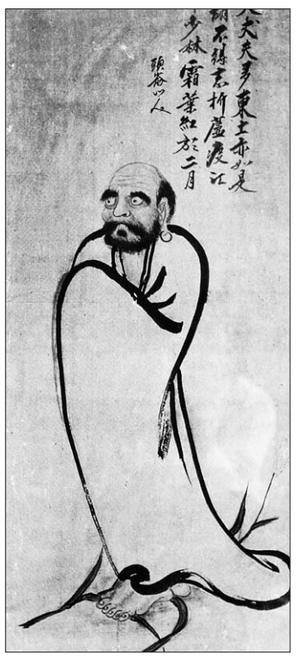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9

선지식을 찾아가 물어라

[원문]
若自己不明了 須參善知識 了却生死根本 若不見性 卽不名善知識 若不如此 縱說得十二部經 亦不免生死輪廻三界受苦 無出期時 昔有善星比丘 誦得十二經部 猶自不免輪廻 緣爲不見性.

만약 자기를 분명히 알지 못하겠으면 선지식을 찾아가 오랜 세월동안 나고 죽은 그 근본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으니 설사 12부 경을 설한다 하더라도 생사(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삼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느라 벗어날 기약이 없으리라. 옛날에 선성이라는 이가 12부 경을 모두 외웠지만 여전히 윤회를 면하지 못하였다 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초의 선사 作 달마도(칠불사 소장).

[해설]
선지식(善知識)이란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선지식을 찾아가야 하겠지요.

본래의 '나'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마음이 머무는 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마음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지, 몸은 참나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육신이 아니고 마음이 진짜 나다'라고 믿는 것이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이라 했습니다. 진짜 나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알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본래 마음자리를 '나'라고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보면 이 우주 역시 마음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당장 문밖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 마음자리에서 본다고 하면, 이 벽도 걸림이 없어요. 마음에서 보면 이 벽 또한 물질이 아닙니다. 육안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경계가 끊어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 '나'라고 했을 때 그 본래 마음자리에서 보면 이 우주가 다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 즉 성품을 보는 것은 선지식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통해 업을 녹이고 맑힐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본래 자리를 알지 못하겠으면 선지식을 찾아가 오랜 세월동안 윤회한 그 근본을 깨달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으니, 설사 12부 경을 설한다 하더라도 생사(나고 죽음이 끊임 없는 미혹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 삼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느라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12부 경은 바로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경을 말합니다.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도 생사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된 그 소식을 알고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경을 보면 아무 것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을 하고 <천수경>과 <금강경>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달마 스님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큰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염불할 때도 염불하는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번뇌의 마음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자리가 본래자리이고 부처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마음에 두고 경을 보고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고 화두를 들었을 때 우리가 성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선성(善性)이라는 이가 12부 경을 모두 외웠지만 여전히 윤회를 면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선성이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행을 하실 때 아들이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얼마나 총명했는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을 모두 외울 정도였습니다. 이 분이 홀로 선정에 들면 사선정(四禪定)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경지까지 갔던 분이 도반을 잘못 만나서 다시 '법도 없고 부처님도 없다'고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12부 경을 모두 외우고 사선정까지 들었지만 성품을 보지 못한 겁니다. 성품을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도 없다는 말을 하게 되고, 부처님도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된 겁니다.

경은 달을 가리킨 손가락입니다. 달을 보는 것은 성품을 보는 것이니, 달마 스님께서 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 하신 참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경이라도 우리의 성품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 먼저 성품을 보는 눈을 떠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봉 수재화고무신코 만 행 화 축
사부대중 선 물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지압·동 깔창
지압동 깔창
쪼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망자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3-1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역학 효타비결 전수생 모집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1달만 공부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을 전수합니다. 진정한 프로가 되고 싶으면 지금 시작하세요.
● 기간 : 1개월 완성
● 문의 : 효타암 051)524-9406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작명,개명,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음.
– 정가 5만원 –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장소 :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남 원망 말고 자기 업 돌이켜 보라”

도영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벚꽃 십리 길을 달려 종남산 송광사 일주문 앞에 섰다. 한 호흡 가다듬고 산문에 들어서자 곱상하게 생긴 두 장승이 반갑게 맞이한다. 장승은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덧없는 알음알이는 버리고 한 마음 돌이켜 자기 존재의 실상을 밝혀라(入此門內 莫存知解)”는 경구를 들고 있다. 세간의 시시비비를 내려놓고 산문에 들라는 가르침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다보면 금강문과 사천왕문을 지나게 된다. 이 세 개의 문을 세워 둔 것은 마음속에서 들끓던 번뇌망상을 하나씩 내려놓으라는 의미인 것이다.

송광사는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하나였던 가지산문을 개창한 신라의 보조국사 체징(普照國師 體澄) 스님이 세웠다고 하니 아득한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그 앞에서 시간을 헤아린다는 것이 무슨 소용 있으랴 싶다.

경내에 들어서면 아(亞)자모양의 종고루와 대웅전, 관음전, 지장전, 나한전, 극락전, 적묵당 등 넓은 대지에 펼쳐진 당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지 한 자락씩 차지하고 있는 당우들의 배치가 군더더기 없이 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지 도영 스님이 당우들을 재배치했다고 한다. ‘근육질로 다져진 금강역사의 힘을 빌어서 당우들을 앞뒤로 옮겼으면’ 하는 농담쯤으로 들으려고 했더니 아니란다. 신기술을 이용하여 진짜로 당우들을 옮겼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이쯤 되면 도영 스님이 금강역사로 비쳐진다.

도영 스님 처소 앞에 홍매와 백매가 쌍을 이루어 불을 밝힌 듯 환하게 피어있다. 한겨울의 추위와 눈보라를 이기고 나온 귀한 꽃이라 오랫동안 눈맞춤했다. 사무치는 향기 속에, 겹겹의 꽃잎 속에는 인고의 시간이 녹아있음을 어찌 모르랴.

“요즈음 다들 어렵다는 소리 밖에 하지 않는데, 나는 보릿고개도 겪었고 어릴 때부터 힘든 것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의 어려움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하고 지족(知足)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은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 어리석지요.”

도영 스님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면서 “석주 스님이 써주신 글인데, 이 방에 오는 사람에게는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한단다.

지족상락 능인자안(知足常樂 能忍自安), 만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고 능히 참으면 편안함을 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자신이 미리 작성해 두잖아요. 경제력도 있어야겠고 뭐 명예도 좀 있어야 하고 참으로 많은 조건이 따라 붙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 행복은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하고 내 조건 안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이 행복하고, 힘들지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음을 행복이라 여기면 하루에도 수없이 감사할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만 벌어져요. 한 번 그렇게 해보세요.”

도영 스님은 2001년 조계종 포교원장 소임을 맡아 처음으로 5년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났기에 또 포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았기에 아직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스님은 이런 소리는 귓등으로 넘겨버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바쁘게 살았던 그때가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짧게 언급할 뿐이다. 5년의 임기 동안 일구어놓은 것을 일일이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신도교육의 체계화와 군포교를 널리 확산시켰다는 것 그리고 템플스테이 사찰주말수련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찰의 문턱을 낮추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스님은 1980년에 김제 금산사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포교 원력을 세운 분으로 말사 주지스님들에게도 ‘포교를 하지 않으려면 주지직을 내놓으라’ 고 했을 정도이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21세기의 대안이라 생각하기에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불교의 연기법, 동체대비사상, 불이(不二)사상을 알게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포교이고 교육인 것이지. 저는 포교를 하면서 그리 큰 욕심을 내지 않아요. 불교로 인해 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자신의 바른 길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군인장병들에게 수계를 해주고 있는데, 수계를 받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불교가 남아있어요. 이것이 인연이 되어 불자가 된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 “포교 안하면 주지자리 내놔야”… ‘초코파이 법문’ 유명
> 탁발 다니는 스님뒤 따라다니던 어린시절부터 ‘출가인연’

저마다 부처 씨앗이 함장 되어 있음을 모르는 이에게 다시 한 번 씨를 묻어주는 것이 포교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스님은 씨앗이 언젠가는 꽃으로 화하게 될 그때가 올지 아니 올지를 말하지 않는다.

도영 스님의 ‘초코파이 법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유명한 법문이기에 일부러 청했다. 1985년 연무대에 처음으로 법문을 하러 간 것이 군포교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군포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 초코파이 법문까지 생겨 난 것이다.

“아직도 군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초코파이인데 보관하기 좋고, 한 개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다고 그래요. 초코파이 큰 것 한 상자가 라면박스 크기인데 그 안에 8박스가 들었으니 팔정도(八正道)를 닦아라. 작은 한 박스 안에는 12개가 들었으니 십이연기(十二緣起)를 관하라. 큰 박스 안에 든 초코파이 개수를 더하면 96개가 되는데 이것을 세 개씩 나누어 먹으면 32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 삼십이관음(三十二觀音)이요, 부처님의 32상입니다. 그리고 96개를 2개씩 나누어 먹으면 48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 법장비구의 사십팔대원(四十八大願)을 이루어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초코파이 한 상자 속에 불교의 기본교리가 다 담겨 있으니 진정 살아있는 법문이 아닌가 싶다. ‘포교는 수행자라면 끝없이 해야 하는 소명’이라 여기는 도영 스님의 간절한 원력을 엿볼 수 있는 법문이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전도여행이었음을 생각할 때 포교는 모든 불자들의 소명이기도 하다. 스님을 마주하고 있으니 “떠나거라. 한 길로 두 사람이 가지마라”고 한 부처님 말씀이 더욱 오롯하게 다가온다.

칠십 평생을 대나무처럼 곧고도 반듯하게 수행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비롯됨이 내심 궁금했다. 유학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남에게 큰 이익을 줄 수는 없다 해도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평생의 지침이 되었다고 한다.

일반불자들이 어떻게 하면 올곧은 신심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여쭈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깊은 마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일생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그것에 접목시켜 살아간다면 날마다 좋은 모습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자기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



도영 스님은 1961년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9년 금산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1980년, 1984년, 1994년 세 번에 걸쳐 금산사 주지역임. 조계종 종회의원 역임. 1999년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조계종 포교원장 역임. 지금은 완주 송광사에 주석.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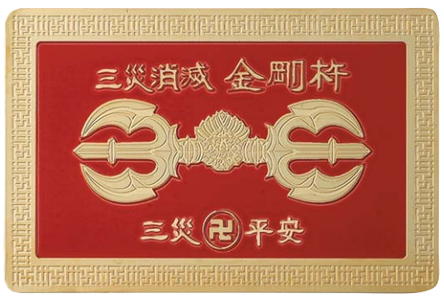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 적 색 글 씨 에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해 당 되 는 분 은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악 삼 재 입 니 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행복은 내 마음 안 있다”



어 있어요. 타인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업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지 외부에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풀리지. 누구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업중생(共業衆生)이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안고 나가야 합니다. 업은 자신만의 업이 아니며 타인의 업이 곧 나의 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지은 업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때문에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해요.”

집즉분명 천지야 방내진찰 무비아(執卽分明 天地也 方乃塵刹 無非我)

하늘과 땅이 분명하다고 집착하지만 놓아버리면 티끌 하나까지도 나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은 방하착(放下着)하라는 겁니다. 놓아버리게 되면 하늘은 그냥 하늘이고 땅은 그냥 땅에 지나지 않으니 일체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사상입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티끌 하나라도 나 아닌 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모두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어요? 남을 원망하고 쓸데없는 곳에 화를 품는 것도 죄업 짓는 것이니 그냥 ‘탁’하고 놓아버려야 해요. 놓아버리면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이 나 아닌 것이 없을 터인데…”

도영 스님은 당신은 전생부터 불교와 지중한 연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단다. 하루는 백양사에서 탁발 나온 스님이 있었는데 어린 눈에 참으로 훌륭해 보이더란다.

“스님이 오십호 정도 되는 마을을 집집마다 들러서 탁발을 하시는데 그때 목탁소리며 염불소리가 하두 좋아 끝까지 따라다녔지. 그때 어린 마음에 나도 커면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했어.”

도영 스님은 목탁소리, 염불소리가 낯설지 않고 편하게 다가온 것은 다 전생에 불연이 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면서 환한 웃음을 짓는다. 금산사로 출가한 도영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무섭기로 소문난 금오 스님으로부터 야단맞은 일은 없는지 물었더니 머리 깎은 지 2년 남짓 지났을 때의 일을 들려주었다.

“불교 정화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통합종단이 등장한 직후인데, 대선사인 금오 스님은 참선 중심의 수행도량으로 불교가 재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분이었어. 정화를 하긴 했는데 스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금산사 대중 스님 서른 명을 비롯하여 여타 지역의 스님들을 이끌고 서울 조계사로 올라가는 길이었지. 그때 나는 누군가 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슬며시 뒤로 빠져나와 금산사로 돌아왔지. 그런데 금오 스님께서 내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노발대발하시면서 이십 리 길을 도로 내쳐 오신거야. ‘도영이 이놈 잡히면 때려죽인다’며 엄포까지 놓았으니 모두 가슴을 졸였지. 금오 스님의 벼락같은 소리에 겁에 질려 있는데 어디선가 대중 스님 한 분이 달려와서 장삼을 건네면서 ‘장삼 가지러 갔다고 말하고 참회해’라고 일러주시는 거야. 금오 스님을 모시면서 수행자로서 살아가야 할 많은 것을 배웠지.”

도영 스님이 이곳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아왔을 때만 해도 쇠락한 고찰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십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송광사는 전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만큼 그 세가 커졌고 활기 넘친다. 이곳 사람들은 ‘전주의 정서와 문화를 바꾸어놓았다’고 말한다. 사찰이 단순히 예배하는 공간이나 박재된 문화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스님은 소임을 맡자마자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대웅전과 마주하는 곳에 세심정(洗心亭)을 세우는 등 공원처럼 가꾸어서 누구나 오고 싶은 아름다운 사찰로 바꾸어놓았다.

작년에는 사찰 바로 옆에 오천 평이나 되는 백련지(白蓮池)를 조성했는데, 이 또한 사찰을 지역의 문화공간과 마음의 쉼터로 만들기 위함이다. 도영 스님은 “부처님의 진리는 변함없지만 그 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졌기에 어느 곳에서 어떤 소임을 맡더라도 불교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또한 어느 세기보다 물질의 풍요를 한껏 누리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한데서 파생되어 나오는 병폐가 심각함을 스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보살의 눈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는 스님의 통찰력에 감탄할 뿐이다. 오로지 전법에만 열을 쏟았다는 보조국사 체징 스님의 후신이 아닌지 모르겠다.

스님의 따스한 눈빛과 햇빛 그리고 빗님과 바람이 도와 송광사 일대는 몇 달 후면 하얀 연꽃 향기로 가득 하겠지. 바람 한 줄기가 그 연꽃 향기를 데려다 주리라.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7. 벌교포교당 주지 발룡스님

송광사 발룡 스님은 큰법당 부전으로 30년을 넘게 지낸 스님이다. 코가 찌그러지고 귀가 짝 귀로 생겨 마을에서는 ‘짝귀’로 별명이 붙었는데, 절에 와서는 ‘복귀’로 불려지게 되었다. 나면서부터 집안이 어려워, “네가 복이 없어 그런가 보다. 절에 가서 좋은 일하여 복이나 지어라”하고 송광사 스님들께 부탁드렸다.

절에 와서는 물 긷고, 나무 들이고, 불 때는 일을 주로 하다가 차 끓이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관음전에서 성공 스님이 불공을 드리면 그 옆에서 차를 달이면서 <천수경> <반야심경>으로부터 유치, 청사, 축원까지 들은 데로 다 외웠기 때문에, 그 귀가 아주 복된 귀라 하여 ‘복귀’라 부르게 되었다.

성공 스님이 어디를 나가실 때는 소리와 발음이 거의 같으므로 발룡 스님께 부탁하여 기도를 드리게 하고 축원까지 하자 10년 후에는 대중스님들이 의논하여 스님을 큰법당 부전을 하게 되었다.

신도들이 오면, “나는 글을 잘 쓸 줄 몰라 축원방을 쓰지 못하니 식구대로 그 명단을 불러주시면 빼지 않고 축원하겠습니다”하고 열 명, 스무 명 되는 가족들 명단을 귀를 세우고 듣고 있다가 불공 드리고 축원할 때는 생일 생시까지도 모조리 외워 축원했다. 때문에 “송광사에 새 도인이 났다”고 하여 불공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발룡 스님만 찾았다.

그 때는 세상이 어려운 때라 양발 한 켤레, 수건 하나 얻어 쓰기가 힘들었는데, 불공을 잘 하다 보니 순천, 벌교, 광주 신도들이 수건, 양발, 버선 같은 것을 많이 사와 모든 대중이 거의 발룡 스님에게서 타서 쓸 정도였다. 또 남은 것을 가지고 마을에 내려가 골고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므로 출가 20년에 그 이름이 ‘복덩이’로 바뀌었다.

내가 그 스님 나이 30살에 만나 불전의식을 그분에게 배웠는데,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정구업진언이 정구업진언이지 무엇이야. 잔소리 하지 말고 정구업진언을 계속해서 읽다보면 나처럼 말은 못해도 속이 훤히 터질 때가 있으니 무조건 외워. 무조건 외우면 복이 오네.”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아 무조건 외우고 열심히 읽었다. 그런데 스님 나이 서른세 살이 되었을 때 군대에 가게 되었다.

“나는 가고 싶지 않는데,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절 일도 바쁘지만 나라 일이 더 급하니 딱 석 달만 가서 근무하고 오겠습니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법당일을 내가 맡게 되고, 3개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오는 날 털레털레 들어왔다.

“아니, 발룡 스님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십니까?”

“나라 덕분에 제주도 구경하고, 훈련도 실컷 했네. 비오는 날은 바깥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막사에 앉아 총 소재를 하라 하여 청소한 뒤 잘 되었는가 시험하기 위해 발을 뻣고 발가락에 대고 총을 쏘았는데, 아 아니, 그 속에 총알이 들어 있었던지 발가락 하나가 날아가 버렸지 뭐야. 대대장이 오더니, ‘너 같은 놈 데리고 있다가는 사람 죽이겠다’하고 의무대에 가서 치료하라더니, 그만 병가제대를 해줘서 왔어. 우리 부처님 영험하시지. 내 말씀은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니까”하고 오체투지를 했다. 그 뒤로 스님은 얼마 있다가 다시 큰법당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당시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상좌들을 결혼시켜 그 며느리로 하여금 빨래주인이 되게 하기도 하고 농막 일을 맡겨 농사를 짓게 하기도 하였다. 스님께서는 30이 넘도록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속가 삼촌 되는 스님이 결혼할 것을 종용하였다.

“저 같은 사람에게 누가 시집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부처님은 무불통지(無不通知)라. 부처님께 부탁드리면 좋은 사람이 생길 것이야.”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하루는 벌교에서 어떤 보살님이 불공을 왔다.

“무슨 불공입니까?”

“길례(吉禮) 불공입니다.”

“가족 명단을 불러 보십시오.”

“우린 두 사람 뿐이기 때문에 외동 딸 하나를 시집 잘 보내 사

한번 들으면 들은대로 다외워 ‘복귀’ ‘송광사의 새 도인’ 명성

위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공 잘 드릴테니 열심히 발원하십시오.”

하고 불공을 다 마친 뒤 부처님을 보고 말씀하였다.

“이 사람의 딸은 바로 저희 것입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튿 날 집에 가서 꿈을 꾸니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송광사 발룡 스님과 결혼해서 살면 잘 살 것이다.”

그래서 바로 택시를 타고 송광사 금당 주지스님께 와서 물으니, “어제 불공 드린 사람이 발룡 스님입니다”하여, 주지스님이 주례를 서서 결혼시켜 벌교포교당 주지가 되었다. 벌교포교당은 6·25한국전쟁 때 반란군들이 사무실로 써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새롭게 단장하여 낮에는 절 일을 보고 밤에는 집에 와서 일을 하게 하여 벌교에서는 제일 큰 이불가게를 운영하며 부자로 잘 살았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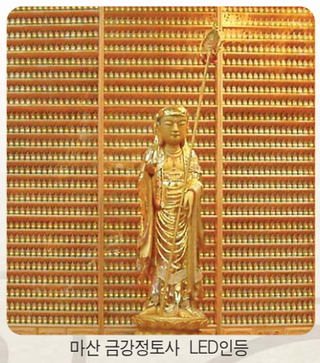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9>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⑤

걸림없는 변재로 인연따라 교화해야

行者如是觀時 雖知一切諸法畢竟空寂 能於空中修種種行 如空中種樹 亦能分別衆生諸根 性欲無量故 則說法無量 若能成就無礙辯才 則能利益六道衆生 是名方便隨緣止 乃是從空入假觀 亦名平等觀 亦名法眼 亦名道種智 住此觀中 智慧力多故 雖見佛性而不明了 菩薩雖復成就此二種觀 是名方便觀門 非正觀也

수행자가 진제 공(空)에서 속제 가(假)로 나오는 관법인 종공입가관(從空入假觀)을 성취했을 때 안으로는 몸과 마음이, 밖으로는 세계와 유정과 무정이 필경 공적하다. 그러나 이 공적한 가운데서 갖가지 허깨비와 같은 수행문을 닦아 도량을 건립하고 불사를 일으키는 것이 마치 물에서 노니는 물고기의 흔적과 같고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와 같아 한번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흔적에 집착하지 말아야만 한다.

이는 허깨비와 같은 약으로 허깨비와 같은 병을 다스리며 허깨비와 같은 경전을 강의하고 허깨비와 같은 설법을 하여 한량없는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를 받는 대상도 허깨비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많은 경전에서는 "가령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청정한 깨달음의 마음으로서 심성과 육근과 육진이 모두 허깨비의 변화라는 것을 알고 모든 허깨비 법문을 일으켜 허깨비를 제거하여 허깨비를 변화시켜서 허깨비와 같은 중생을 제도한다면 허깨비와 같은 법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내적으로는 대비심이 일어나 일체보살이 이로부터 수행을 일으켜 점진적으로 수행이 증가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진제 공을 따라서 속제 가로 나와 허깨비와 같은 법문을 닦는 종공입가관이 된다.

보살이 도종지(道種智)가 발현한 뒤에는 바로 걸림 없는 변재를 일으키게 된다. 걸림 없는 변재는 네 종류가 있는데, 이를 사무애지(四無碍智)라고 한다.

첫 번째로는 의무애변(義無碍辯)인데, 이는 일체 의리를 명료하게 통달하여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법무애변(法無碍辯)인데, 이는 일체 법상의 명자를 통달하여 걸림 없이 분별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무애변(辭無碍辯)인데, 이는 모든 법의 명자와 의리로 일체 중생을 수습하여 지역 따라 다른 방언으로서 연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의 언어로 이해하여 변설이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낙설무애변(樂說無碍辯)인데, 이는 일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들이 즐겨듣는 법문으로 설법을 하여 설법이 원융하고 걸림이 없어 하루 종일 설법을 한다 해도 피로한 마음이나 권태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변재가 있어야만 육도세계의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면서 허깨비와 같은 걸림 없는 변재로 인연 따라서 방편으로 교화하는 것에 대해 명료하게 통달하게 된다. 이를 두고 방편수연지(方便隨緣止)라고 한다.

비록 방편의 인연으로 갖가지 일을 일으키나 얻을 만할 실제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한다해도 망념을 그치지 않는 상태에서 저절로 그치게 된다. 그 예로 '종경록'을 저술한 영명 연수선사는 매일같이 백여덟 가지 일을 정해놓고 그 중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였는데, 만일 일반인이라면 백여덟 가지 일을 실천하느라고 허겁지겁하면서 매우 괴로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사는 그 많은 일을 매일 실천에 옮기면서 전혀 일이 없는 듯이 해냈다. 이것은 대사의 마음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쁜 가운데서 바쁜 마음이 없었으며, 괴로운 일 가운데서도 괴로움이 없었던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허깨비와 같지 않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방편수연지의 공로이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이 방편수연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수행이라는 점이다.

그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땐 밥을 먹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고, 차를 마실 땐 차를 마시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며, 침을 뱉고 팔을 흔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전송할 때 등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이 됐든 돌이켜 관찰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자연히 망념으로 흐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 마음이 없고 마음에는 두 가지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옛 큰스님은 "인연 따라 본성을 깨달으면 그곳에는 거짓도 없고 진실도 없다"라고 말했으며 "걸어가도 선이고 앉아도 선이다"라고 했으며 또 "걸어도 아미타염불이고 앉아도 아미타염불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모두는 방편수연지의 작용에 해당된다.

인연따라 본성깨달으면 거짓도 진실도 없어
세상살이 하는 재가인은 방편수연지가 적합

가령 염불결사를 한 재가거사들은 세상살이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방편수연지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세상살이를 할 때 모든 처소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제 공으로부터 속제 가로 들어가는 관법이며 이를 평등관이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열반의 공에서 생사의 가로 들어가므로 공을 관하여도 원래 공일 뿐 만 아니라 공이면서도 공이 아니어서 공과 가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등관(平等觀)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공에 치우치지도 않고 유에 치우치지도 않아 공의 처소가 원래 유이고 유의 처소가 원래 공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두고 공과 유가 두 모습이 아니며 진제와 속제가 평등하다고 한다. 이 평등관을 법안(法眼) 또는 도종지라고도 한다.

법안으로는 속제만을 관찰하는데, 도종지는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면서 일체의 도로서 중생의 선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도'는 도를 닦는다는 뜻이고 '종'은 종자의 의미인데, 이것이 도를 수행하는 종자이다.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하면서 각자 종자의 차이가 난다. 보살은 십법계의 차별적인 도의 종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환하게 알고 있다. 따라서 도종지라고 부른다. 이를 요약해서 말하면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거기에 알맞은 가르침을 베풀어 병에 따라 약을 투여한다는 의미이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면 반드시 도종지가 있어야 만이 법안이 원명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생을 제도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하지만 도종지는 쉽사리 깨닫지 못한다. 지금 말법시대에서 법을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 한다면 늙을 때까지 염불을 진실하게 하여 한 구절 아미타명호를 부를 경우 그 자리에서 아상 인생 중생상 수자상 등 사상이 없어져 안으로는 신심과 밖으로는 세계에 대한 집착을 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 공부이다. 또 소리소리 부처님명호를 부를 때마다 부처님 상호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것은 '관' 수행이다.

염불을 부르는 자와 부르는 대상인 부처님 등 이 둘을 쌍으로 잃는 경지에 이르러 자타가 둘이 아닐 땐 이 경지에서 마음을 되돌려 허깨비와 같은 염불공부로 허깨비와 같은 중생을 교화하게 된다. 집착이든 병이든 논할 것 없이 단지 '아미타'라는 약으로서 중생을 다스려 중생들이 각자 허깨비와 같은 그림자모습을 소멸하고 임종시에 허깨비와 같은 극락에 왕생하게 해야만 한다. 이와 같다면 그 이익이 절묘한데 그 경지를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2) 가행위(加行位)3-사종여실지(四種如實智)
③ 인위(忍位)

앞에서 인식대상경이 공적함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바로 뒤따라서 주관분별심마저도 공적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인순정(印順定)'이라고 합니다. 이 인순선정으로 하품여실지(下品如實智)를 일으켜 공적한 인식대상경에서 그 이치를 인지(印持)하고 공적한 주관분별심 가운데서도 역시 순차적으로 즐겁게 옳다고 인식[忍可]합니다. 인(忍)은 옳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식대상경은 공적했다 할지라도 인식분별마저 쉽사리 공적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식주관마저도 공적한 가운데에서 순차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를 의지해서 '인위'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미 허망한 인식대상경계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허망한 인식주관이 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인식주관과 대상경계는 반드시 상대적인 의존관계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동시에 공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난위와 정위에서 인식대상경이 공적함을 인지(印持)하고 인위와 세제일위(世第一位)를 따라서 주관분별심마저 공적해지므로 이를 총체적으로 인순정이라고 합니다.

④ 세제일위(世第一位)

다음으로 무간정(無間定)을 얻어 상품여실지(上品如實智)를 일으키고 인식주관과 객관대상, 즉 이취(二取=能取所取)가 모두 공적한 이치임을 인지(印持)합니다. 이를 의지해서 세제일법(世第一法)이 건립됩니다.

인위에선 주관인식이 공적함만을 인지했으나 세계일법에선 주관과 객관이 쌍으로 공적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무간정부터는 반드시 견도위(見道位)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무간정(無間定), 즉 견도위와 간격단락이 없는 선정이라 합니다. 이 선정은 생멸하는 세간법 가운데서는 특수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세간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세제일법(世第一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행위에선 단지 우리의 심식 속에서 진여의 모습을 흡사한 모습으로 변현시켜 그것을 진여의 이치로 관찰할 뿐입니다. 이는 변상공(變相空), 즉 진여는 차별상의 모습이 아닌데도 그것을 진여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여의 이치를 흡사한 모습으로나마 관찰하기 때문에 이 경지의 수행인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행지의 보살을 삼현(三賢), 또는 대승초기 보살이라고 하며, 이들이 깨달은 경지를 '기신론'에선 상사각(相似覺)이라고 합니다. 이는 진여의 모습을 흡사하게 비량관(非量觀)으로 깨달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39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주 수련 만으로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前)서울 불교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現 한국 기치유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윤한흥 교수님 직접 지도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11주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 수련일자 : 4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9:20(11주과정)
4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전국 기힐링 센터
교대센터 / 부산센터 / 고양센터
분당센터 / 대구센터 / 노원센터
대표전화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命理學 수강생 모집
석충원(명양 명리학당)에서는 사주명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주간반 · 야간반 · 주말반
■ 입 문 반
3개월과정 매주 월 · 목요일,주말(주1회. 4시간)
수강료 월 10만원
■ 연 구 반
6개월과정 매주 화 · 금요일,주말(주1회. 4시간)
수강료 월 10만원
■ 실 전 반
3개월과정 매주 수요일 주말(주1회. 4시간)
수강료 월 20만원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
■ 연락처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05-43
☎ 032)330-4684,503-4684
石充院(명리학당) 明陽 이태영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 정 자운 청봉 대종사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자기 본정신으로 살고 본정신 회복하는 것이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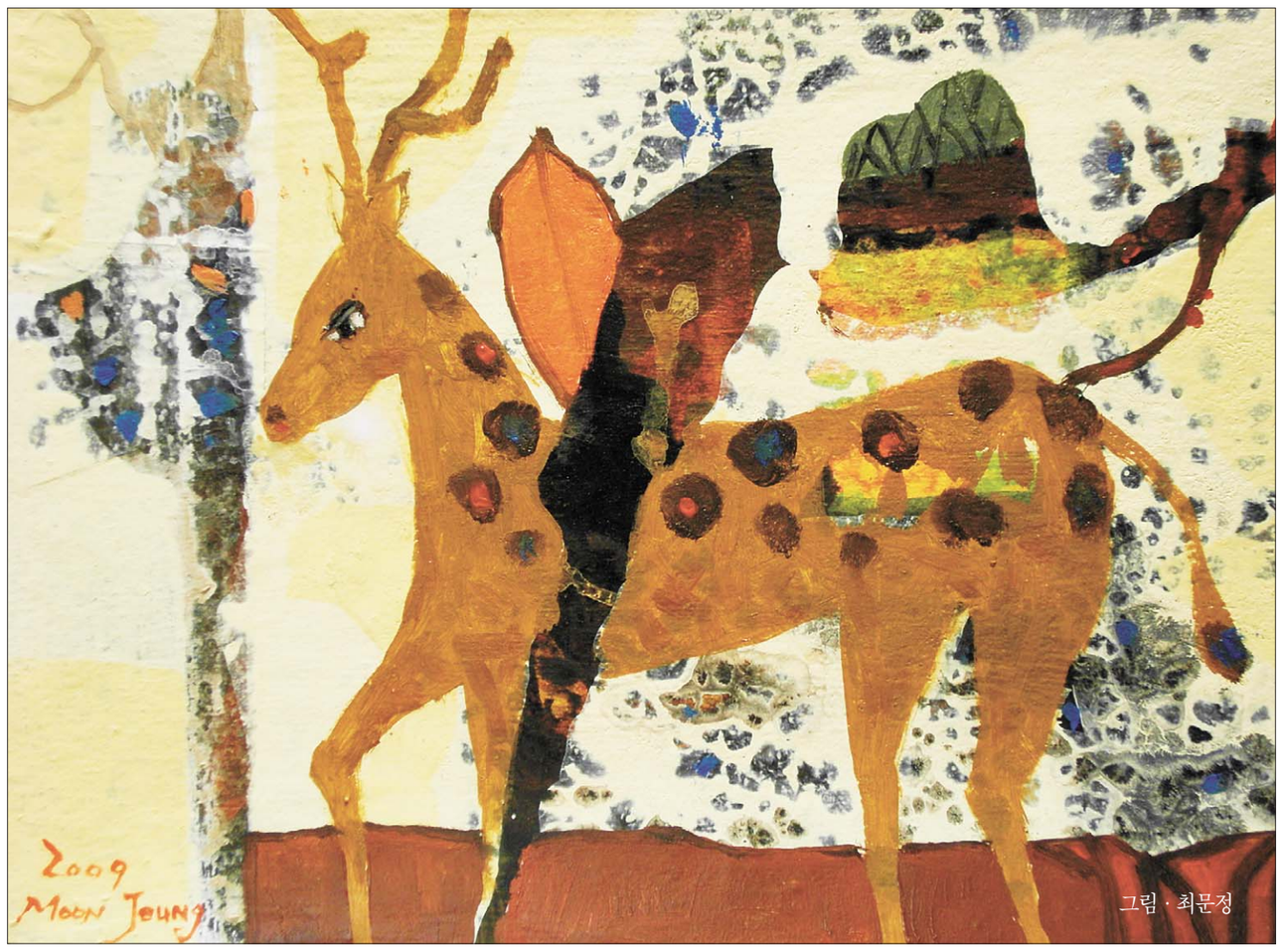


그림 · 최문정

원당암 어둠에 잠겨도 혜암 스님 염화실 늘 환해
“수행도 하나 하나 다져야 삿된 것이 덤비지 못해”

원각 스님이 그를 염화실로 부른 까닭은 단순히 차나 한 잔 마시자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대연 거사를 오라고 한 것은 혜암 스님의 유품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공개하지 않은 유품은 염화실 다락방에 보관돼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 스님께 장좌불와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사님에게 오늘은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장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룻밤 보내고 나니 원당암이 고향집 같은 느낌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있어 그런 거지요. 다락방에 보관된 노장님의 유품을 보신다면 신심이 더 날 겁니다. 다락방 유품들은 스님의 체취를 더 느낄 수 있는 손때 묻은 것들입니다.”

미소굴에 전시된 유품들이 스님의 가풍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면, 염화실 다락방에 보관된 유품들은 스님의 일상적인 체취가 남아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였다. 원각 스님이 스위치를 누르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비밀통로 같은 계단이 환해졌다. 염화실 다락방은 혜암 스님이 살아생전에 잠깐씩 이용하던 공간으로 지금까지도 그때의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시자만 들어올 수 있는 신비로운 다락방이었다.

“노장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모습대로지요. 가사 장삼도 보자기에 싸진 채 그대로 있지요. 보자기를 풀어서 남길 것은 남기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줄 생각이에요.”

원각 스님이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은밀한 공간으로 보였다. 원각 스님은 가구 서랍까지 열어 보여주었다. 서랍 속에는 혜암 스님이 사용하던 모지랑붓과 낙관, 도장 등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다. 그리고 책장에는 조사어록과 대장경 등이 꽂혀 있고, 하단의 유리장 안에는 스님의 가사장삼을 싼 보자기가 들어 있었다. 다락방 한쪽에는 조그만 금고도 보였다. 혜암 스님은 법문 사례비를 받아와 꼬박꼬박 넣기만 했고, 그 당시 원주였던 각안 스님은 불사 빚 갚느라고 열기만 했다는 바로 그 금고였다.

소파처럼 긴 의자도 하나 있었다.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의자였다. 그러나 장좌불와를 하는 혜암 스님은 결코 의자에 누운 적이 없었다. 대중들이 잠자는 밤중에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와 의자에 앉아서 조사어록 등을 보았다고 한다. 원당암 모든 방사에 불이 꺼진 한 밤중에도 염화실 다락방은 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던 것이다.

다락방의 계단을 내려온 대연 거사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원각 스님이 계단의 스위치를 누르자 그곳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고, 자신은 밝은 공간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다. 혜암 스님이 살았던 과거 시간으로 갔다가 갑자기 튕겨져 나온 느낌이었다.

염화실 큰방으로 돌아와 차를 몇 잔 마시고 나서야 그런 느낌이 사라졌다. 대연 거사는 문득 원각 스님이 어떤 사연으로 혜암 스님을 만났는지 궁금했다. 어떻게 혜암 스님의 제자가 됐고, 왜 은사가 머물었던 방에 지금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스님께서는 큰스님과 어떻게 인연을 지었는지요.”

“고3 때였어요. 몸이 안 좋아 약수암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인연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몸을 쉬고 추스르려 왔다가 살 길을 찾은 것이지요. 진짜 공부는 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니까요.”

원각 스님은 자신의 지난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불문에 들어 비로소 살 길을 찾았다고 느린 말투로 회고했다. 특히 혜암 스님을 처음 만났던 해인사 산내암자였던 중봉암을 잊지 못했다. 중봉암 밤하늘에서 뚝뚝 떨질 것 같았던 별들을 떠올렸다. ‘아! 굉장한 별빛이었지요’ 하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얘기를 했다.

그 무렵 해인사 약수암에는 세 명의 학생이 살았는데, 중봉암에 살던 혜암 스님의 상좌 도림 스님이 가끔씩 약수암으로 내려와 이런 저런 얘기를 들려주곤 했다고 한다. 하루는 서울대 법대 4학년이었던 합천군 국회의원 아들 변을수 대학생이 고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기 위해 좀 더 조용한 중봉암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원각은 변을수 대학생의 짐을 날라주기 위해 그곳까지 갔다고 한다. 그것이 원각에게는 출가의 씨앗이 됐다.

저녁을 먹은 뒤, 원각은 그날 밤 함께 짐을 날랐던 동아대 불자학생과 도림 스님에게 불교이야기를 들었다. 원각은 도림 스님의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동아대 불자학생이 잠든 뒤에도 원각은 도림 스님과 새벽 세시까지 얘기를 주고받았다. 도림 스님의 불교 얘기가 원각의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았던 것이다.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할 때였지요. 강재구 소령이 수류탄투척훈련 중 사병이 잘못 던진 수류탄을 안고 많은 병사들을 살린 적이 있는데, 그 미담이 당시 신문이나 방송 등에 많이 났어요. 선생님들도 강재구 소령처럼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어디를 가나 강재구 소령 얘기를 했지요.”

사회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집단최면적인 강요는 마음이 여린 원각을 괴롭혔다. 결국 그런 강박관념은 원각의 심신을 허약하게 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고 스스로 고민케도 했다. 지나칠 정도로 과민해졌고 대학입시 공부 자체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런데 그때 도림 스님은 원각의 고민을 다 듣고 나더니 학교나 사회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했다. ‘착한 것도 버리고 악한 것도 버려야지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善)도 악(惡)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본래자리라는 것이었다.

원각은 ‘아!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고 희열을 느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부질없는 집착이었음을 알고는 원각의 고민은 단박에 깨졌다. 그런 강박관념을 쉬는 순간 자신을 괴롭히던 체증이 쑥 내려갔다.

도림 스님이 보기에 원각의 얼굴은 중봉암을 올라올 때와 달랐다.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 있었다. 도림 스님은 중봉암을 내려가는 원각에게 소천 스님의 <금강경강의> <반야심경강의>, 한길로 법사의 <육조단경> <보조법어>와 <법구경> 등 다섯 권을 주었다.

원각은 약수암으로 내려와 대학입시 공부를 접고 가을 내내 도림 스님이 준 다섯 권의 책만 읽으며 불법의 진리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약수암에 들렀던 도림 스님이 출가를 권유했다.

“겨울에 도림 스님을 따라 중봉암으로 올라가니까 바로 삭발해주고 승복을 주었지요. 고무신도 한 켤레 주었고요. 그날부터 도림 스님 밑에서 두 달 반 행자생활을 했지요.”

그때가 1966년 겨울이었다. 도림 스님과 겨울을 나고 있는데, 40대 후반의 혜암 스님이 통도사 극락암에서 동안거를 나고 중봉암으로 왔다. 1967년 2월 15일(음력)이 지난 며칠 후의 일이었다. 그런데 혜암 스님이 오고 나서 무슨 꾸지람을 들었던지 도림 스님은 전강 스님 상좌로 옮겨 가 법명도 봉철 스님으로 바꿔버렸다. 도림 스님은 혜암 스님에게 원각을 소개해주고는 중봉암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중봉암은 두 칸의 암자였지요. 큰방은 인법당이었고, 골방이 딸린 부엌이 있었지요. 종은 마루 서까래 밑에 달려 종성을 할 때는 마루로 나와 쳤어요.”

혜암 스님은 중봉암으로 온 이후 해인총림 선원의 유나 소임을 맡았다. 원각은 중봉암에서 혜암 스님과 한방을 사용했다. 혜암 스님이 아랫목에서 좌선을 하고 원각이 윗목에서 공부를 했다. 공양 때가 돼 밥을 지어 올리면 방에서는 발우공양을 하고 장작을 패거나 밭에서 일할 때는 농구화를 신은 채 부엌에서 함께 앉아 공양했다. 낮에는 주로 일하고 공부는 밤에 했다. 원각은 처음으로 혜암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을 배웠다.

혜암 스님은 잠을 자지 않는 장좌불와를 하므로 따라서 원각도 밤을 새워 공부할 때가 많았다. <초발심자경문>의 뜻을 한두 줄 해석해 주는 스님의 수행담은 날이 샐 때까지 계속됐다. ‘스님, 아침 공양 준비하러 나가야 합니다’ 하고 엉덩이를 들썩거릴 때까지 혜암 스님의 정진 이야기는 끝이 없었던 것이다.

원각이 공부한 바를 느낀 대로 색다르게 해석하면 혜암 스님은 ‘10년 공부한 수좌보다도 낫다’ 고 칭찬하기도 했다. 모든 일을 이치에 맞게 하라고 사정없이 야단을 치는 혜암 스님으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사소한 것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혜암 스님의 가풍이었다. 아무리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제자가 하는 일을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으면 잘하는 것이었다. 장작을 팰 때도 원각이 도끼를 서투르게 휘두르면 스님이 ‘나이테가 촘촘한 데를 때리지 마라. 나이테가 크게 벌어진 데를 쳐야 나무가 잘 쪼개진다. 단단한 곳과 물렁한 곳 중에서 어느 곳을 도끼날이 파고들어야 잘 쪼개지겠느냐’ 하고 팔을 걷어 붙였다. 스님의 그러한 지적은 수행도 하나하나 단단하게 다져야 삿된 것이 덤벼들지 못한다는 뜻도 담겨 있었다.

원각이 사미계를 받는 날이었다. 계를 받는 날 은사가 법명을 지어주는 것이 불가의 관례인데, 혜암 스님은 아직 행자인 제자에게 ‘네가 한 번 지어보라’ 고 시켰다. 그때 20대의 행자는 ‘근본을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원각(源覺)이라고 지었고, 혜암 스님은 ‘그렇게 하라’ 고 허락했다. 비로소 원각은 해인사 선원 유나 혜암 스님의 두 번째 상좌가 됐고 고독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

“우리 스님은 안거가 되면 저를 선방으로 가라고 했지요. 암자에서 함께 살다가도 시자가 없으면 불편하실 텐데 붙들지 않았어요. 안거기간 동안 공부하다가 답답한 것이 생기거나 스님의 안부가 궁금할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선방에 다니는 다른 상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만 우리 스님과 같이 사는 기간은 산철 때가 대부분이었지요. 하안거, 동안거가 해제되면 스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함께 산철을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울력을 시키려고 부를 때도 있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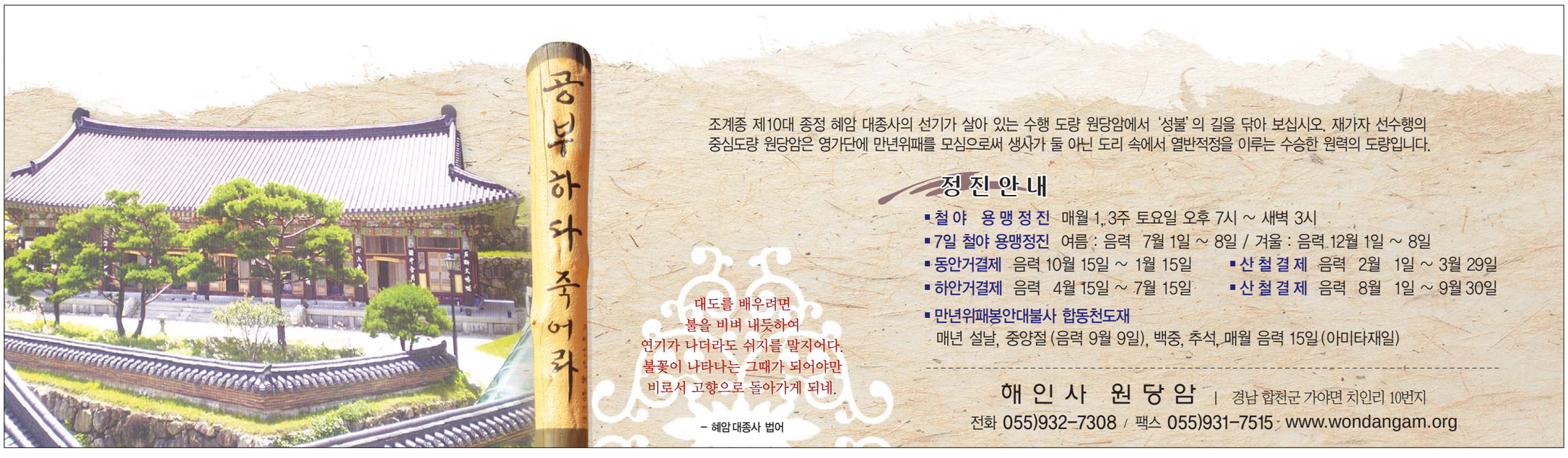
어둑한 염화실이 환해졌다. 햇살이 염화실의 창호를 비추고 있었다. 원각 스님의 얘기를 듣는 동안 대연 거사의 마음도 해가 하나 뜬 듯 밝았다. 원각 스님 앞에 놓인 황토 빛깔의 다기들도 백자의 속살을 드러내며 반짝였다. 대연 거사는 마음에 울림이 있어 지금까지 분위기와 다른 다소 엉뚱한 질문을 했다.

“스님, 재가불자들이 왜 달마선원을 찾아와 참선을 합니까.”

“하하하. 이런 우화가 있지요. 토끼가 낮잠을 자다 도토리에 맞아 놀라서 뛰었는데, 노루와 사슴도 같이 놀라 뛰고 산중의 모든 짐승들이 뒤따라 뛰었어요. 이에 사자가 한 놈을 잡아 물어보니 다른 놈들이 옆에서 뛰니까 덩달아 뛰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왜 뛰는지 몰랐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꼭 그 모양이지요. 그러나 선은 그 반대지요. 자기가 왜 뛰는지 아는 것이 선이지요. 자기 본정신으로 사는 것, 자기 본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대연 거사는 일어나 큰절을 하고 염화실 큰방을 물러났다. 햇살이 환하게 난반사하고 있었다. 원당암 경내의 모든 것들도 이른 봄의 햇살에 조응하듯 눈부셨다.

<계속>



산사 주변 생명과의 말없는 대화



산사의 숲, 침묵으로 노래하다
김재일 지음 | 지성사
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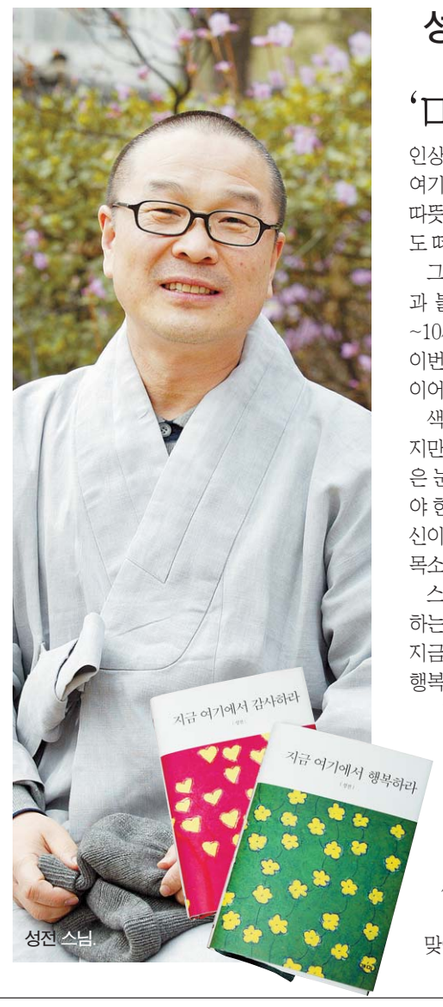
"호젓한 숲길을 걸으면서 팔의 흔들림을 관(觀)하고, 내딛는 걸음걸이를 관하고, 발바닥에 느껴져 오는 감촉을 관하고, 시선의 방향과 위치를 관하고, 눈에 들어오는 사물들을 관하고, 콧속으로 들어오는 숲 내음을 관하고, 귀에 들리는 물소리를 관하고, 들고나는 숨소리를 관한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소장이 말하는 생태기행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행선(行禪)이다. 열린 몸과 마음으로 찬찬히 명상하듯 주변을 둘러보고 마음으로 기록하다 보면 생태기행은 곧 수행이 된다. 출가 이력이 있는 한 김 소장은 명상가가 되어 사찰 주변의 호젓한 산길을 걸어보라고 조언한다. 여행객이 숲과 만나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관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풀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물소리가 되고, 산새가 된다. 무아(無我)의 상태에서 산하대지(山河大地)와 하나 되면 그야말로 선(禪)의 경지다.

7년 동안 산사가 있는 이 땅의 산하를 누빈 김 소장은 '108사찰 생태기행_산사의 숲' 시리즈의 두 번째 성과물인 <산사의 숲, 침묵으로 노래하다>에서 '무정물의 말없는 설법'(無情說法)을 듣고 본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겨울 철새들의 지상낙원인 서산 간월암, 울울창창 소나무가 아름다운 절 사천 다솔사, 눈 쌓인 전나무 숲의 고요가 아늑한 부안 내소사를 비롯해 과천 연주암, 경기 광주 장경사, 안성 청룡사와 석남사, 원주 구룡사, 공주 갑사, 통영 용화사, 곡성 태안사, 김제 금산사, 제주 관음사 등 12개 사찰 주변 생명과의 대화가 에세이처럼 다가온다.

김성우기자

소리 내 읽으면 힘이 되는 이야기들



성전 스님.

성전스님 에세이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 '…감하라'

'미소 스님'으로 통하는 성전 스님이 두 권의 에세이집을 동시에 냈다. 제목이 인상적이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 '지금 여기서 감사하라' 명령조의 책 제목이지만 따뜻함이 묻어난다. 동글동글한 스님의 미소도 떠오르는 듯하다.

그간 <빈손> <행복한 미소> 등 에세이집과 불교방송의 '행복한 미소'(오전 9시 5분~10시)의 진행자로 널리 알려진 성전 스님. 이번에 낸 에세이집은 행복과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데 힘이 되는 글들로 채워져 있다.

색상이 밝은 삽화들과 어우러진 글들은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겨준다. 그래서 이 책들은 눈으로 읽으면 맛이 없다. 소리 내서 읽어야 한다. 누구에게 읽어 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듣기위해 소리내어 읽으면 마치 스님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도는 듯하다.

스님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아니면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삶은 언제나 현재형이고 현재는 언제나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허깨비다. 어제는 갔으니 안 되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될 수 없는 이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지금 여기서 감사하라는 것이다.

스님의 이야기도 그렇다. 지금 시대에 맞아야 하고 여기서 함께 사는 사람들의 현실에 닿아 있어야 한다. 산사라는 고즈넉한 공간에서 세속과 떨어진 이야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전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편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 넣는 비결이기도 하다.

'자연에 깃들어 삽니다' '경험이 스승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비워 그늘 하나를 만듭니다' 책을 휘리릭 넘기면서 무작위로 뽑아 낸 제목들이다. 성전 스님의 글은 사람과 자연과 생활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속의 행복과 감사함을 알아차리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무거운 사색은 없습니다. 그저 가볍게 읽고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스님은 가볍게 말하지만 막상 책이 주는 여운은 진지함 보다는 가볍지만 가벼움 보다는 무게가 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이 책을 두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할 때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책"이라 했다. 문태준 시인은 스님이 작고 소박한 기도를 매일 아침 올리신다는 것을 주목하며 "이 책을 읽고 나니 스님의 웃음이 참 좋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성전 스님은 이 두 권 책을 펴낸 기념으로 4월 1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를 가질 예정이다.

개미출판사 · 각권 1만5000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교와 문화·예술의 접맥 시도



현대 예술 속의 불교
동대 불교문화연구원 엮음
예문서원 | 1만8000원

부처님 설법은 원래 일음(一音)이어서 한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듣는다고 한다. 불교가 지금처럼 다양한 예술 · 문화 매체들과 접속하지 못하고 대중의 욕구에 다가서지 못한다면 불교는 상아탑에 갇힌 학문적 불교에 그치거나 산중불교로 화석화될 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에서 펴낸 <현대예술 속의 불교>는 비록 논문집 형식의 단행본이지만, 불교와 문화예술의 접맥을 본격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만하다.

'마크 어메리카(Mark Amerika)'(이향순 역), '사이버공간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그 대중적 활용'(박수호), '불교문화유산의 세계문화 콘텐츠화 전략 연구'(유동환), '불교 콘텐츠의 영화산업에서의 활용방안'(정재형), '전후 일본만화속의 불교'(마쓰이 류고), '백남준의 비디오예술 속에 나타난 불교 정신'(윤양호), '윤이상음악에서 나타난 불교의 내용'(볼프강 슈파러) 등 9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성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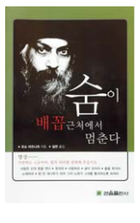
운명은 정해진 것인가?



1990년대 초의 화제작 <소설 토정비결>이 새 단장을 하고 나왔다. 우선 새 단장의 내용을 살펴보자. 당초의 3권 분량을 2권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저자가 2001년에 발표했던 <당취> 5권을 2권으로 개정해 <소설 토정비결>의 2부로 묶었다. 이렇게 전4권으로 재구성된 <소설 토정비결> 1부는 토정 이지함 선생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조선시대의 민초들이 염원했던 행복한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핀다. 2부에서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활동상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진다.

임연태 기자
소설 토정비결 전4권
이재운 지음|해냄 펴냄|각권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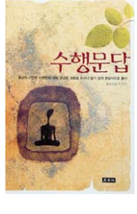
산 자에게 말하는 명상법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 해도, 그대의 사랑이 깊다면 나는 그대를 위해 존재할 것이다."1989년 눈을 감은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가 사망 2년 전에 한 말이다. '깨달은 자유인' 또는 '타락한 성자'라는 극단의 평가를 받는 오쇼는 육신을 버린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을 통해 설법하고 있으니, 그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웃어라', '사랑하라', '이 순간에 살아 있어라' 말하는 그의 명상법은 배꼽 근처에서 멈추는 숨을 주시하는 위빠사나와 선(禪)을 말하기도 한다. 오쇼에 속지 않는 방법은 먼저 에고를 버릴 것.

김성우기자
숨이 배꼽 근처에서 멈춘다
오쇼 라즈니쉬 • 길연 | 관음출판사 | 1만2000원

수행전문가들의 노하우 전수



삶이 고달플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탐구하기 마련. 최근의 수행 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근기나 습관, 여건을 무시하고 구도의 길에 나서면 낭패 보기 쉽상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신적, 육체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은 수행자에게 맞는 방편과 바른 스승을 택하는 것. 간화선, 염불, 절, 주력, 사경, 위빠사나, 호흡관, 자비수관, 사불, 정토선 등 이론과 실참을 겸한 수행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 수행 입문시 필수 관문이다. 각 분야 스님과 재가법사 12인의 문답식 가이드가 구체적이다.

김성우기자
수행문답 | 법보신문사 엮음 | 운주사 | 1만7000원

동심으로 본 김 추기경 어린 시절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큰 축복이다." 지난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스스로를 낮춰 '바보'라 불렀고 늘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사랑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동화작가 정채봉(1946~2001)이 생전에 소년한국일보에 연재한 동화가 어른을 위한 동화책으로 거듭났다.

작가는 "추기경님이 걸어오신 글을 글로 따르다보면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용기 · 희망 · 정의 · 빛의 씨앗을 뿌려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바보별님'으로 환생한 추기경의 동심이 불심이다.

김성우기자
바보 별님 | 정채봉 지음 | 솔출판사 | 95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를 쏴라	현각	김영사
2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3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춘성	김광식	새싹
5	인과경	현담	선
6	광명진언기도법	일타,김현준	효림
7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법륜	정토
8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9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10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기우목동가 신간! 값 10,000원
그 뜻이 심오하여 번역하기 어려웠던 말계 지은 선사의 기우목동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간결한 결문과 주옥같은 선송으로 다시 보였다.
騎牛牧童歌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값 15,000원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청화 스님 등단 31년 만에 첫 시집

조계종 교육원장 퇴임하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놔



예나 지금이나 수행자의 표상은 '상구보리하화중생'이다. 시인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자신의 시적 열락과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대승적 노력이 시인의 몫이다. 더구나 스님이 시를 쓴다면 그 시는 한 편 한 편이 깨달음의 노래이고 깨우침의 죽비소리가 아니겠는가?

최근 조계종 교육원장 자리를 내놓은 청화 스님이 바로 그런 시를 쓰고 발표하는 스님이다. 등단하기 무섭게 시집을 쏟아내는 것이 문단 풍토임에도, 참고 또 참았다가 등단한지 31년 만에 첫 시집을 내놨다.

청화 스님은 첫 시집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자신의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강물 저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이런 시 저런 시'가 모여 한 권의 시집을 이루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시 저런 시'라고 해서 한 편도 가벼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님은 "한 수행자로서 또는 한 시인으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 왔는지 숨김없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감지한 김송배 시인은 청화 스님의 시들을 "비범한 사유에서 창출된 인간의 진실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려는 시적 원류를 확인하게 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사진작가 전제우 '청전스님과 함께 한 라닥 이야기' 展



4월 8~14일 모로갤러리

북인도 히말라야 라닥지역 곰빠(사원)의 생활상을 밀도 있게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송담 전제우 한국불교사진연구소장은 4월 8~14일 서울 모로갤러리에서 '청전 스님과 함께한 북인도 라닥 곰빠 이야기'를 주제로 네 번째 개인전을 연다.

해발 3500~5000m 히말라야 기슭에 위치한 라닥 오지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원, 스님들의 생활상을 찍은 작품들은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 티베트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전제우 소장은 "이번 작품들은 지난 여름 청전 스님과 함께 북인도를 순례하며 찍은 사진"이라며 "전시회 수익금은 청전 스님의 라닥 보살행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2)2266-0302

김성우 기자

음악으로 깨닫는 '십우도 이야기'

니르바나오케스트라 3일 KBS홀서 연주

기축년 소의 해를 맞아 대표적 선화(禪畵)인 '십우도(十牛圖)'를 네 가지 주제의 법문과 공연으로 보고 듣는 봉축 연주회가 열린다.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4월 3일 오후 7시30분 KBS홀에서 '월호 스님과 함께하는 십우도 이야기'를 주제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공연은 월호 스님의 진행으로 '피가로의 결혼 서곡' 연주에 이어 △참회(심우, 견적, 견우)-안숙선의 보렴 △기도(득우, 목우, 기우귀가)-범능 스님의 신묘장구대다라니 △발원(도가망우, 인우구망, 반본환원)-법현 스님의 범패 및 군무 △입전수수-'윌리엄텔 서곡'의 순으로 진행된다. (02)718-4599



오세영 시인. 신달자 시인. 홍성란 시조 시인. 송준영 시인.

시인이 되고 싶다고? 유심아카데미에 가봐

오세영 신달자 홍성란 등 창작교실 인기… '열린논단'도 주목

유심아카데미와 열린논단이 불교와 문학, 사상, 학문의 영역을 삶의 현장으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유심아카데미는 시전문 격월간 문예지 <유심>이 개설한 유심문예아카데미와 유심불교아카데미의 총칭이다. 올 들어 <유심>이 서울 신사동 만해사상실천선양회로 사무실을 옮기고 불교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개설한 창작 및 교양 강좌다. 열린논단은 <불교평론>이 격주로 주관하는 포럼이다.

유심 문예아카데미의 핵심은 국내 최고의 작가들이 이끄는 창작 교실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는 홍성란 시조시인의 시조 창작교실(홍성란 시조아카데미)이 열린다. 시조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창작 실기는 물론 낭송과 감상법도 익힌다. 시조창을 감상하고 직접 배우기도 한다. 강좌의 중심은 시조 창작이다. 3월 9일 첫 강좌를 시작했으며 등단한 시조시인은 물론 자유시를 쓰는 시인들도 다수 참여한다. 홍성란 시조시인은 3개월을 단위로 하는 강좌의 마지막을 공개강좌로 진행하고 심화과정과 초급과정으로 분리해 강좌를 이끌어 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는 신달자 시인이 시인 지망생과 등단 시인들을 대상으로 시 창작 교실(신달자 문예창작아카데미)을 이끌고 있다. 강좌는 3개월 단위지만 계속 수강하면서 창작 실기를 심화 시킬 수 있다. 3월11일 공개강좌를 한 뒤 17일부터 본격적인 강좌에 돌입했다. 현재 12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등단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신달자 시인의 강좌는 기본기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의 길을 열어 보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이다. 이런 자리에 초심자가 끼면 '대박'이다. 시 창작에 대한 기본기는 물론 기성 문인들과도 만나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요일 오후 4시에는 오세영 시인의 시 창작교실(청강문학교실)이 열린다. 역시 12명의 수강생이 3월 12일부터 '열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등단을 목표로 하는 시인지망생들이다. 기본적인 문학이론을 곁들이면서 실기 위주로 강좌가 진행된다. 습작을 낭독하고 작품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형식이다. 오세영 시인이 토론의 줄기를 이끌면서 시 창작의 눈높이를 향상시켜 준다.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시인이 되고 싶은 뜨거운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다.

유심불교아카데미는 경전과 어록 등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코스 '경전과 선어록 깊이 읽기'다. 3월 12일부터 송준영 시인의 '반야심경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空)' 사상의 경전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반야심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견해들을 통섭하고 문학적 관점에서 읽는 것이 이 강좌의 특징이다.

유심아카데미와는 별도로 격주로 열리는 불교평론 열린논단도 주목받는다. <유심>과 함께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발행하는 본격 불교학술 매거진 <불교평론>이 불교로 세상을 바라보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열린논단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열린다. 매회 기획된 주제를 권위 있는 발제자가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주로 학계의 이슈나 사회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 추출되어 매회 학계의 관심을 모은다. 토론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심아카데미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을 넓힐 계획이다. 02)739-5781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청강문학교상 모습.



3월 27일 불교평론 열린논단 토론 모습.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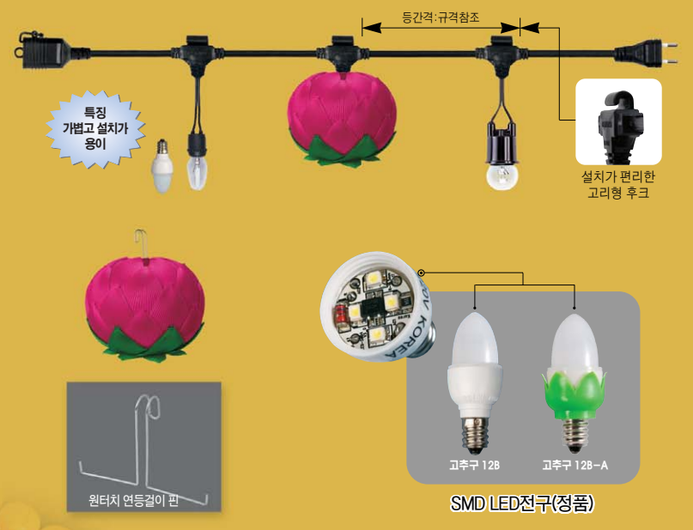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문의] 우창산업 (삼환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구매시 카드결제가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견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21 밥은 인연

밥상으로 '해후' 하다

무량화할매와 눈이 맞은 건 경주 성건동 어느 허름한 골목에서다. 꽃분홍 스웨터를 걸친 할매는 골목어귀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방 구하노? 내가 보여주꾸마?"

다소 거친듯하면서도 또랑또랑한 할매의 사투리가 춘삼월의 봄볕처럼 서울 촌객의 마음에 따사롭게 흘러들었다. 한마디를 던지고는 빤히 바라보는 할매의 눈이 말없이 껌뻑이며 천진스럽게 재촉한다.



'인연' 과 함께한 무량화할머니표 무공해 밥상.

사정이 생겨 당분간 경주와 서울을 오가는 '이중생활'을 하게 됐다. 한적하면서도 공기 좋은 동네에 방을 얻을 계획에 이 골목 저 골목을 서성이다 만난 무량화할매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지나가는 겨울과 하루가 다르게 성큼 다가온 봄의 기운이 아쉬움과 설렘으로 어우러져 평화로운 작은 동네의 골목골목을 누빈다. 진달래 고운 빛 스웨터 위로 샤방한 머플러를 나풀거리며 할매도 골목골목 잘도 누빈다. 우선 할매는 당신이 사는 집에 딸린 방부터 보여주고는 반응을 살핀다.

"다른 데도 보여주꾸마?"

이번에는 뚝방 근처에 위치한 큰 아들네가 세놓았다는 방을 보여준다. 그래도 영 시원찮은 표정이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옆집 아줌마네와 뒷집 아저씨네 방까지 보여준다. 미장원 앞 평상에 모여앉아 수다삼매경에 빠져있는 아줌마들한테 다가가 "어디 괜찮은 방 없노?"라며 공고도 해본다.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할매의 다리사정은 생각지도 않은 까다로운 객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자며 동네의 끝을 가로지른다. 둘째 아들네가 세놓은 원룸이란다. 베란다 너머로 펼쳐진 남산과 비스듬하게나마 바라보이는 형상강의 정경이 마음에 들어 그 방으로 낙찰을 보았다. 여간 까다롭지 않은 취향을 기어코 만족시킨 할매는 흐뭇한 마음에 '남산의 정기를 받는 방'이라며 소개까지 곁들인다.

"야야, 우리 집에 들러 저녁 좀 묵구 가라. 그냥 가면 배고파서 안된데이."

"아네요. 차 시간이 바빠 빨리 가야 해요."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결국은 음료수만 마시고가는 걸로 합의를 보고 할매의 집을 들렀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향한 할매는 베지밀을 한 병 꺼내와 건네더니, 거실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구경하던 내게 사진 속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다가 다시 안달이 났다.

"그럴게 아니라 쪼매만 기다려라. 서숙밥을 지어놓은 게 있으께 한술 뜨고 가라. 서울까지 가려면 배고파서 안 된데이."

할매의 발걸음이 채 말릴 겨를도 없이 부엌으로 달음질치고, 잠시 후 들깨가루가 듬뿍 얹어진 콩나물국에 짭조름한 멸치조림과 무장아찌, 동치미, 김치 등이 소담하게 차려진 밥상을 차려 내온다.

"이거는 콩나물국에 무 좀 섞어 넣고 끓인기다. 먹어보래이. 여그 김치는 무공해다. 동치미도 그렇고 무장아찌도 그렇고 할배가 기른 거로 만든 거다. 요것도 먹어봐라. 시래기랑 명태랑 넣고 쫄인긴데."

할매의 상세한 안내에 따라 이 찬 저 찬그릇을 옮겨 다니며 젓가락질을 하느라 바쁘다. 무엇보다 시래기와 명태를 넣고 졸였다는 찬이 일품이다.

"시래기에 된장 쪼매 하고 마늘 넣고 무쳐서 냄비 밑에 깔고, 위에 명태 얹어가지고 요래요래 양념장 흘어 넣고 쫄인기다. 원래는 시래기와 고등어가 궁합이 맞는 건데, 고등어가 없어가 명태로 맞췄다. 괜안노? 맛은 없어도 나는 조미료라 카든가 그런 거 안쓴데이. 고마 많이 묵어라."

밥술 위로 푸지게 걸친 시래기 가닥에 할매의 살가운 수다와 정까지 듬뿍 얹어져 배속이 따끈하게 불러온다.

할매가 산에서 손수 재취해 끓였다는 악초물로 입가심까지 하고나니, 그제야 객을 보내는 마음이 편히 놓이는지 할매는 "이래가 밥을 먹고 가야 속이 따습고 덜 춥데이"라며 집 앞 네거리까지 배웅한다. "오야 오야 조심히 가거레이" 손을 흔들어 보이는 할매를 뒤로 한 택시는 봄빔의 형상강을 따라 달린다. 그 언제인가 함께했을 또 다른 인연과의 해후로 경주의 낯선 마을은 그렇게 다시 고향이 됐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27 피부건강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자기 암시로 젊고 아름다워지는 나의 모습

마지막 꽃샘 추위가 봄을 시샘하며 한껏 성질을 내곤 있지만 역시 만물이 소생하고 닫혀있던 마음도 살살 열리는 봄이다. 그러나 봄날 분위기, 기분과는 동떨어지게 우리의 피부와 호흡기 등은 꽃가루와 황사 그리고 심한 일교차 등으로 혹사당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피부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척도하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간 신경쓰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새는 피부상태가 부의 척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여성들이 얼마나 피부에 신경 쓰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라 할 수 있는 늙지 않고 항상 아름답고 건강하게,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면서 젊게 사는 법에 대해 말할까 한다. 요새는 각종 시술과 맛사지, 성형수술 등이 워낙 발달돼 조금씩 손 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외모는 역시 자연스러우면서도 순수한 빛을 발하는 아우라를 겸비한 모습이 아닐까.

성형 수술처럼 갑자기 오똑한 코와 쌍커풀진 깊은 눈, 날렵한 턱 선을 순식간에 선사하는 초스피드 방법은 아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고, 가장 오래 유지되면서, 그 어떤 부작용도 없는(더군다나 경비도 전혀 소모하지 않는다) 효과 100%의 방법을 알려드린다.

이 방법도 역시 뇌에 최면을 걸어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이다. 이 암시문을 인지하는 뇌는 나의 몸을, 나의 얼굴을 암시문 데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만들고자 조절한다.

#잠들기전에 아름다워지는 작업

고요히 다음의 암시문을 읽고 스스로에게 들려주면서 아름다운 나의 모습, 원하는 나의 모습을 명상하면서 잔다.

"나의 몸과 마음은 항상 젊고 건강하며, 밝은 웃음과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에 늘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활기와 생기발랄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상쾌한 에너지가 넘쳐 나고 있으며, 나의 피부는 늘 탱탱하고 탄력 있어 광이 날 정도로 빛나고 있다. 군살과 처짐 없는 브이라인 턱선과 보기 좋을 정도의 볼살은 적당한 균형을 이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고 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완전해 육체적 기쁨과 영적 충만함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암시문을 듣고 잠들게 되는 나의 육신은 내가 염원한 영력(靈力)에 의해 들은바 데로 바뀌고자 하며, 밤새 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죽은 세포는 몰아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세포들로 온 몸을 가득 메우고자 노력한다.

또한 이렇게 확언하고 확신해 나의 몸과 뇌리에 계속적으로 암시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몸과 마음은 계속적으로 무한한 기쁨과 감동을 느낄 것이며 이를 습관화하게 될 것이다. 무한한 사랑과 기쁨, 감동이 내 온 마음에 몸에 가득 차게 되면 나의 심신은 가장 완전한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집단최면에서 깨어나 노화 · 질병에서 벗어나기

사람들은 어찌보면 다들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집단최면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세월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의 신체 세포는 늘 새롭게 재생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젊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결코 '노화'니 '늙음'이니 따위의 말을 우리의 생각 속에 불러일으키지 말아라. 나이는 먹기 때문에 거꾸로 세어나가면 된다. 그리고 점점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탱탱해지고 탄력있는 부드러움으로 온 몸을 감싸면 된다. 투철한 자기 신념으로 강력한 자기 암시를 행하면서 실행하면 놀라운 결과가 자신에게 펼쳐질 것이다. (02)576 -7575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이야기 23

침향을 자기수양의 요체로 전하는 능엄경

<능엄경>에는 침향을 피우는 것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구절이 전해진다. <능엄경>의 '향엄동자(香嚴童子)편'을 보면 향엄동자가 고요한 정실에서 침향을 피워놓고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향기를 들여다 보건대, 본래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본래 공(空)한 것도 아니다. 연기 중에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불가운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올 때에는 본래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는 또한 집착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라."

공양물로서의 향뿐만 아니라 향의 본질과 그에 따르는 깨달음의 증득을 노래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침향의 중요성은 역사서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조선시대 성군 세종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진귀한 약재의 중요성을 말하며 "주사(朱砂)와 용뇌(龍腦)는 비록 귀한 약재라도 중국에 가면 구할 수 있지만 침향은 중국에서도 쉽게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왜인들 역시 먼 다른 나라에서 구해 오는 것이니 침향만큼은 비록 갑절을 주더라도 가하다. 그러니 예조에게 이를 의논하라" (서기1431년, 세종 14년 3집 421면)라고 했을 정도였다.

이토록 침향이 필요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침향의 용도 중 특히 침향의 약효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다.

실례로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 등을 비롯한 세계의 거의 모든 약전에는 침향이 각종 난치병과 신장계통, 간염, 간경화, 위장병 등의 병과 혈관계, 신경계 등은 물론이고 갑상선암 등 항암제로도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수록돼 있다. <뇌공포제약성해(雷公炮製藥性解)>에는 "침향은 신경(腎經)과 명문경의 2경에 들어간다"고 했다. 또 <신농본초경소(神農本草經疎)>에는 "침향이 족양명, 족태음, 족소음, 수소음, 족궐음경에 들어간다"고 전한다.

<약품화의(藥品化義)>에는 "폐경과 신경의 2경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는 폐질환과 신장질환에 침향이 직접 작용한다는 말이다. <본초경해(本草經解)>에는 "족소양담과 족궐음간, 그리고 수태음폐경에 들어간다"고 기술하고 있다. 족소양은 담(쓸개)과 족궐음경인 간 그리고 수태음경이 폐기능에 작용한다고 했다.

침향의 약리적인 효능은 신장기능과 간기능, 폐질환, 폐결핵 등에 실효하며 그 밖에 소화기 계통에까지 효과가 있다고 실려 있으므로 이 이상의 약효를 논하는 것은 사족에 불과할 것 같다. 또한 그 용도와 효능이 너무 방대하기에 모든 것을 거론할 수도 없다.

이제부터는 지난 연재를 토대로 침향의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02)3663-6777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1

천년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천년초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태삼(太蔘)이라 일컬었던 한반도 토종 선인장이다. 아열대나 사막기후에 있는 선인장과는 완전 다른 한국적인 생태환경을 좋아하며, 자체의 성질도 다르다. 천년초 즉 태삼은 황토에서 자라기를 좋아하며, 30도가 넘는 여름이나 영하 20도의 겨울에서도 끄떡없이 잘 산다. 이런 모습을 보고 혹자는 "생기긴 선인장인데 이거 선인장 맞나?"하며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천년초는 또 다년생으로서 놔두면 수백년을 생존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효능이 깊고 형언할 수 없다고도 한다. 우리 조상들이 클 태(太)자에 산삼의 삼(蔘)자를 붙여 太蔘(태삼) 즉, 가장 큰 삼이라고 한 것은 천년초의 효능이 광범위해서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처음 천년초의 옛 이름이 태삼(太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선인장에 속한다는 것을 연상하니 부처님 손바닥이 갑자기 생각났다. <서유기>에서 천하의 말썽꾸러기 손오공이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존재가 됐을 때 부처님이 나서서 손오공을 500년간 가두는 일화처럼 손바닥 모양의 천년초는 그 안에 말썽과 큰 병들을 모두 가두는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천년초를 처음 소개 받을 때 지인과의 대화가 지금도 기억난다.

"혹시 천년초 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또 대충 이것저것 섞어 만든 사이비 건강식품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토종선인장이란 말에 놀랐고,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에 또 한번 놀랐다.

필자는 한국의 토종식물이라면 왠지 꼭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천년초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또한 남쪽 끝 영암에서부터 강원 · 전라도의 천년초 서식지와 재배자들, 그리고 천년초를 먹고 체험한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앞으로 필자는 연재를 통해 눈으로 보고 듣고,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또한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한반도 자생식물 천년초에 대한 사실과 여기에 얽힌 이야기도 함께 거론하고자 한다.

외국에서는 전통의 민간요법을 현대의 과학기술로 발전 승화시켜 세계적 아이템을 만드는 이때, 많은 사람들을 병마와 불치병의 고통에서 해방시킨 민간요법자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견해를 미력하나마 알려 보고자 한다. (02)780-0098

미래를 열어가는 불(火)의 불멸조(不滅鳥)



의장등록번호 제 2008-0052952호
크기 : 높이 87cm×폭 26cm

지금 이 시대는 과거도 지나고 현재도 지나고 미래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고 몸으로 느껴야 믿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불멸조(不滅鳥)는 가정, 사업장, 자동차 등 육해공(陸海空)을 움직이며 다니는 모든 곳에 두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요즘 많이 떠다니는 영혼들의 액운(厄運),액살(縊殺),잡귀(雜鬼)등등의 조화 부림으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가정에는 행복(幸福)과 건강(健康)과 부부금슬(夫婦琴瑟)이 좋아지고 자녀(子女)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없어지며 사업장에는 사업번창(社業繁昌)이 자동차나 움직이는 곳에는 안전과 사고예방을 하는 힘(力)과 원력(原力)으로 지켜주는 미래(지금)의 꼭 필요한 불멸조(不滅鳥)입니다.

불멸조(不滅鳥)는 태양(太陽)속에 사는 삼족오(三足烏)의 원력(原力)과 삼신일체상(三神一體思想)인 천(天),지(地),인(人)의 원력(原力)이 함께하여 위에는 세 방위의 날카로운 칼날(刀刃)이 액운액살(厄運 縊殺)을 일시로 소멸(消滅)함으로써 복(福)이 저절로 따라오는 기운(氣運)이 있으며 앞길을 뻥뻥 뚫어주고 열어줌으로써 아주 영험(靈驗)한 길조(吉鳥)입니다.

아래에는 순수함의 원력(原力)과 함께 최고의 행운(幸運)을 열어주는 길상(吉祥)으로 알려진 천연 백수정(石英,Quartz:신의 얼음)을 안착하였습니다.

순금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서 개금하였으며 순금의 생체활성파장(生體活成波長)으로 활력(活力)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호신불(護身佛)입니다.

기도 축원 불공을 마치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무료 인등 축원발원으로 밝은 앞날을 계획하시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보시금 70만원)

※ 호신불이 가져오는 현상들

모시고 난 후 어지럽거나 구토증세, 피부이상, 기운저하 등 여러가지 현상들은 액운과 액살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인내로 믿으시면 일정 시일이 지난 후 정상으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031)898-5666
010-8674-5351

우체국 100941-02-294031 (엄홍수)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화두방생의 (1박2일기적)
2009년 4월 15일 부터 선착순 매일 접수
호텔합숙,선식,바루공양,축원비2만원
전철온양행 하차-도고온천시내버스 로얄호텔앞
농협 465-02-403194 (이중남),선납접수
온천-두뇌요가-방생천도재를 동참
단독 천도재는 토요일, 평일 천도재는 축원비 동참으로
041)541-0533 도고온천 맑은 산

중창사찰주지,공동운영자초빙
큰법당,봉안당,극락전 500평 대형사찰로 능력있는 주지스님을 초빙합니다
● 공양주 2명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건천IC15분,언양IC30분거리
문의 010-3300-5737
010-2203-0922

명 리 보 감
최고의 사주CD
- 정확한 용신
- 정확한 만세력

www.goodcycle.com
네이버에서 "명리보감"으로 검색.
(02) 3472-5933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소원성취기도
대학입시, 사업성공, 스트레스 우울증,변비,각종 집안 우환,아들딸 액운소멸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봉사활동 및 표교활동 하실 분
노후생활 회향을 잘 하실 분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상담환영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출가(여女)수행자 구함
일년 공부 후 사찰을 책임 운영 할 수 있는 성실한 여(女)출가를 원하는 수행자 구함
▷부산근교
010-2599-6020

역 학 개 인 지 도
초급에서 최상급까지 가능
천안, 대전까지 가능
다곡, 유재숙(백두선생)
011-685-6566
02)6217-9171
이기론. 문점. 목적점
「사주박사」 인터넷 쳐보세요!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전통 불교 범음범패 전수원
기초반,중급반,고급반,전문반 (전문의산소리,사물다루는법, 불교 전통무용, 각정 제의식)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실전위주로 여법하게 행사 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051)555-0969
011-849-0961

시골 빈집 세 놓을 분 전화주세요
010-3595-9856

30, 40, 50대 비구니스님 구합니다
▷문의내용은 전화상담 노비구니스님도 연락하십시오
010-9219-7695

서울 도심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입니다 참신한 40~50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591-0108
(사무장)

貴 한 인 연
50대 계사생 비구승입니다 도량운영을 믿고 맡겨주실 귀한 인연기다립니다 부족하지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010-2446-2626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60대 초반)
▷ 경남 진해시
055)545-7116
011-577-4705

충북 청원군 산기슭 토굴 암자에서 적은 돈으로 내집처럼 함께 수행정진 하실 비구니스님이나 보살님 연락 바랍니다
010-8419-8004

기도 수행정진 하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종무소 근무 할 불심이 강한 여 직원(PC가능자) 구함 숙식 제공,출퇴근가능
▷경북 군위면
054)383-0407
010-2750-4394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경북 김천소재 대한불교조계종사찰
054)437-0700

여종무원 구합니다
(서울 관문사)
02)3460-5300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절입니다 적은 시주로 남은 생 부처님께 의탁하여 사실분, 공부 하실분,스님 되실분
기도성취도량
010-9367-5982

산세수려한 천년고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742-2057
011-9840-8571

되는 이는 물에빠졌다 나와도 이 주머니에는 잉어가, 저주머니에는 붕어가.. 들어있는데 될때는 뭘해도 되고, 안될때는 뭘해도 안되... 사주를 보아 원인과 때를 알고 적성을 찾으면 길이 보여...
영축한 토방에서 무불 합장
011-854-8107(예약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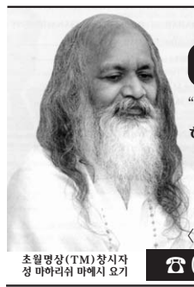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경기도
010-4015-9494

부전(30~40대) 비구스님 모십니다
운전, 컴퓨터가능자
▷경기도
031)535-1009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50~60대 초반)
▷서울 은평구
011-216-7317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충북 청원군
043)297-8728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710-7294
011-393-0013



견성 체험 / 쉽다, 빠르다 - 이미 세계 6백만 애용!
초 월 명 상 (TM)
"생각을 초월하라(바라 아제)그것이 깨달음이다" - 반야심경
하버드 의대, 일본 노동성 등 600여 연구 효과입증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삼매경, 자아완성(깨달음)
학업성적, 집중력 증가 / 불안,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심장병, 뇌졸증, 당뇨, 비만, 우울증 퇴치
〈지도자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www.초월명상.kr
초월명상(TM)창시자 성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 02)598-3152 지방 010-7443-1296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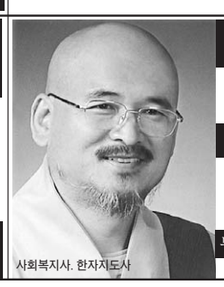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토요반 모집 (정도형 선생)
- 사주 중급 : 월요반 3월 23일 18:30 개강 (이선종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선생)

위 수강생은 관상, 주역 강의(화요일)를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 kbs.cc
- 사주 전 과정 45만원부터,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등

월간역학교육원 1688-1137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회탕 앞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신청하세요. 여자에 한함
명리학(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천도 기도 떡 복용 완치
황토사는 원인모를 통증 · 질병 · 변비 · 아토피 · 비만 등 치료중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 2리
문의전화 011-9585-0383

당뇨병, 관절염 특효식품
'돼지감자' 판매 (20kg 14만원)
스님이 직접 재배 판매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황룡사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242번지 주지 무진스님
전화 : 061)392-0408, 011-629-2702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3월 동시모집
▶ 저렴한 학비, 실속 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학력 · 연령 제한없이 누구든 입학가능!
- 술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학"을 치세요.
행자 (예비스님) 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주간반 · 야간반(월요일 7시부터 10시 까지) 정규반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정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 저자 백초스님 직강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사 군 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드디어 우리 활인천역자의 친견 임상 실기用 활용서 CD가 名品으로 최종 완결 되어 절찬리 판매 교환 中 입니다
"특히, 매일 매 시간별로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어떤 수법이 필요한가? 일이 되는가, 안되는가? 장차 좋은가, 나쁜가?는 물론,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침범여부와 그 해소 방법 및 각종 수법효과 유무 까지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육임학의 고등차원의 백미로서, 「적중도」와「효과성」을 동시에 보장시킨 이처럼의 상세한 전문가용 형이상법 책과 CD프로그램은 본「효사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 효사 활인천역집 Ⅰ·Ⅱ·Ⅲ 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 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효사육임산책(09 신간) /육임1년신수비결(09 증보판)/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육임대계전서(09 휴대용개정판)/도사에게물어봐(09 보정판)/출산일일길시택일비법(09 개정판)/성명학/월영도/효사숙사주/부적보감/동의보감/육임풍수/육임길흉성부단정법/육임래정비법(09 개정판 좌정 · 휴대용) 등 14종이 종합 장착되어 있고, 위 각 분개(分個) CD프로그램으로도 판매하며, 위 각 활용서, 위 각 CD와, 학습총서「효사육임강론」上 · 下(09 7판본 완결판)을 권해드립니다.
-「육임래정비법」시리즈〔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 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 부록 · 부연CD · 1800쪽(분할)
맞춤 권수선택 : 60갑자 60일치 1권 •60갑자 각 순별6권 •60갑자 매일 60권 中
맞춤 크기선택 : A5휴대용 •A4 좌정용 •A3 노안용 中
『지난 2000년도 이래 꾸준히 진화시켜온 저 고복자 효사의 위 각 육임활용서 · 학습서 · CD프로그램 들을 2009년 1월 현재 모두 개정 · 개편 · 증보 · 합산 · 교열 · 교정하여 「최종판」과「완결판」으로 재간행하였음을 전국 현인 · 기사 · 이인 제위께 알려 드립니다』
한 국 육 임 학 회 총재 고복자 효사
대표전화 051)908-8683 담당 진민경 www.taotemple.net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가로 7cm 70,000원
규격 가로 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28평
● 요사 : 29평
● 부지 : 167평
● 전세 : 1억

● 위치 : 강릉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부지 : 150평
● 전세 : 9500만원

● 위치 : 부산
● 법당,요사 : 150평
● 부지 : 135평
● 전세 : 11억

● 위치 : 지리산 토굴
● 법당,요사 : 45평
● 부지 : 85평
● 가액 : 8500만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근처
● 대지 총평수 1300평
● 법당 35평,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전통기와양식 내3포 외5포
낙동강 전망 최고,국도 근처
● 산세수려(큰 바위산) 계곡접
● 약 30억 불사 ● 가액:12억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 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뒷편 산
● 텃밭 300평, 뉴타운 개발지역
● 양도가 9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외동읍
● 대지 : 약 445평
● 한옥법당(약25평)
신축 요사채 2층 60평(찜질방)
● 빼어난 산자락 밑 평지(토함산)
석탑 사적지 인접(관광지)
● 가액 : 4억 3천만원

● 위치 : 양산시 교동
● 대지 : 84평(입구대지 42평 매입가능)
● 한옥법당 (약15평)
● 요사채 및 공양간, 재래식 황토방 1칸
● 인근에 초대형 아파트 단지
● 친견하시기 좋은 복전 터전
● 역학,무속인도 좋은자리
● 가액 : 2억원(절충가능)

011-835-66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 부지 : 194평
● 법당 1채, 요사채 1채
● 제주항공에 10분거리,
신제주 5분거리
구, 제주 10분거리
● 가액 : 3억 5천만원
018-590-3583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충북 단양 구인사 인근 위치좋음
사찰 양쪽 계곡 물
● 대지 300평
● 법당 40평/삼존불 /산신각
요사채 54 평/2층 방11개
● 양도가격 2억 5천
전세가 2,500만원
연락처 011-845-3596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삼각산밑
● 평수 : 40평.4층건물중3층
방1,공양간大 1
● 법당시설완비,시설한지 5개월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4500만원(절충가능)
02)993-1070
010-5530-4646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방2칸, 공양간,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건강문제로 급 양도
● 주방집기 및 가전제품 그대로 인수함
● 몸만 오시면 됨
011-238-3990

사찰농장(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 부지 : 18,000평
● 장뇌산삼밭 2500평(3년생재배) 2년 후 고소득 가능
● 과수원 1500평, 약초밭 500평 등 사찰허가부지 300평
● 가액 : 5억
033)574-2387/010-5051-1165

부산대사찰급안내

20년된 벚꽃나무 50종있습니다
● 기와법당1동, 기와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 11억5천만원
011-563-1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요사채 50평, 대지 600평
● 삼존불, 신중탱화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
(절충불가) 융자가능
010-3996-20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절충가능)
● 스님 사정상(유학) 양도
010-7325-1259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782-211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아파트 대단지 밀집
● 천수관음탱화 5점
● 5층건물 중 4층 38평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소임관계로 급 안내
011-853-005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유진상가 옆대로변
● 평수 : 22평
● 법당, 스님방1, 후원
● 삼존불, 대형후불탱화 5m
신중탱화 2m, 산신탱화, 인등
범종(24관) 모두 최상급 작품
● 보증금 1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각종 집기물품포함)
011-274-3853

사 찰 안 내

● 위치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230-1
● 대지 360평
● 건물 : 임법당 40평
● 관세음보살계십니다
※ 100여가옥이 사는 마을
맨뒷집(산자락)
명당이라 첫눈에 반할 겁니다
직접 와보세요
● 가액 : 7,000만원
011-621-9549

포교원 안내

● 부산 서면 부전1동 도심지 롯데호텔 맞은편
● 비구니스님, 보살님, 역학법당,
포교원 불사, 기도처 위치최고
● 방3개 법당1, 공양실1, 욕실1
● 시설완벽, 조용한 기와집독채
● 전체 50평.보증금 2천,월30만
절충가능
● 마당넓음, 시설비 없음
051)807-7328
011-488-0316

사 찰 안 내

도심포교 관심있으신분 중
10억 이상 불사
가능하신분 전화요망
● 위치 : 울산지역
010-4752-882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 대지 : 49평
● 방2, 마루, 부엌, 목욕탕,
걸망풀고 쉴 수 있는 곳
● 가액 : 2천 5백만원
010-2047-8376
010-9247-24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 250평
● 대웅전(목조)25평
● 산신각, 요사채 각1동
● 가액 : 2억5천만원
011-9765-5302

사찰암자안내

● 전북 장수 장안산 덕산계곡
상류 해발 800m 위치
● 사찰이나 암자 최적지
(최고 명당터)
● 전체면적 523평
목조 건물 24평 1동
목조부속건물 20평 1동
● 가액 : 3억
011-644-256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뒷쪽 입구
● 3층 건물 중 2층. 평수 32평
● 법당,삼존불,탱화 등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450만원
051)759-4684
010-9208-2644

태백산 산좋고 물좋은 대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유원지 앞
● 연꽃 속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남향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전기, 수도, 전화, 도로,
수백톤 자연돌과 조경이 잘 돼있음
● 관리지역 : 대지 200평, 건물 40평
● 전 4,410평, 총 4,610평
● 가액 : 7억5천(이민관계로 급안내)
018-223-2101 주인직접

신도시 부근 사찰

● 위치 : 경기 북부 시내중심가에서 도보로
15분거리,노송 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평수 : 680평(반영구적 사용가능한
실사용 평수 10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20평, 요사채2동
(약100평,30평)창고2동, 시설좋음
● 교통편 : 매우 양호. 절에서
도보 30분거리전철역 개통예정
잠실과 강북에서차로 30분거리
● 장점 : 시내중심가이면서도 깊은
사찰같음. 인구유동성이 많아
포교와 수행에 최적지
● 가액: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선이나 상담후 절충,양도하고자함
011-393-0013
011-710-729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신월동
신월지구대 밑 토월상가 입구
● 외국 공부 관계로 급 임대함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건물주와 상담 후 결정
시설비 1,000만원
055)274-1755
011-624-1755

사 찰 안 내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내
● 평수: 89평(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시 상담후 결정
010-2284-0737

포교당 안내

● 위치 : 평택 시내
● 6층건물의 4, 6층
(각 70평, 총 140평)
● 집기일체,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0만원(시설비 절충가능)
010-7460-125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 2분거리)
● 한옥주택(총50평)
● 방2, 주방, 욕실,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2717-8088

토굴및불자수련원지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
● 토지 : 3000평, 건물주택 70평
통나무집 10평, 차고 20평
창고 10평
● 외형 : ①반월지(명당터로써
참선수행의 최적입니다)
②교통편리하며 입구까지
아스콘 포장완료 ③토지분할가능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466-229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망미동 대로 사거리 코너
● 평수 : 4층 건물중 3층 33평
● 법당(삼존불)공양간,방,욕실
● 10년간 운영한 포교당으로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7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6220-18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 시내
● 1층 단독주택 33평
● 큰방 1(법당) 외 큰방2, 거실
주방, 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모든시설완벽, 현재 운영중
● 건강문제로 급 양도
스님이나 법사,보살님께 최적
동네가 조용하고 주차 편리함
● 전세 22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923-4927

도심부근 개인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강원도청 부근)
● 대지 : 85평, 법당 10평
요사 20평(방2, 샤워실)
법당 뒤 야산
● 아미타 삼존불,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8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없음
● 관리 잘해 주실분,몸만오실분
꼭하실분만연락바람
011-9116-5113

토 굴 안 내

● 위치 : 마산 진주간
● 평수 : 약 410평
● 임법당1동, 요사채2동
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554-567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인근
유동인구 많음, 아파트인접
● 평수 : 110 평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597-4460

도심빌딩속포교원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 72평
● 모든시설완벽
● 가액 : 1억 8천만원
010-7188-772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농협앞
● 2층. 30평. 법당1,방2,주방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55)232-7151
055)243-37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 법당 24평(2층)
본존불, 지장, 신중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6-557-2065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목천 IC에서
10분거리
● 면적 : 총500평(대지+부지)
● 목조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5억
011-9505-980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내 10분거리
● 법당 1,2층 약 45평
요사채 1,2층 약 50평(현대식)
단청필 총 17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 시설깨끗하고 좋음
010-6298-258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층 한옥 독채
● 시설 및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 몸만 오셔도 즉시 법회 가능
● 법당1칸,방3개,공양간,창고
010-2643-7582

토굴암자안내

● 위치 :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 대지 298평
● 건물 50평.1층,2층(별장임법당)
● 산신각 옆 사계절 물 흐름
토굴 앞 남한강 보임
텃밭, 마당 잔디밭
● 가액 : 2억 9천만원
● 큰방4, 대형거실, 욕실,
화장실2, 상수도 지하수 겸용
010-4736-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270평
● 법당 : 16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안내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평생토굴분양

자격 참선수행에 득력한자로서 마음껏
공부하다 죽을 각오가 정리 되신분
● 분양가 : 3천만원(1인 1실 방 93개 선착순)
● 대상 : 비구, 비구니, 거사님, 보살님, 종단불문
● 위치 : 서울시 정릉 4동 북한산입구
남향 명당혈 버스종점 5분거리
● 혜택 : 숙식, 난방, 수도, 공과금
모두 지원해드림(공부만 하면됨)
● 자가용 소지자는 절대분양못함
02)914-423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6739-642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광안해수욕장 5분거리
● 반지하 55평 ● 법당 1, 공양간 1, 방 1
● 삼존불,지장,신중,산신,용왕,칠성,시설완벽,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 월30만원. 시설비 300만원
● 이주관계로 급 안내
● 생활상담 하실스님이나 무속인 최적지
011-9526-902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대야동 보건소길
(부천방향으로) 대야 초등학교 근처
● 평수 : 13평 정도. 삼존불, 소불 50불(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15만원,시설비 1300만원
※혼자하실 여스님 환영(주택가 도로 끼고 있음)
● 역학 하실분도 관계없음. 아담하고 법당1, 방 1, 뒷마당 조금
● 저렴한 월세이기에 부담없습니다
● 저는 넓혀서 가기때문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 꼭 하실 분 전화요망 ※
010-7322-8593

포교당 안내

● 위치 : 금정구 금사동 금사초등학교앞
● 평수 : 법당 29평
● 요사채, 방 2칸, 부엌 1칸, 친견실 1칸, 시설완벽
● 보증금500만원, 월32만원(시설비별도)
010-8517-2357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정릉
● 총 500평, 법당 1, 요사채 6개, 시설완벽
● 가액:1억원(시설비+보증금)
010-3422-2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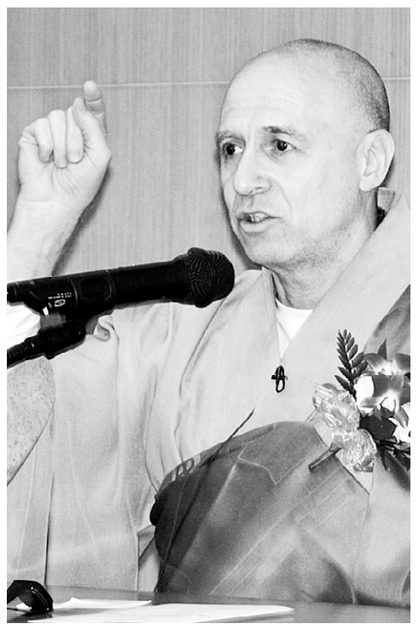
현대인의 삶과 禪

"왜 매일 먹습니까?… 오직 모를 뿐"

강 사 : 대봉 스님 (무상사 조실)
일 시 : 2009년 3월 26일
장 소 :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실
주 최 : 서울대학교 불이회(不二會)
주 제 : Seon Practice the Modern World
현대인의 삶과 禪

무상사 조실 대봉(大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는 가르침을 남긴 숭산 스님(前 화계사 조실, 1927~2004)의 전법 제자다. 오랜 기간 해외포교를 통해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에 앞장섰던 숭산 스님은 대봉 스님 외에도 현각 스님 등 다수의 푸른눈의 수행납자들에게 법을 전했다. 복잡한 삶 속에서 고뇌하는 현대인들은 숭산 스님 열반 이후 간결했던 스님의 가르침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

서울대 불자 교수모임 불이회(회장 배광식)는 3월 26일 대봉 스님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대봉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쉽고 재미있는 법문으로 스승의 화두 '오직 모를 뿐'을 강조하며 청량제와도 같은 감로법문을 쏟아냈다.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체험적 언어로 전하는 대봉 스님.

저는 오늘 주장자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법문은 법고좌에 올라서 하는 형식적인 법문은 아닙니다. 저의 스승이신 숭산 큰스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 살아 있는 것은 완전한 것

탕!(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모양(相)이 공(空)이며 공이 모양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무상합니다. 이분법 적인 세상이라 할 수 있죠. 인간은 누구나 이분법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이 현상에 익숙해져 그 세상이 전부인 듯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물이고 물은 산입니다.

탕! 모양(相)도 없고 공함(空)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적이고 모든 것이 공한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원점에서 시작해 공(空)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이분법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표현할 수 없기에 모양도 없고 공함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모양도 공함도 없을 뿐입니다. 산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탕! 모양(相)은 모양이고 공(空)은 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공함,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모양도 완전한 것이고 공함도 완전한 것입니다. 하늘도 완전하고 땅도 완벽한 것입니다.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다 완전한 것입니다. 살아 있는 것들도 지금 이 순간도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세계이며 진리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나 공함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고 본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다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세상, 진리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모양(相)은 모양이고 공함(空)은 공함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 바른 세상일까요?

할! 산은 높고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것이 법문의 요지이고 끝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법적인 세상, 절대적인 세상, 완전한 세상, 마지막은 이 순간의 세상입니다. 순간의 세상은 실생활에서 실천의 세계를 가르칩니다. 산은 높은 것이 산의 할 일이고 물은 흐르는 것이 물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현상에 대해 바르게 인지하고 수행하고 있다면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수행이 얼마나 이 세상과 적용돼 소통하고 있을까요?

 # 산은 높고 물은 흐른다

여러분들이 산에 있는 스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죠. 이런 말들은 굉장히 근사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될까요?


대봉 스님의 활구에 매료된 청중들.

선은 이분법적 생각 벗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보고 듣고 맡고 만지는 것이 분명하다면 완전한 세상

아이가 울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는 아이고, 엄마는 엄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뼈를 부수고 빨리 몸 밖으로 나와!" 이렇게 말해야 할 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무는 결코 쓰러지기 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식 속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달려가 안아주는 것이죠.

선수행이란 것은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이고 절대적인 세상에서 지적으로 따지고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매 순간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禪)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선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who am I)?'

여러분들 집에서 누가 설거지를 담당합니까? 설거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음번에 한번 체크해보세요. '우리 남편은 별로야. 우리 애들은 왜 이리 속썩이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미국 선방에 있을 때 45명분의 그릇을 설거지 하는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하는 것을 매우 싫었습니다. 참선이 끝나고 설거지까지 하려니 피곤할 수밖에요. 제가 그때 자주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은 왜 먹을까? 안 먹으면 설거지할 필요도 없을 텐데…' 였습니다.

어느 날 저보다 선 수행을 앞서 시작했던 다른 사람과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설거지를 할 뿐(just do it)이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보고 따라하게 됐죠. 그리고 30분 뒤에는 설거지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설거지를 하니 금방 끝나는 것 같고 에너지도 생기는 듯 했습니다. "아 설거지야말로 참선 수행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아 여기가 내 선방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해보십시오. 스펀지, 세제, 물들이 화두가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큰 궁금증과 질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몸과 마음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릇을 깨게 되겠죠.

3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 개 경주(Hound Racing)장이 있습니다. 개들이 토끼 모형을 쫓아가게 해 트랙를 도는 경주인데 개들은 토끼 모형을 잡기위해 신나게 달립니다. 토끼는 뒤에서 사람들이 조종하면서 개들이 절대 따라잡지 못하게 합니다. 경마와 같이 사람들은 경주견들에 돈을 겁니다.

#참선하는 마음을 가진 개

그곳에 클리어메리(Clearmary)라는 항상 1등을 하는 아주 뛰어난 경주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개에게 돈을 걸곤 했습니다.

어느 날, 클리어메리는 출전하는 경기에서 토끼를 쫓아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리어메리를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바보같은 개야 빨리 달려 달려!" 하지만 그 클리어메리는 토끼를 쫓아가는 개들을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반대방향에서 오는 토끼를 확 덮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숭산 스님은 "그 개야말로 참선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인간도 이 경주견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쫓고 쫓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얻더라도 진실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스님들조차 "난 꼭 깨달음을 얻어야돼"라는 집착을 갖고있죠. 하지만 영원한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클리어메리는 달리던 걸 멈췄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처님도 멈춰 서서 자신의 내부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음선종에서 가르치는 "순간 순간이 중요하며, 주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수행은 바로 이 처럼 현대의 삶, 사회와 연관돼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왜 음식을 매일 먹습니까?

내 위를 위해? 내 혀를 위해? 내 몸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왜 먹습니까?

대답이 분명하다면 인생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 인생조차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최상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직 모를 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수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깊은 궁금증을 마음속에 품고 '오직 모를 뿐' 그 마음으로 가세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우리의 참 본성을 깨닫고 모든 인류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자정보 725호 |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도로가 건물, 바로앞 버스정류장
● 평수 : 약 30평
● 법당 약 25평, 요사10평
● 교통 매우 편리,즉시법회가능
● 전세 4천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411-530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2층 50평
● 대형 재래시장 주변
● 법당 25평,방3,주방,주차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75만원 시설비 약간(절충가능)
● 지방 이전 관계로 '급' 양도
011-9342-979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 86평(법당 46평) 방 3칸, 공양간
● 삼존불 (아미타불,관세음,대세지보살)
● 전세3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비품대는
● 상의 후 결정
010-8011-744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녹전동
● 2층(법당10평,방5평) 1층주택(심야전기,방3개,욕실)
● 가액 : 7,000만원 (꼭하실분만연락바람)
054)332-5247
010-5319-900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답사 후 결정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3163-5014

팬션같은 암자 토굴안내
● 위치 :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대지 250평, 건물 25평
● 황토벽돌,기와지붕,목욕탕 수세실화장실,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방문 답사 후 결정
● 매수자가 법당 지을시 법당터 무상보시(스님들 한해서)
010-3169-536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010-3019-2236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5,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3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기도처(장군당)안내
● 위치 :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 조성산 장군당 보살님들 기도처 일터
● 부지 600평
● 전세 2천만원,월48만원
● 현재 운영중
010-5042-1003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 실평수 : 16평
● 방1, 삼존불, 탱화, 기타
● 보증금 1,000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8795-283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칠곡
● 평수 : 3층건물 2층, 3층 70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오존불, 방2개 모든시설 갖추어져 있음
● 보증금,시설비 합 4,000만원
010-6633-8301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대가면 고성IC 3분거리
● 총평수 : 168평
● 실평수 : 250평
● 법당1채,산신당1채,칠성당1채, 용왕당1채,요사채1채,스님방1
● 산위에위치, 모든시설 일체완비 법당 앞까지 주차가능(10대)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010-4173-70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2칸
● 보증금 1천만원 /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 시설비 2300만원
010-2208-4899
053)552-6487

부자가 되는 명당
● 땅 : 관리지역 약 1만평 토목공사 완료
● 건물 : 신축 원룸 60평식 2동 20평 토굴 1동
● 가액 : 15억 중 5억 대출가능
● 용도 : 팬션,기도원,연수원, 전원주택 불사 가능 투자 가치 100%
010-8992-6787

포교당(급)안내
● 인천시 계양구(지하철역 3분거리)
● 4층 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용신탱화, 각종 호신불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223-7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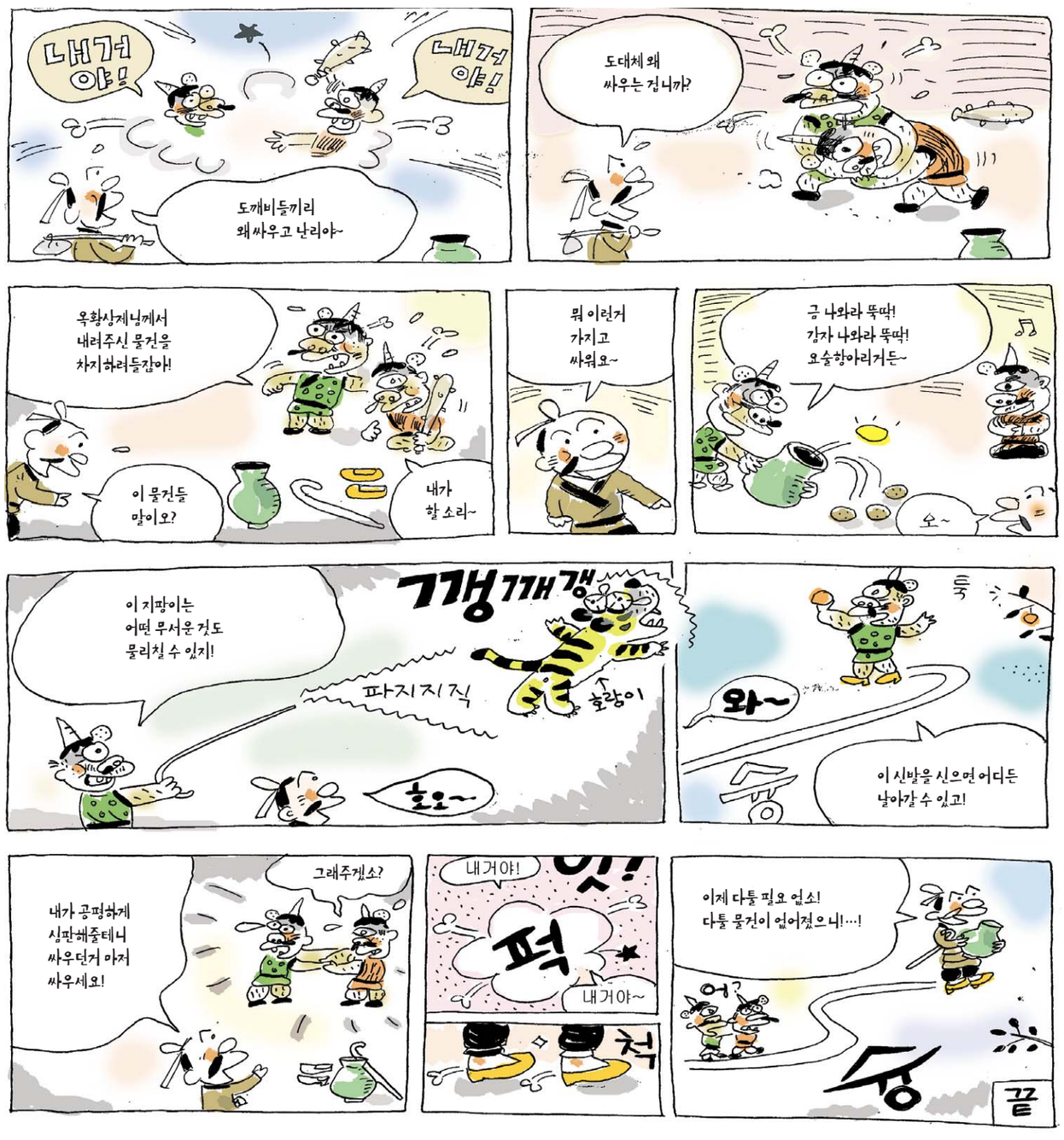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멋진 토굴
● 부지 200평 중 등기 165평
● 전통 한옥 2동 모두 수리 (윗채는 법당과 주지스님방)
● 아래채 방5개,요사채,윗산신각
● 멋진남향으로 완전복터
● 융자 6천만원 포함 2억1천만원. 대출승계 가능
010-3693-3535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시내 4층건물 중 2층 약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소불 200불
● 큰방 2개, 공양간, 화장실
● 모든 시설완벽, 현재운영 중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3842-3334

사찰안내 (포교당)
● 위치 : 광명시
● 평수 : 35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할렐자 02)6674-3535
010-3154-3535

울퉁보살 불퉁거사 〈41〉

구성 : 김흥인



두 귀신의 다툼

〈백유경(百喩經)〉



옛날 비사사라는 두 귀신이 상자 하나, 지팡이 한 개, 신발 한 켤레를 놓고 다퉜다. 어떤 이가 이유를 묻자 "상자는 생필품을 만들고, 이 지팡이를 잡으면 힘이 세지고, 이 신을 신으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고루 나누겠다며 귀신들에게 떨어지라 하고는 상자 ·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날아가 버렸다. 여기서 귀신은 온갖 마(魔)와 외도를 비유한 것이고, 상자는 보시로서 생활 도구가 그 안에서 나오며, 지팡이는 선정으로 마군 · 번뇌를 항복받고, 신은 계율로 반드시 인간 · 천상에 오르는 것이다. 마 · 외도가 다투는 것은 그들이 번뇌 속에 있으면서 억지로 선과를 구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데 비유한 것이다. 만일 선행 · 보시 · 계율 · 선정을 닦으면, 곧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옛 판화의 세계

육조 혜능 선사 남고혜능(南泏慧能)



남고혜능(南泏慧能) 중국 선종 6조 | 석씨원류(釋氏源流) | 불암사판 1673년 간행 | 반곽(半葉) 27.2×18.0㎝ |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혜능 선사가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의법을 전수받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혜능(慧能, 638~713) 선사는 중국 선종(禪宗)의 제6조로, 육조대사(六祖大師)라고도 한다. 신수(神秀)와 더불어 홍인 문하의 2대 선사로 남종선(南宗禪)의 시조가 되었다. 속성은 노씨이고 본적은 범양으로 어렸을 때 부친을 따라 영남 신주로 유배됐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땔나무를 하며 모친을 봉양했다. 어느 날 <금강경>의 게송을 듣고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선종 5조 홍인 문하에 들어 방아를 찧는 행자가 됐으며, 홍인 대사의 인가를 받아 의발을 전수받고 영남으로 보내져, 소주(韶州) 조계(曹溪)의 보림사(寶林寺) · 대범사(大梵寺)에 머물면서 법을 펼쳐 많은 신도들의 귀의를 얻었다. 제자로는 하택신회(荷澤神會) · 남양혜충(南陽慧忠) · 영가현각(永嘉玄覺) · 청원행사(靑原行思) · 남악회양(南岳懷讓) 등 40여 명이 있었다. 대범사에서 혜능의 설법을 중심으로 편찬한 것이 <육조법보단경(六祖法寶壇經)>이란 이름으로 후세에 전해진다. 홍인 밑에서 법을 겨루던 신수는 주로 북방에서 법을 전하며 '점오(漸悟)'를 주장하여, '남돈북점(南頓北漸)' '남능북수(南能北秀)'라는 말이 생겨났다. 본문을 살펴보면 홍인 대사로부터 의법을 전수받았던 내용이 실려 있다. "어느 날 홍인 선사가 그의 대중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각기 한 수의 게송을 지어 나에게 보이거라.' 이에 신수가 한 수의 게송을 지었다. '몸은 보리수와 같고(身是菩提樹), 마음은 명경대와 같도다(心如明鏡臺).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時時勤拂拭), 먼지가 일어나게 하지 마라(莫使惹塵埃).' 혜능이 이 게송을 보고 다시 게송을 지어 화답했다.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菩提本無樹), 명경도 역시 대가 아니다(明鏡亦非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本來無一物), 어디서 티끌이 일어나리오(何處惹塵埃).' 이 게송을 본 홍인 선사는 한밤중에 몰래 혜능에게 법을 전했다.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조사들의 승가리와 보발을 모두 너에게 부촉하니 너는 이것을 잘 보전해 법이 단절되지 않게 하여라.'" 이로써 인도로부터 들어온 불교가 혜능에 의해 유가, 도가 뿐만 아니라 여타 중국의 전통문화사상까지 흡수해 불교의 중국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아침

새떼가 우르르 내려앉았다
키가 작은 나무였다
열매를 쪼고 똥을 누기도 했다
새떼가 몇 발짝 떨어진 나무에 옮겨가자
나무 상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나무가
누군가 들고 가는 양동이의 물처럼
한 번 또 한 번 출렁했다
서 있던 나도 네 모서리가 한 번 출렁했다
출렁출렁 하는 한 양동이의 물
아직은 이 좋은 징조를 가지고 있다

–문태준/<유심>2009년 3 · 4월호에서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 4월 방생 안내 (간월암)
4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출발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자기 자성 이 자체가 바로 영원한 자기 생명의근본

☞25면에서 계속

만물이 하나로 연결됨을 느끼게 돼

문 스님께서도 자주 전기와 전구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방 안에 딱 누워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보니 갑자기 스님 말씀처럼 '아, 저 형광등이 전기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만물이 다 그렇게 연결돼 있구나.' 하고 아주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제 아들녀석이 요즘 자꾸 반항을 해서 제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 이제 확실히 다 하나로 연결된 그 자리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제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 네. 그런데 그 형광등을 보지 마시고 그 불 들어온 자체를 보세요, 불 들어온 그 자체. 그 선 줄 하나에 그 전체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 전체가 다 밝기 때문에 이 밑의 전체가 또 밝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정말 구질구질한 말 할 게 없이, 즉석에서 우리는 불고기를 해서 먹는 셈인데 즉석에서 배우지 못하면 요다음에도 무쇠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자리는 부처님의 진리의 그 포괄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강석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걱정을 하면 이건 소인배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소소한 거 가지고 이러다가는 오히려 큰 금강석을, 전체의 포괄된 금강석을 하나 줍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고는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개별적인 마음이라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 텐데 포괄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도리를 모르고는. 이거 하날 쥐지 못하고는 여기에 연결된 거를 도대체 모르니까. 이게 부처님의 이름이 부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전체에 포괄된 하나의 기둥이다 이거죠. 기둥인데 그 기둥도 자꾸, 여기 선줏대만 섰지 바람 부처도 있고 물 부처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부처라고 내세울 게 없거든요. 왜냐? 시시각각으로 이거는 배를 타고 갔을 때는 바람님이 필요하고 물님이 필요하죠. 땅으로 다닐 때는 땅 부처도 필요하고 사람 부처도 필요하고 짐승 부처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이건 때에 따라서 그냥 연결해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걸 부처라고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이게 생활에 우리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생, 전생 아주 통틀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왜 이래, 응?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 하면 바로 그 타의에서 괴롭히는 그 마음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선줄이 다 닿기 때문에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서 서로가 마음을 융합해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써 현상으로도 편안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하게 칼로 쳐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는데 나라고 세우지 않는다면 거기서 반항을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나라고 세우질 않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 벗으려면…

문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 않나요? 요즘 같이 이렇게 먹고살기도 버겁고 힘든 세상에 스님께서는 어찌 삶은 고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마음도리를 잘 모르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 보려 합니다. 스님, 어떻게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다 몰락 놓는다면

하면 삶의 이 무거운 짐들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답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본이라는 그 자체가, 자기 자성이 바로, 자기 주처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세상이 벌어지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몸속의 생명들이 전부, 여러분이 움죽거리는 것도 다 거기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움죽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질서정연합니다. 내가 해야 내가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행복한 거지 남이 행복한 걸 갖다 주거나 뺏어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배부르게 밥 먹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똥 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또 잠을 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 주고 죽어 주고 깨달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홀로 와서 홀로 해야만 할 문제는 해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길에서 길을 찾는다는 격도 있지요. 길은 육이 다니는 길이고 마음이 다니는 길은, 길 아닌 길이거든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고.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도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고 오셨지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이 말입니다. 짊어지고 오시진 않았을 텐데.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왔는데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은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림하는 데, 모두 생활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은 고가 없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자라서 팔자 운명이라든가 고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현명하다면 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거를 나라고 세울 게 없고, 내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내 몸이 있다고 할 게 없고, 모두가 첨보해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물 한 그릇을 먹었을 때도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원을 좀더 삶의 차원과 인생의 차원, 또는 우주 삼라만상의 차원, 모든 거를 결부시켜서 차곡차곡 한 번 한 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게 지혜로워지고 바다와 같아져요. 그럼으로써 어떠한 여건도 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신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성신 즉, 주처, 자기 주처가 있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는 것이지 그 싹이 딴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에너지를 주시오.' 하고 앨 써 보더라도 에너지가 그리로 안 가요.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올라오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를 타고 허허바다를 건너가는데 선장은 본체만체하고 자기네들끼리 배를 타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그냥 뒤집히겠지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하는 사람도 있겠고, '주여!' 하는 사람도 있겠고, 별 신의 이름을 다 불러 대고 야단법석들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모든 마음은 선장한테 다 맡겨 놓고 이렇게 좌왕우왕하지 않고 한군데 한마음으로 맡겨 놓는다면 가는 데까지는 무난히 배가 뒤집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그저 의식에서 나오는 거, 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유전성이나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이런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원인이 어딨는가?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내 싹이 내 뿌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너만이 싹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할 때에 그것이 관하는 대로 대뇌로 통신이 돼 가지고 대뇌에서 사대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의 빠른 이치란, 통신처라는 건 빛보다도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대로 통신이 되면 즉시 어디로 가느냐? 정수로 올라갑니다. 정수로 해서, 정수는 뭘 뜻하느냐?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성의학이라고 해도 되고, 심성과학이라고도 해도 되고, 심성 천체물리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진리를 참구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워서 우리가 갖추어 가지고 여여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가 있지요. 예전에 육조 스님은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또는 불성이 있는 까닭에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는 까닭에 만법을 들이고 낼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죠.

여러분이 사시면서 인간이 그냥 먹고만 살면 그냥 제일인 줄 알지 마시고, 누가 굶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즉 말하자면 속해 있는 거지

그 사량의 분별과 산란함이 다 사라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생각이 안 된다면 이 세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 인간까지 살아나가는 그 원리를 다 알게 됨으로서 모든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말입니다. 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함으로서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마저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는구나, 초월해서.'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게 된다면, 자기 뿌리가 자기 불성이라는 거,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 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런다면 아파도 '오직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면 의사가 돼 줍니다. 또 '너만이 이 가난한 거를 좀더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아?' 하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이끌어 주는 길잡이도 돼 줄 수 있고 해결사도 돼 줄 수 있고, 모든 게 돼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자기 원자에서 입자가 나와서 다 조절해 주듯이 그렇게 자기 주인공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인공, 내 불성은 다 팽개치고 그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신이 없다면 자기 몸뚱이는 나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송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근본이 빠지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번연히 그렇게 알면서도, 왜 그 싹은 진실된 자기 뿌리를 의지해서 진짜 푸르게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진짜 네 주인공을 네가 믿고 정말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름만 '주인공! 주인공!' 부르지 진짜로 믿지를 않아요. 자기를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누굴 믿어요? 이 세상에 누가 대신 살아 준다고 믿습니까? 자기 자성 이 자체가 바로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고라고 무겁게 짊어지지 마시고 일체를 영원한 자기의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나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무로 시작해서 무로 끝난다는데…

문 제가 아는 어느 기독교인이 불교는 무조건 무로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가 왜 무라고 그랬느냐. 물감이라는 것은 하난데 색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물감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이 색도 쓰고 저 색도 쓰고 이 색도 쓰듯이 우리도 어머니를 만날 때, 동생을 만날 때, 형님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각각 이렇게 마음을 자연스럽게 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그걸 어떤 마음으로 쓸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쓰니까 무(無)라고 했던 겁니다. 즉 평등공(平等空)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여러 가지가 고정됨이 없이 쓰니까 이걸 평등하다 해서 평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고 할 때의 없을 무가 아니에요.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하니깐 이건 평등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꽉 찬 공(空)이기 때문에 '무(無)'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無) 하나에서 수만 가지가 거기서 소생되는 겁니다. 나고 죽고 나고, 생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전체 진리가 '너가 있으니까 주인이 되고 너가 있으니까 바로 공이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몰락 놔 버려라. 네가 하는 거조차 놔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본래는 내가 빈 공에서 왔기 때문에, 온 것도 없기 때문에, 나조차도 공이란 말입니다. 나조차도 공인데, 공에다가 넣을 거는 또 어딨으며 뺄 거는 어딨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하는 것이 전부 공했는데 공에다 또 넣으라니 이건 어폐가 있는 말이지마는, 모두 그렇게 공해서 돌아가고 여여하게 살면서도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빈 껍데기로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로 끝난다고 할 수가 있나요? 자기가 엄연히 살아서 움죽거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알아야죠.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88,000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87,000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85,000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86,000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88,000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80,000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85,000
*어린아이, 학생, 성장발육 - 만병초, 녹용, 차가버섯 38가지 ₩150,000
*각 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여자가 얼굴이 예뻐질 때 기미, 주근깨, 화장독 제거 - 영능향 삼매자(희귀약초) ₩88,000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 보약 - 키가 쑥쑥 자람. 공부 잘할 체력유지 ₩88,000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한방(韓方)치료로

**간질(환)
백반증(백납)
건선**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F

"대한한의사 협의 의료광고 심의필"
"제 090226-중-482"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 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 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송,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buddhanews.com

자기 자성 이 자체가 바로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

☞25면에서 계속

만물이 하나로 연결됨을 느끼게 돼

문 스님께서도 자주 전기와 전구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방 안에 딱 누워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보니 갑자기 스님 말씀처럼 '아, 저 형광등이 전기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만물이 다 그렇게 연결돼 있구나.' 하고 아주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제 아들녀석이 요즘 자꾸 반항을 해서 제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 이제 확실히 다 하나로 연결된 그 자리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제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 네. 그런데 그 형광등을 보지 마시고 그 불 들어온 자체를 보세요, 불 들어온 그 자체. 그 선 줄 하나에 그 전체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 전체가 다 밝기 때문에 이 밑의 전체가 또 밝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정말 구질구질한 말 할 게 없이, 즉석에서 우리는 불고기를 해서 먹는 셈인데 즉석에서 배우지 못하면 요다음에도 무쇠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자리는 부처님의 진리의 그 포괄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강석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걱정을 하면 이건 소인배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소소한 거 가지고 이러다가는 오히려 큰 금강석을, 전체의 포괄된 금강석을 하나 줍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고는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개별적인 마음이라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 텐데 포괄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도리를 모르고는. 이거 하날 쥐지 못하고는 여기에 연결된 거를 도대체 모르니까. 이게 부처님의 이름이 부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전체에 포괄된 하나의 기둥이다 이거죠. 기둥인데 그 기둥도 자꾸, 여기 선줏대만 섰지 바람 부처도 있고 물 부처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부처라고 내세울 게 없거든요. 왜냐? 시시각각으로 이거는 배를 타고 갔을 때는 바람님이 필요하고 물님이 필요하죠. 땅으로 다닐 때는 땅 부처도 필요하고 사람 부처도 필요하고 짐승 부처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이건 때에 따라서 그냥 연결해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걸 부처라고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이게 생활에 우리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생, 전생 아주 통틀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왜 이래, 응?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 하면 바로 그 타의에서 괴롭히는 그 마음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선줄이 다 닿기 때문에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서 서로가 마음을 융합해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써 현상으로도 편안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하게 칼로 쳐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는데 나라고 세우지 않는다면 거기서 반항을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나라고 세우질 않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 벗으려면…

문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 않나요? 요즘 같이 이렇게 먹고살기도 버겁고 힘든 세상에 스님께서는 어찌 삶은 고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마음도리를 잘 모르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 보려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삶의 이 무거운 짐들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 모든 것을
> 자기 주인공에다
> 몰락 놓는다면

답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본이라는 그 자체가, 자기 자성이 바로, 자기 주처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세상이 벌어지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몸속의 생명들이 전부, 여러분이 움죽거리는 것도 다 거기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움죽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질서정연합니다. 내가 해야 내가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행복한 거지 남이 행복한 걸 갖다 주거나 뺏어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배부르게 밥 먹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똥 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또 잠을 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 주고 죽어 주고 깨달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홀로 와서 홀로 해야만 할 문제는 해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길에서 길을 찾는다는 격도 있지요. 길은 육이 다니는 길이고 마음이 다니는 길은, 길 아닌 길이거든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고.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도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고 오셨지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이 말입니다. 짊어지고 오시진 않았을 텐데.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왔는데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은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림하는 데, 모두 생활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은 고가 없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자라서 팔자 운명이라든가 고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현명하다면 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거를 나라고 세울 게 없고, 내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내 몸이 있다고 할 게 없고, 모두가 첨보해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물 한 그릇을 먹었을 때도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원을 좀더 삶의 차원과 인생의 차원, 또는 우주 삼라만상의 차원, 모든 거를 결부시켜서 차곡차곡 한 번 한 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게 지혜로워지고 바다와 같아져요. 그럼으로써 어떠한 여건도 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신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성신 즉, 주처, 자기 주처가 있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는 것이지 그 싹이 딴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에너지를 주시오.' 하고 앨 써 보더라도 에너지가 그리로 안 가요.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올라오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를 타고 허허바다를 건너가는데 선장은 본체만체하고 자기네들끼리 배를 타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그냥 뒤집히겠지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하는 사람도 있겠고, '주여!' 하는 사람도 있겠고, 별 신의 이름을 다 불러 대고 야단법석들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모든 마음은 선장한테 다 맡겨 놓고 이렇게 좌왕우왕하지 않고 한군데 한마음으로 맡겨 놓는다면 가는 데까지는 무난히 배가 뒤집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그저 의식에서 나오는 거, 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유전성이나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이런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원인이 어딨는가?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내 싹이 내 뿌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너만이 싹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할 때에 그것이 관하는 대로 대뇌로 통신이 돼 가지고 대뇌에서 사대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의 빠른 이치란, 통신처라는 건 빛보다도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대로 통신이 되면 즉시 어디로 가느냐? 정수로 올라갑니다. 정수로 해서, 정수는 뭘 뜻하느냐?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성의학이라고 해도 되고, 심성과학이라고도 해도 되고, 심성 천체물리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진리를 참구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워서 우리가 갖추어 가지고 여여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가 있지요. 예전에 육조 스님은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또는 불성이 있는 까닭에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는 까닭에 만법을 들이고 낼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죠.

여러분이 사시면서 인간이 그냥 먹고만 살면 그냥 제일인 줄 알지 마시고, 누가 굶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즉 말하자면 속해 있는 거지

> 그 사량의 분별과
> 산란함이 다 사라지고
> 평화로워집니다

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생각이 안 된다면 이 세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 인간까지 살아나가는 그 원리를 다 알게 됨으로서 모든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말입니다. 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함으로서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마저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는구나, 초월해서.'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게 된다면, 자기 뿌리가 자기 불성이라는 거,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런다면 아파도 '오직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면 의사가 돼 줍니다. 또 '너만이 이 가난한 거를 좀더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아?' 하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이끌어 주는 길잡이도 돼 줄 수 있고 해결사도 돼 줄 수 있고, 모든 게 돼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자기 원자에서 입자가 나와서 다 조절해 주듯이 그렇게 자기 주인공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인공, 내 불성은 다 팽개치고 그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신이 없다면 자기 몸뚱이는 나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송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근본이 빠지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번연히 그렇게 알면서도, 왜 그 싹은 진실된 자기 뿌리를 의지해서 진짜 푸르게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진짜 네 주인공을 네가 믿고 정말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름만 '주인공! 주인공!' 부르지 진짜로 믿지를 않아요. 자기를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누굴 믿어요? 이 세상에 누가 대신 살아 준다고 믿습니까? 자기 자성 이 자체가 바로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고라고 무겁게 짊어지지 마시고 일체를 영원한 자기의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나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무로 시작해서 무로 끝난다는데…

문 제가 아는 어느 기독교인이 불교는 무조건 무로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가 왜 무라고 그랬느냐. 물감이라는 것은 하난데 색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물감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이 색도 쓰고 저 색도 쓰고 이 색도 쓰듯이 우리도 어머니를 만날 때, 동생을 만날 때, 형님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각각 이렇게 마음을 자연스럽게 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그걸 어떤 마음으로 쓸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쓰니까 무(無)라고 했던 겁니다. 즉 평등공(平等空)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여러 가지가 고정됨이 없이 쓰니까 이걸 평등하다 해서 평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고 할 때의 없을 무가 아니에요.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하니깐 이건 평등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꽉 찬 공(空)이기 때문에 '무(無)'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無) 하나에서 수만 가지가 거기서 소생되는 겁니다. 나고 죽고 나고, 생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전체 진리가 '너가 있으니까 주인이 되고 너가 있으니까 바로 공이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몰락 놔 버려라. 네가 하는 거조차 놔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본래는 내가 빈 공에서 왔기 때문에, 온 것도 없기 때문에, 나조차도 공이란 말입니다. 나조차도 공인데, 공에다가 넣을 거는 또 어딨으며 뺄 거는 어딨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하는 것이 전부 공했는데 공에다 또 넣으라니 이건 어폐가 있는 말이지마는, 모두 그렇게 공해서 돌아가고 여여하게 살면서도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빈 껍데기로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로 끝난다고 할 수가 있나요? 자기가 엄연히 살아서 움죽거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알아야죠.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88,000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87,000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85,000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86,000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88,000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80,000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85,000
*어린아이, 학생, 성장발육 - 만병초, 녹용,
차가버섯 38가지 ₩150,000
*각 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여자가 얼굴이 예뻐질 때 기미, 주근깨, 화장독 제거 -
영능향 삼매자(희귀약초) ₩88,000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 보약 -
키가 쑥쑥 자람. 공부 잘할 체력유지 ₩88,000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한방(韓方)치료로

간질(환)
백반증(백납)
건선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F

"대한한의사 협의 의료광고 심의필"
"제 090226-중-482"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
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 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숭,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불자 세상보기

고 영 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시인

명장의 리더십과 용인술

봄이 왔는데도 봄 같지가 않다. 하늘은 황사로 뿌옇고 날씨는 영도를 오르내린다. 정치계와 경제계의 기상도 흐리다. 이런 때에는 야구장의 호쾌한 타격소리가 그립다. 지난 화요일 오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은 우리의 눈과 귀를 씻어주었다. 승부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명언은 빈 말이 아니었다. 역사의 명승부들 역시 9회 말 투 아웃에 일어났다. 전광판의 게임스코어 판이 3:1을 가리켰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투수의 볼이 포수 앞에 다가왔다. 순간! 타자는 방망이를 휘둘렀다. 호쾌한 타격소리가 그라운드를 적셨다. 흰 공은 물 샐 틈 없는 수비선수 사이를 뚫고 나아갔다. 2타점 안타였다. 경기장은 온통 열광했다. 전광판은 3:3이 되었다. 야구의 묘미가 온몸에 전해졌다. 미국 LA의 다저 스타디움에서였다. 그 주역은 김인식(62) 감독이 이끄는 한국야구팀이었다. 한국팀은 '사인 불통'으로 연장전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다. 하지만 '우리들의 행복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경기는 끝났지만 김 감독의 '위대한 도전'이 회자되고 있다. 그는 2004년 뇌경색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했다. 김경문(두산), 김성근(SK) 감독 등의 젊은 감독들이 '독배'(毒杯)라며 대표팀 감독을 고사한 직후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WBC 감독자리를 그에게 떠맡기려 했다. 주변 지기들은 건강을 이유로 말렸다. 하지만 그는 '국가가 있어야 야구가 있다'며 감독직을 맡았다.

처음에는 대표팀 구성도 어려웠다. 하지만 김 감독은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선수기용'과 '작전구사'로 대표팀의 빈틈을 보완했다. 그리고 '상대분석'을 통해 상태팀의 빈틈을 겨냥했다.

우선 김 감독은 '스몰 볼'과 '롱 볼'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그는 기존의 틀에 매이지 않았다. 선수와 상황에 맞는 '토털 베이스볼'과 '휴먼 볼'로 맞섰다. 버릴 때는 과감히 버렸고 쥘 때는 악착같이 쥐었다. 또 '여유의 미학'과 '감각적인 선수교체'로 감성야구를 이끌었다.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선수를 믿어주는 '신뢰야구'를 펼쳤다. 이로 인해 코치 7명과 선수 28명의 마음을 얻었다. 그 위에서 그는 선수들의 '강한 투혼'을 끌어내었다

선수들은 절뚝거리는 감독을 중심으로 따르고 그라운드에서 온몸을 던졌다. 비록 사인이 맞지 않아 일본에 졌지만 그의 리더십과 용인술은 '달인'의 것이었다. 애초에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다. 선수시절이나 감독시절에도 굴곡이 많았다. '엘리트 인생'으로 살았던 일본의 하라(51) 감독과는 달랐다. 한때 '잡초인생'으로 살았지만 김 감독은 강인했다.

우리의 삶 곳곳에도 이런 역전 드라마가 내재해 있다. 별 볼일 없던 인생도 '시절 인연을 만나면' 꽃을 피울 수 있다. <잡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승 경전에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한다'고 했다. 이러한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의 활로 역시 '인연'에 있다. 아직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은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말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다.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시절 인연의 도래'를 기다리는 인생 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교공부의 핵심은 자기를 이기는 '극기'와 자기를 낮추는 '하심'에 있다. 김인식 감독은 '믿음의 리더십'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국민감독이 된 그는 '위기관리형 리더'로서 손색이 없는 명장이었다. 정치와 경제의 기상이 흐린 이때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존경받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 명장은 곳곳에 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알찬 봉축기간이 되려면

사찰마다 연등 만드는 손길이 분주하다. 봉축 기간이 다가 온 것이다. 해마다 그랬지만 봉축 기간은 국민 누구에게나 흥겹고 새로운 발원을 하는 축제의 시간이 돼야 한다. 불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범죄 없는 세상, 비리와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발원 하는 기간이 돼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위험한 카드를 꺼내 놓고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분위기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불교계가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봉축 기간이 국민들에게 즐거운 희망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지리멸렬한 기간이 되기도 한다. 올해는 경제난 속에 치러지는 축제이니만큼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담아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외형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기고 바른 삶의 지향을 추스르는 자세를 불교계가 솔선해야 할 것이다.

연등축제가 종교적 성스러움이 배제되거나 세속적 유흥이 지나치지 않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그런 만큼 이제 연등축제와 각종 봉축행사는 종교를 초월해 하나의 문화로 온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올 봉축 기간 불자들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 더 많은 눈길과 손길을 주어야 한다.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이 밝히는 연등은 바로 자신을 밝히고 이웃의 무명을 걷어내는 행복과 희망의 등이 돼야 하는 것이다.

나눔의 등불 크게 타오르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에 나눔의 바람이 불고 있다. 3월 27일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1배 100원 108배' 모금 법회가 열렸다. 또 자비의 연등달기와 자비의 쌀 나누기 등 관련 행사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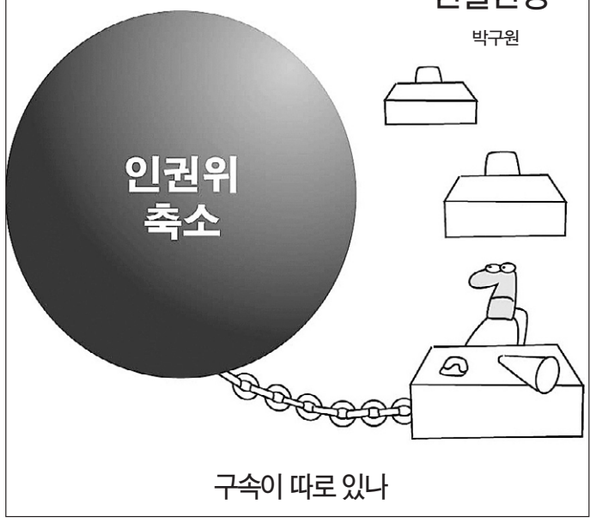
현대사회에서 나눔 운동은 국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나눔 문화가 얼마나 정착됐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해마다 불교계는 봉축기간을 맞아 나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고 올해는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 비구니스님이 자신의 원력으로 조성해 운영하던 어린이 복지시설 일체를 조계종 복지재단에 기부했다는 소식도 있다. 출가자의 무소유 정신을 실천한 이 스님은 오늘날 승단에 번져가고 있는 '소유욕'에 커다란 경종을 울렸다는 평도 듣고 있다.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다. 나를 버려 이웃을 구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이고 그러한 행원을 배우는 것이 지혜다. 기복에 목숨을 걸던 불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한 사회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이끌어 가는 종교가 되기 위해 불교는 보다 많은 것을 나누고 어울려야 한다. 그런 풍토 속에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고 미래를 가늠하며 중생을 영도하는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불붙고 있는 불교계의 나눔 운동이 보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우리 사회를 밝히는 커다란 등불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4월의 테마-감사합니다

봄꽃 향기에도 감사하자

약간은 시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며, 성숙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꽃망울이 벌어진지가 언제인데 또 다시 계절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거리를 휘감은 어제 만난 신도들의 말이다. 갑작스레 법당을 찾은 두 분의 신도에게 "웬일이야?" 하고 말하자 꽃들이 얼어 죽을까봐 걱정돼 왔단다.

"거리엔 생동감이 넘치는데 갑작스레 찬바람이 부니 우리라도 힘내라고 응원해야 하잖아요."

하긴, 세상이 온통 찬바람으로 넘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세계적인 경제 한파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치고 있다. 우울한 세상사 속에서 봄의 향기를 논하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존재하기에 봄을 만나고 그 향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늘 보다 나은 하루가 되길 기도한다. 법당을 찾아오는 신도들의 일상이 무사하길 염원하며, 인연 있는 사람들의 하루가 웃음으로 넘쳐나길 기원한다. 아니 주변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뜻대로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슬픈 눈과 우울한 표정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일상은 평범한 것인데 저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관음보살은 어디에 계시지? 부처님의 위신력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들이 계시다면 저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텐데. 언제나 마음속에 휘도는 것은 한없이 작은 나의 초상이며, 무력한 능력이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다. 정말 가진 것이 너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 아픈 일이 분명하지만 그가 노력했는가 알아보고 싶다. 구걸이라도 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이 거리에서 혼자라는 고독과 절망을 품고 서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빵과 꿈, 그리고 열매가 작다고 탓할게 아니라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른 봄 양지바른 담장 밑의 들꽃을 보며 생명의 환희를 느꼈다는 선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들과 호흡하며 생명의 맥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약간의 시샘은 있을지라도 개나리나 진달래의 화사함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그 긴 겨울의 혹한을 견디고 피우는 꽃을 보면 우리의 내일도 분명하게 꽃피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두루지 않기로 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일에 앞서 오늘이 있지만 오늘이 없는 내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오늘 감사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 꽃이 움츠러들까 걱정하는 신도들의 마음처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제 꽃을 걱정하지 마. 자기의 길은 자기가 가는 것이야" 하는 말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상이 없을 것이다.

덕륜 스님
울산 연화정사 주지



우학스님의 빛깔있는 법문(전5권)에 이어 부처님이 계신 화엄의 세계, 그 화엄의 세계에 들기 위한 불자의 삶의 자세를 우학스님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풀어낸 생활 속 법문집!

화엄경약찬게 법문(1)

글과사진 無一 우학스님

"해인삼매, 화엄삼매로 꽃피다."



해인삼매가 일체만상一切萬象의 실상을 비춘 세계라면 화엄삼매란 현실의 삶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행위로 나타납니다. 즉 비로자나의 세계인 해인삼매를 현실의 삶에 구현하고 부처님 세계, 정토세계를 이루기 위해 중생교화를 향한 자비의 대의지가 화엄삼매인 것입니다. 부처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를 떠나 따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현재적 Present이고, 긍정적 Positive이고, 인간적 Personal이며, 대중적 Popular인 종교입니다.

(한국불교대학 서점(053-474-8229)이나 가까운 불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속) 도서출판 좋은인연
(입학상담) 053 474 8228 | www.TVbuddha.co.kr | 053 475 3707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8·°' " -ŧ…- ¢` „ Ł ,Ø 2009.3.30 11:11 AM ˘ ` 1 §ŧ°‰"3

신라시대 무염낭혜국사 대승종풍 법맥계승

자성본불(自性本佛)은 곧 자신의 성품에서 찾아라

대한불교 선각종 종정 영담 대종사



선각종(禪覺宗)은 선(禪)과 교(敎)를 아우르는 선교겸수와 이판(理判), 사판(事判)에 걸림없는 이사무애(理事無碍)를 스스로 실천함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대승불교(大乘佛敎)의 핵심사상인 성불도성을 스스로가 실천하고 지혜와 자비정신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三寶)의 존엄성을 불교인들에게 널리 이롭게 하도록 한다.

교 시
종단 화합 안정
청정 종풍 확립
포교 전법 도생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뒤 돌아보고 자성본불(自性本佛)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생활의 편리를 추구한 나머니 무지막지한 "자연의 현상을 거스리는 행위" 또한 자재해야 할 것이다.

"선각종" 성주산문 선각승풍 법맥 계승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근본 교리를 봉채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 호국안민(護國安民)을 종지로 하고, 신라의 무염(無染)국사께서 창수(創樹)하신 성주산문(聖主山門)의 선각심인(禪覺心印)을 흠승(欽承)하며, 근대의 취운(翠雲)선사의 제종포할사상(諸宗包轄思想)과 현대의 각성(覺性) 큰스님의 교학정신(敎學精神)을 계승하여 선교겸수(禪敎兼修)와 이사무애(理事無碍)를 제고(提高)하고,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성불도생을 실천하여 지혜(智慧)와 자비(慈悲)의 세존정신을 사회에 구현함으로써 이 땅의 불일(佛日)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三寶)를 법계에 유전케 하리라.

그리하여 한국불교의 실천적 생활측면(生活側面)과 내면적 계발측면(啓發側面)을 총괄하는 새 천년 중흥불교의 중심에 우뚝 설 것이다. "문자에 의존함이 없이 경전 밖에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라는 선학(禪學)의 기본 입장과 경전의 강설과 훈고학적인 주석서 작성에 전념하는 교학(敎學)의 틀을 함께 하는 실천적 수행(修行)과 중생교화의 영겁기단(永劫基壇)이 되어 안으로는 법손 만대의 향상과 번성을 기하며, 밖으로는 평화공존(平和共存)과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불기 2544(2000)년 3월 16일에 대한불교 선각종(禪覺宗)을 창종하였다.

한국불교 - 종단순례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옴천사
(061)433-2233

선각종의 근거

선각종은 종조인 낭혜(서기 801~888년) 국사의 가르침에 따르고 청허 휴정(서산대사)의 유심정토사상을 받들어 삼장(경 · 율 · 론)을 신행의 본존으로 수행 정진을 한다.

"자등명 법등명"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으며, 보살행을 닦는 승속 동행을 원칙으로 하는 종단이다.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며 기타 경전 습득 및 염불을 제한하지 않는다.

무염 낭혜 국사는 신라시대의 태종 무열왕의 8대손으로 9세 때부터 일람첩기의 신재를 보여 '해동신동' 으로 불렸다. 13세 때 설악산 오색석사에서 승려가 되었다. 법성에게 수년을 사사하고, 부석사 석징에게서 화엄경을 익혔다. 821년(헌덕왕 13년) 무염 낭혜는 21세에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나고 그곳에서 남산 지상사에서 화엄을 불광사 여만에게서 법을 배우고 보철에게서 법인을 받았다.

고적과 고승들을 두루 방문하고 그 이름을 널리 떨쳐 '동방대보살' 로 일컬어졌다. 845년(문성왕 7년) 귀국 후에는 웅천 오합사(지금의 성주대사로 일컬어졌다. 그 후에도 신라의 선종을 크게 융성시켰으며, 세수 88세 나이로 성주사에서 입적을 하셨다.

현재 충남 보령 성주사에는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8호)가 세워져 있다. 또한 남호 각성(1887~1978년)대종사를 개산조로 추대했으며, 현 초대종정으로는 영담 정업(1914~)큰스님이 사부대중의 추앙을 받고 있다.

禪覺宗의 修行

뿌린 씨앗은 언젠가 싹이 튼다.
다시 꽃을 피운가.
겨울 바람에 낙엽진 앙상한 나무
이제 봄을 만나 새잎이 돋아난다.

영산회상에서 뿌린 씨앗은 시방세계 도처에 싹이 트고 온천지에 자비의 꽃을 피운다.

대승(大乘)의 뿌리를 이땅에 확고히 심은 신라(新羅)의 무염국사(無染國師)께서 뿌린 씨앗은 실로 오랜 세월동안 잠자코 있었다. 대사(大師)가 이 땅에 들어온 많은 경론(經論)은 그간 우리 민족의 커다란 정신적 양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불교 발전에 지대한 몫을 해왔다.

실로 1300여년이나 대사의 유지는 이땅에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항상 더 활발하게 싹트기를 기다려 왔다. 그간 우리의 사회나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의식상에는 많은 변화와 개혁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아무리 훌륭한 유행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퇴색하고 외면당하기 마련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佛法)만을 2500여년의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항상 중생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감명을 주어왔다.

그것은 시대가 변한다 해도 인간심성(人間心性)의 근저(根底)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인간성이나 고대인의 인간성이나 근본적인 인간성은 그다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준 불교가 오늘에 이르러서도 역시 현대인의 마음을 잘 밝혀주는 것이다.

한국불교 1600여년의 역사를 대표할 중요한 인물을 뽑는다면 신라(新羅)의 원효대사(元曉大師) 고려의 보조국사(普照國師) 그리고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서산대사(西山大師)는 물론이고 그 외에 당연히 무염낭혜(無染朗慧)대사를 손꼽을 것이다. 원효대사는 대, 소, 승, 경론에 집착되어 쟁론을 일삼든 여러종파를 화해시켜 일미(一味)의 법해(法海)로 통합하게 하였는데 보조국사(普照國師)는선시불심(禪是佛心)이요. 불교시어(佛敎是語)라 하고 불심(佛心)과 불어(佛語)가서로 다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일원(一元)이라는 이치를 체득(體得)하고 종래의 치선(痴禪) 광혜배(狂慧輩) 교가(敎家)들이 불교조교(佛敎祖敎)를 이원(二元)으로 망상하고 갖가지 장벽을 쌓아서로 모순적대(矛盾敵對)하여 오는 고질적(姑姪的) 악습(惡習)을 일봉(一棒)으로 타파하고 佛, 祖의 심법(心法)을 한대 묶어 선교상자(禪敎相資), 정혜쌍수(定慧雙手), 원돈관행(圓頓觀行), 간화결의(看話決疑), 무심합도(無心合道) 내지 '염불삼매(念佛三昧)' 의 방편문(方便門)을 열어서 각기 근기에 따라 수증(修證)케 하므로 인도(印度)의 원천적 불교와 중국의 분파적(分派的) 불교(佛敎)는 마침내 전고미유(前古未有, 주선융교(主禪融敎)의 빛나는 회통불교(會通佛敎)를 실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조국사의 사상적 뒷받침은 많은 선지식(善知識)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특히 후세에는 무염국사(無染國師)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와같이 한국불교는 인도난 중국불교에 의한 지류(支流)나 연장(延長)이 아닌 귀일적(歸一的, 창조적(創造的)인 특수성(特殊性)을 지닌 우리 고유의 성격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선인(先人)들의 이러한 배려로 모든 불자(佛子)들은 치선(痴禪) 광혜(狂慧)의 병적상태를 지향하고 먼저 불조(佛祖)의 여실언교(如實言敎)로써 진정한 지견(知見)을 결택(決擇)한 다음에 그 문자와 지혜(知慧)를 놓아 버리고 바로 자심(自心)의 현전일념(現前一念) 위에 나아가 전승(傳承)되어 온 것이 한국적(韓國的) 전통불교(傳統佛敎)로써 사집(四集) 사교과(四敎科)라는 지침서(指針書)가 그것을 증언(證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淨土三部經(원각경)은 넓게 유포되었으며, 불자필수(佛子必修)의 것이며 모든 불교수행자가 꼭 알아야할 필수 교과서로 서정하여 졌다. 그 후 800여년의 세월동안 불교강원이나 제가신도들 사이에 넓게 독송되고 연구되어 온 淨土三部經의 그 지보적(至寶的)인 가치는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다.

淨土三部經이란 대타라니문(大陀羅尼門)을 뜻하는 말이며 일체(一切)의 진정(眞正)한 진여(眞如) 보제(普提) 및 다라밀(波羅蜜)을 유출(流出)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제 무염국사(無染國師)가 가신지 88세가 지났으나 그가 뿌린씨앗은 다시 이땅에 단비를 만나 싹을 터서 여기 이렇게 선각종(禪覺宗)으로써 다시 피어오른다. 그리하여 선각종(禪覺宗)이라는 보배로운 宗을 이루어 더욱 많은 중생의 심성을 밝혀 줄 것이다.

선각종(禪覺宗) 종지(宗旨). 간행에 즈음하여 종단 내외분들은 물론이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사회인사 제위에게 감사드리며 발전하는 한국불교의 등불이 되고자 더 한층 자승하는 바이다.

선각종은 종조인 무염낭혜(서기 801~888)국사의 가르침에 따르고 청해 휴정(서산대사)의 유심 정토사상을 받들어 삼장(경 · 율 · 론)을 신행의 본존으로 수행정진

대한불교 선각종 종지종풍

- **종명** : 대한불교선각종(大韓佛敎 禪覺宗)
- **교조** : 석가모니불
- **종조** : 통일신라 무염 낭혜 국사
- **개산조** : 남호 각성 대종사
- **종정** : 영담 정업 대종사
- **중흥조** : 봉운 정암 대선사
- **창종일** : 2000년 3월 16일
- **종지** : 본 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무주무염국사께서 창수(創樹)하신 성주산문(聖住山門)의 선각승풍(禪覺僧風)을 선양(宣揚)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 호국안민(護國安民)을 종지(宗旨)로 한다.

대한불교 선각종 임원현황

각 부처별 원장 스님 및 종무원장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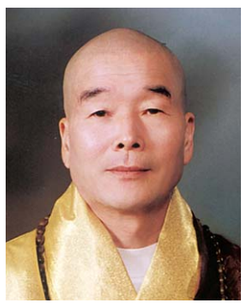
종 정	영담 정업 대종사
총 무 원 장	봉운 정암스님
원 로 원 장	법경스님
종 회 의 장	동명스님
종 책 실 장	자공스님
사 정 원 장	진원스님
교 육 원 장	혜명스님
포 교 원 장	벽해스님
선 원 장	도륜스님
문 화 원 장	진환스님
국제포교원장	진덕스님
복 지 원 장	경봉스님
환 경 원 장	정각스님
보 건 원 장	다행스님
법규위원장	혜원스님
법계고시위원장	원명스님

종단 전국 교구원장

서울교구원장	진보스님
경기교구원장	혜인스님
강원교구원장	혜국스님
인천교구원장	정각스님
충북교구원장	선보스님
충남교구원장	선관스님
전북교구원장	법일스님
광주교구원장	혜관스님
전남교구원장	진철스님
경주교구원장	진봉스님
포항교구원장	성법스님
부산교구원장	원정스님
제주교구원장	성우스님

정보화시대 불자양성 등 종단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장 봉운 정암 스님



불(佛), 불타(佛陀)는 각자(覺者)며, 자기의 본성을 보고 깨침을 얻으면 붓다(佛)이다. 견성성불의 지각은 헛된 관념의 변화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체험이며 자신의 내부에 깊숙이 숨어 있는 본성(本性), 진아(眞我)를 표현해 현재의식으로 끌어 올려 눈 앞에 보일 때에 비로소 각자(覺者)로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위없는(無上) 존귀한 자아의 존재를 우리는 우선 믿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믿고 나서야 비로소 자성본불(自性本佛)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3월 16일 창종한 대한불교 선각종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신생 종단이지만 호국기원, 국태민안, 교정교화사업, 경전연구발간사업, 장묘사업 현대화 등 중생구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중 · 장기적인 계획으로 실천 추진 중에 있다.

△ 초 · 중 · 고생 장학사업, △ 종립학교 설립, 해외연수 교육 연1회 실시, △ 독거노인 요양원 설립, △ 승려노후 대책사업, △ 고아원 급식 사업, △ 교도소 수용자 교화사업, △ 승려전통의식 및 수련원 설립, △ 사이버 법당 운영과 염불선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처님의 교리를 삶의 가치기준으로 삼아 생활불교로써 전법도생 대중교화의 전 종도들이 적극 동참하여 자리이타 정신을 구현코져 한다.



옴천사 지장 대불



선각총림 옴천사 천불전

보 성 그 룹



보성삼베섬유(주)
보 성 상 조(주)
보성의전사업부

고객지원센터
1544-6607
http://suho-1004.co.kr

대한불교 선각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성그룹은 선각종과 함께 하겠습니다